

2025년 겨울호 vol.181

2025 이화인의 밤
2025 이화가족 성탄예배
제18회 '아름다운 이화인' 상 수상자 박재연 동창

이화 동창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회보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2025 이화 성탄 기도

사랑이신 하나님,

불안한 저희에게 평안 주시려고
아기 예수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달픈 저희를 위로해주시려고
아기 예수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탈진한 저희에게 새 힘 주시고자
아기 예수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둔 세상, 캄캄한 심정 밝혀주시려고
아기 예수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통해 하나님 나라를 저희에게 보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다시금, 오신 예수님과 더불어
저희 삶의 기준 반듯하게 세우게 하소서.

세상의 기준에 기울지 않고 중심 잡고 살게 하소서.
예수님 지상에서의 삶의 자취 따르게 하소서.

가난하고 차별받아 절망한 하나님의 자녀 일으켜 세우게 하소서.
버려진 존재들을 기억하고 중심에 불러내게 하소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정의를 세우는 데 힘을 보태게 하소서.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 따라
삶의 하방성을 고민하는 저희 되게 하소서.
사랑은 더 낮은 곳에 머무는 것임을 보여주신 예수님 따라
낮은 곳에서 몸을 낮추어 사랑할 줄 아는 저희 되게 하소서.

말귀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표지 사진

황규호(모교 교육학과 명예교수)
동심(童心)으로 맞이하는 ECC
합박눈(2025)

편집위원

이명경(무용 77, 총동창회장)
한은주(특교 79, 총동창회 부회장)
곽은이(한음 85, 총동창회 부회장)
김경령(수화 84, 총동창회 총무)
최지영(사화 89, 총동창회 홍보부장)
이영희(사화 88, 편집위원)
이미란(행정 89, 편집위원)
정진숙(행정 89, 편집위원)
최정은(커미부 89, 편집위원)

발행 2026년 1월 10일 발행

발행인 이명경

발행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주소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길52

(이화·삼성교육문화관 8층)

전화 02-3277-3386~7

E-mail ewhaalum@ewha.ac.kr

홈페이지 http://www.ewhaalum.or.kr

편집 문화정원

인쇄 제이오

비매품

이화동창에서 사용한 사진의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 2026 이화여자대학교총동창회

Printed in Korea

표2 이화 동창과 드리는 한마음 기도
2025 이화 성탄 기도

02 2025 이화인의 밤

“이화 있음에 우리가 있네. Thanks Ewha!”
따뜻한 교감, 생동하는 열정으로 채워진 이화인의 밤

06 2025 이화 동창 및 기부자 초청 음악회

감사의 마음, 다시 나눔으로

08 제11회 이화 가족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다시 찾은 이화동산, 가족 사랑이 영글어 간 하루

12 2025 이화가족 성탄예배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운 마음을 채워가야

14 2025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 워싱턴 D.C. 지회

우리 안에 다양한 모습이 하나되어 꽃처럼 피어나라 이화!

18 이화인 모임 탐방/ 조형예술대 동창 합창단

넘치는 끼와 열정, 함께여서 더 빛나는 하모니

21 제18회 '아름다운 이화인' 상 수상자/ 웰인테너셔널 마다가스카르 지부장 박재연 동창

질문을 포기하지 않는 용기, 배움을 삶으로
확장하려는 책임감

24 2025년 '이울 연합회' 창립 4주년 기념행사

“이화를 위한 아름다운 공동체로 거듭나기를”

26 총동창회 소식

'이화인의 밤'과 '이화가족 성탄예배' 진행 상황 논의 외

29 모교 소식 국가연구소 사업(NRL 2.0) 선정 외

32 대학(원) 소식 사회과학대학 외

38 과(학부) 소식 국어국문학과 외

48 동창이 펴낸 새 책 『크리스마스 카드 한 장』 외

49 동창 근황 김선행(영문 66) 동창 외

59 지회 소식 남가주(LA) 지회 외

67 후원이사회비 납부자 명단

68 평생회비 납부자 명단

71 연회비 납부자 명단



02



06



08



12



14



21



24

“이화 있음에 우리가 있네. Thanks Ewha!” 따뜻한 교감, 생동하는 열정으로 채워진 이화인의 밤



총동창회가 주최한 ‘2025 이화인의 밤’이 11월 24 일(월)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려, 약 1,000명의 동창과 모교 구성원이 참석해 서로의 우애를 확인하고, 모교 발전을 위한 정성 어린 기금도 함께 전달했다.

1부는 한은주(특교 79) 총동창회 부회장의 활기찬 진행으로 문을 열었다. 먼저 조선영(영문 74) 선교 부장이 기도를 통해 스크랜튼 선교사로부터 이어진 이화의 139년 역사와 세계 곳곳에서 섬김을 실천하는 동창들의 사명을 언급하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이화인들이 빛과 소금으로 선한 영향력을 펼치게 해달라”고 간구했다.

이어진 인사말에서 이명경(무용 77) 총동창회장은 한 해의 끝자락에 동창과 이화 가족이 한자리에 모인 것에 기쁨과 감사를 전하며, 올해 ‘아름다운

이화인’으로 선정된 박재연(생명 90, 웰인터내셔널 마다가스카르 지부장) 동창의 헌신을 소개하고, 세계 곳곳에서 사명을 실천하는 140여 명의 이화 선교사들에게도 고마움을 표했다. 또한 “유능함보다 귀한 것은 정직함이며, 정직함은 이웃을 향한 섬김으로 완성된다”고 강조한 김옥길 선생의 메시지를 언급하며, “조화로운 삶 속에서 서로 어울림의 기쁨을 만들어가는 것이 이화인의 가치”임을 상기시켰다. 또한 올해의 행사 슬로건인 “이화 있음에 우리가 있네”라고 인사말을 맺으며 이날 모임의 의미를 더욱 깊게 했다.

‘아름다운 이화인’ 상 시상

다음으로 제18회 ‘아름다운 이화인’ 상 시상이 진행되었다. 올해 수상은 20여 년간 아프리카 마다가



이화학당 김은미 이사장, 이명경 총동창회장과 이향숙 총장, '아름다운 이화인' 상 수상자 박재연 동창(사진 왼쪽부터)

스카르에서 의료·교육·복지 분야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박재연 동창에게 돌아갔다. 박 동창은 2003년 아프리카 인랜드 미션(AIM) 선교사로 파송된 이래, 의료 취약 지역 주민들을 위한 아동 진료활동, 어린이 교육지원, 대학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현지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이끌어오며 섬김과 나눔을 실천해 왔다. 시상에 앞서 박 동창의 현지 활약상을 영상을 통해 함께 공유하고, 이명경 총동창회장이 박재연 동창에게 상패와 부상(상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 시상이 진행되는 동안 박 동창의 생명과 학과 동기들이 축하의 메시지가 담긴 여러 장의 플래카드를 펼쳐 들어 기쁨과 축하를 더했다.

박 동창은 수상소감을 통해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지도 교수들, 선후배, 마다가스카르 현지 팀, 가족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특히 저와 함께 손 잡고 어려움을 헤쳐온 남편 이재훈 선교사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나눔과 섬김이라는 이화의 정신을 삶으로 실천하라는 부르심으로 기억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제게 주어진 자리에서 정직하고 겸손하게, 사랑으로 섬기며 살겠다”라는 다짐의 말로 수상소감을 마무리했다.

모교발전기금 전달 및 모교소식 이어져

다음으로 동창들의 따뜻한 응원과 지지로 마련한

총동창회 모교발전기금 전달식 순서가 이어졌다. 이명경 총동창회장은 이화 새 시대 발전기금 2억 5,000만 원과 재학생 장학금 5,000만 원, 총 3억 원의 발전기금을 이향숙 총장에게 전달했다. 이에 이향숙 총장은 깊은 감사로 화답하며, 동창들에게 올해 이화에서 거둔 성과를 담은 모교 소식을 전했다.

취임 첫해를 보낸 이 총장은 “포용적 혁신으로 대전환을 선도하는 이화’라는 새로운 비전 아래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 교육부 ‘대학혁신지원사업’에서 2년 연속 S등급을 받는 등 교육연구부문에서 대형 정부 사업을 잇달아 수주했다. 특히 인간중심인공지능연구원이 교육부 ‘G-LAMP’ 사업에 선정돼 5년간 250억 원을 지원받았으며, 멀티스케일 물질·시스템 연구소는 NRL 2.0 사업으로 향후 10년 동안 총 1,000억 원 규모의 연구를 추진하게 됐다”고 전했다.

또한 “올 2월 취임 이후 500억 원이 넘는 기부 약정을 확보했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동창들의 소중한 후원이 이어지고 있다”고 알리고 내년 이화 창립 1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계획도 밝혔다. 이 총장은 동창들의 헌신이 “오늘의 이화를 만든 힘”이라며,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이화를 지켜왔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1부는 최수현(기독 92) 동창의 “오늘의 만찬이 서로를 격려하고 이화의 정신을 새롭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는 애찬기도로 마무리됐다.

‘이화, 창대하리라’: 웃음 가득한 정겨운 만찬

이어진 2부 만찬은 미국 포틀랜드 지회장인 한나리(체육 92) 동창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걸그룹 투애니원의 〈내가 제일 잘 나가〉의 리듬에 맞춰 “이화, 제일 잘 나가!”라고 활기차게 외치며 무대에 오른 한 동창은 밝은 에너지와 웃음으로 이날 행사를 이끌었다.

만찬은 김은미 이화학당 이사장의 건배 제의로 시작했다. 지난 10월 28일(화) 학교법인 이화학당 제10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김 이사장은 “이사장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이화를 위해 봉사할 수 있게 돼 깊이 감사한다. 이화학당은 김활란 초대 이사장을 비롯한 선배들의 헌신으로 140여 년간 한국의 여성교육에서 독보적 성과를 이뤘다”고 강조하고, 더불어 전임 장명수 이사장의 헌신과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이날 건배사를 위해 ‘이화동창’으로 4행시를 준비해 온 김 이사장은 동창들의 선창에 맞춰 “이화! / 화려한 걸모습도 멋있지만 / 동글동글 동그란 마음은 더 멋져! 이화! / 창대하리라”라고 외치며 현장의 분위기를 한층 더 뜨겁게 달궜다.

만찬이 진행되는 동안 스크린에는 행운선물 번호가 차례로 소개됐다. 행운의 주인공들의 번호가 스크린에 뜰 때마다 좌중에는 축하의 웃음과 환호가 이어지는 가운데, 동창들은 함께 자리한 친구들과 추억을 나누며 풍성한 만찬 시간을 보냈다. 멀리 시카고에서 온 구자은(행정 95) 동창은 “미국에 살면서 이렇게 큰 학교 행사에 참여할 기회가 없었는데, 졸업 후 30년 만에 다시 이화와 연결되니 벅차고 뿌듯하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백인태 가수와 함께 한 ‘십일월 어느 멋진 날’

3부 ‘아름다운 음악회’는 뮤지컬 가수 백인태의 공연으로 화려하게 펼쳐졌다.

이날 무대에서 그는 이탈리아 명곡 〈일 몬도(Il Mondo)〉, 뮤지컬 넘버 〈지금 이 순간〉, 따뜻한 위로의 노랫말을 가진 가요 〈걱정말아요 그대〉, 겨울 감성이 담긴 〈겨울소리〉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곡들로 관객을 사로잡았다. 또한 〈시월의 어느 멋진 날에〉를 ‘십일월 어느 멋진 날에’로 개사해 선보이며, 관객과 함께 부르는 퍼포먼스로 큰 호응을 이끌어 냈다. 마지막 앵콜 무대로, 오페라 《투란도트》의 아리아 〈공주는 잠 못 이루고(Nessun

이화인의 밤 행사를 즐기고 동창들 간 우의를 다진 이화 동창들



Dorma)가 웅장하게 울려 퍼지자, 객석에서는 기립박수가 쏟아지며 공연 열기가 절정에 달했다.

4부는 마지막 행운선물 추첨과 증정 순서로, 사회자 한나리 동창의 진행 아래 즉석에서 익힌 '이화 댄스'로 경쾌하게 문을 열었다. 참석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이화'를 외치며 흥겨운 댄스 타임을 즐겼다. 한 동창은 "올해 후원 목표 1,400억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신나게 이화 댄스에 참여한 이향숙 총장님께 트로피를 드리겠다"며 작은 참기름병을 건네 웃음을 자아냈고, 이 총장은 이를 트로피처럼 높이 들어 보이며 화답해 다시 한 번 장내를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이어 김은미 이사장, 이향숙 총장, 이명경 총동창회장 등이 차례로 행운권을 추첨했다. 번호가 불릴 때마다 객석에서는 환호가 터졌고, 행운의 주인공이 된 동창들은 환한 미소로 무대에 올라 선물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모두 함께 "이화가 있음에 우리가 있네. 이화, 이화, 이화!"를 힘차게 외치고 한 해의 마무리와 건강한 새해를 기원하며 교가를 제창했다.

이날 총동창회에서는 조종남 전 총동창회장, 이경숙·김영주·남상택 총동창회 고문과, 모교에서는 김은미 이화학당 이사장, 이향숙 모교 총장을 비롯



참석자 전원에게 전달된 선물

해 장명수 전 이사장, 장상·김선옥 전 총장과 박성연 학사부총장, 박정수 연구·대외부총장, 유경하 의무부총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더욱 뜻깊게 했다.

행사에 참석한 동창 모두에게는 총동창회 수첩과 달력, 이화그린 토트백, 샘표, 동화약품, 서울식품, 아이소이, 한국마즈 등 푸짐한 선물꾸러미가 전달됐다.

따뜻한 공감과 유쾌함으로 빛났던 '이화인의 밤'은 아쉬움 속에 마무리됐다. 동창들은 깊은 교감 속에서 이화의 정신을 다시금 확인하며 작별 인사를 나눴다. 오늘의 여운이 모두의 내일에 포근한 빛이 되어주길 기대해 본다.

글·이미란(행정 89, 이화동창 편집위원)

백인태 가수의 축하공연에 이어 울동으로 신나게 몸을 풀어 흥겨운 시간을 가진 동창들. 행사 중간중간 이어진 행운선물에 환호성이 그치지 않았다





대학원관 중강당에서 열린 '2025 이화 동창 및 기부자 초청 음악회'

2025 이화 동창 및 기부자 초청 음악회

감사의 마음, 다시 나눔으로

2025년 12월 9일(화) 오후 1시 총동창회와 모교가 공동 주최한 '2025 이화 동창 및 기부자 초청 음악회'가 〈감사의 마음, 다시 나눔으로〉라는 주제로 모교 대학원관 중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모교를 후원해 온 동창과 기부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특별한 바이올린 콘서트로 진행됐다. 총동창회에서는 김순영·조종남 전 총동창회장, 이경숙 총동창회 고문, 이명경 총동창회장을 비롯해 한은주·곽은아 부회장 및 총동창회 임원진, 총동창회 후원이사 등이, 모교에서는 이향숙 총장과 장상 전 총장, 박정수·박성연 부총장, 최윤정 대외협력처장, 이화아너스클럽 회원, 장학위원회 이사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

박은영 대외협력처 부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음악회에서 이향숙 총장과 이명경 총동창회장은 차례로 무대에 올라 참석자들에게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전했다. 먼저 이향숙 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중강당은 1935년 신촌 교사로 이전할 당시 거금을 기부한 에머슨 부인의 뜻을 기려 에머슨 홀이라고 이름 지어진 곳”이라며, “예배와 음악회, 졸업식이 이어져 온 역사적이고 상징적인 장소에서 음악회를 열게 되어 더욱 뜻깊다”고 말했다. 이어 기부와 나눔으로 이어져 온 이화의 역사를 되짚으며, 모교의 발전 성과를 알리고, 140주년을 앞두고 모교의 중장기 비전과 주요 과제들을 공유하며 “나눔과 섬김의 이화 정신으로 다음 세대에게 더 나은 이화를



총동창회와 모교 발전을 위해 나눔과 섬김을 다한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 초청 음악회



아름답고 힘찬 선율을 들려준 바이올리니스트 김지연과 반주를 맡은 쿠프카 교수

물려줄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라며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이명경 총동창회장은 “139년 전 한 명의 학생으로 시작한 이화가 세계 속의 ‘이화’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한결같은 사랑으로 마음 모아 기도하고 나눔과 섬김으로 함께해 준 덕분이다”라고 감사를 표하며, 140주년을 향해 나아가는 이화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해 주기를 당부했다. 또한 이날 무대를 빛낸 연주자들과 참석자에게 감사를 전하며, 미리 전하는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로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2부에서는 세계적인 명성을 지닌 바이올리니스트 김지연(세종솔로이즈 소속)과 피아니스트 피오트르 쿠프카(모교 건반악기과) 교수가 무대에 올라 비탈리의 〈사콘느〉를 시작으로, 포레의 〈바이올린 소나타 1번〉, 에이미 비치의 〈로망스〉, 라벨의 〈치간느〉를 선사했는데, 로맨틱한 선율이 고즈넉한 중강당 공간을 흐르며 깊은 울림을 주었다. 앙코르로

연주한 영화 《사랑의 은하수》 주제곡 무대가 끝난 뒤 바이올리니스트 김지연이 직접 교가를 연주하자 놀라움과 감탄 속에 참석자들은 그 선율에 맞춰 함께 노래하며 감사와 나눔의 의미를 되새겼다.

총동창회에서 준비한 ‘가족 트레이’를 선물로 받은 참석자들은 대학원관 로비에 마련된 리셉션에서 다과를 나누며 음악회의 여운을 이어갔다. 총동창회에서 준비한 이번 리셉션에서 케이터링을 담당한 ‘The Aesthetic Movement Kitchen((구)일상의 즐거움)’ 대표 이귀연(의직 85) 동창은 농장에서 직접 기른 채소와 핸드메이드로 만든 신선하고 정성 어린 음식을 내놓아 큰 호평을 받았다.

총동창회와 모교는 창립 140주년을 앞두고 동창 및 기부자와의 소통을 확대하고, 모교 발전을 위한 기부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하며, 이화의 지속적인 성장과 미래 경쟁력을 함께 구축해 갈 계획이다.

글·최지영(사학 89, 홍보부장)

제11회 이화가족어린이그림그리기대회

다시 찾은 이화동산, 가족사랑이 영글어 간 하루



총동창회가 주최하는 '이화가족어린이그림그리기대회(이하 그림대회)'가 올해로 11회째를 맞아, 2025년 9월 27일(토), 이화의 가을 교정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화 동창과 모교 교직원의 자녀·유치부(4~6세)·초등부(1~3학년) 및 가족들 700여 명이 함께한 이번 그림대회는 '이화가족사랑'이라는 모토 아래, 모든 세대가 어울려 뜻깊은 추억을 공유하는 특별한 시간이 되었다. 특히, 그림대회 행사에 대한 젊은 동창들의 열띤 관심과 참여는 올해도 여전히 뜨거웠다. 오전 10시 무렵 시작된 그림대회는 높고 투명한 가을 하늘 아래 아이들의 환한 웃음소리가 캠퍼스 곳곳에 울려 퍼지며 가족 사랑과 흥겨운 축제 분위기로 점점 영글어 갔다.

동창 간 연대 강화와 가족들에게 뜻깊은 추억 선사

오랜 기다림마저 즐거운 체험 코너, 풍선 아트와 페이스 페인팅 부스의 어린이들



대강당 앞 이화동산과 캠퍼스에는 이른 아침부터 알록달록한 그림 도구와 돗자리를 든 가족들로 북적였다. 이번 그림대회의 주제는 '나의 하루'. 아이들은 초록 잔디밭에 용기종기 모여 앉아, 세월을 품은 고풍스러운 석조건물들과 풍성한 계절의 색을 더한 조경이 선사하는 멋진 가을 풍경을 배경 삼아 자신만의 감각으로 '나의 하루'를 화폭에 담아냈다.

올해 처음 참가한 김민영(국문 10)·최 리(국문 13) 동창은 남다른 기대감을 드러냈다. 김민영 동창은 "참가했던 선배들이 다들 너무 좋았다고 이야기해서 작년부터 참여하고 싶었는데 아이들이 어려 기회를 잡지 못했어요. 올해는 아예 미리 전화해서 날짜를 확인해 두고 신청했는데, 기대 이상으로 좋았습니다"라고 말했다. 최 리 동창도 "예전에 걸었던 교정을 아이와 남편과 함께 다시 걷고 있으니 감회가 새롭고 뿌듯해요. 남편은 외국 대학 출신이라 신촌, 특히 '이화여대'에 대해 늘 궁금해했는데, 교정을 보더니 정말 아름답다고 하더라고요. 모교를 직접 보여줄 수 있어 기분이 남달랐습니다"라고 웃었다.



온라인 모임으로 친해진 뒤 서로 동창임을 알게 되어 꾸준히 만남을 이어오고 있는 노현영(행정 06)·정재연(무용 10)·이정선(서양 12) 동창도 올해 다시 함께 참여했다. 노현영 동창은 “아름다운 교정에서

후배들과 함께, 그리고 어느새 부모가 되어 아이들과 참여하니 감회가 더 깊어요. 가족 간의 추억이 차곡차곡 쌓여 정말 행복합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처럼 그림대회는 세대와 전공, 학번을 뛰어넘어 동창 간 연대를 강화하고, 가족에게는 잊지 못할 하루를 선물하는 ‘이화 가족의 축제’로 자리 잡았다.



상상력과 오감을 자극하는 특별한 놀이터 이화의 교정에서 어린이들은 자신만의 감각으로 '나의 하루'를 표현했다

뛰놀고 느끼는 하루, 특별한 소통의 장

총동창회는 대회 참가 어린이들을 위해 정성스럽게 준비한 런치박스와 간식을 제공했으며, 포토존·페이스 페인팅·풍선 아트 등 다양한 체험 코너도 마련했다. 특히 긴 대기줄을 마다하지 않고 얼굴과 손등에 아기자기한 페이스 페인팅을 장식하고, 꽃다발 모양, 동물 모양 풍선을 받아든 아이들은 이화동산 곳곳을 활기차게 누볐다.

“엄마랑 아빠랑 이곳에 놀러 오면 기분이 좋아요. 오래된 성당같이 옛날 건물이 많아서 멋져요”라는 김민성(초등부) 어린이의 소감처럼, 아이들에게 이화 교정은 상상력과 오감을 자극하는 특별한 놀이터였다. 엄마 윤수미(디대원 16) 동창은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오랜만에 모교에 와서 기분도 새로운데요. 무엇보다 좋은 건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다는 점”이라고 귀띔했다. 이런 날 집에 있었다면 아이들의 재잘거림이 귀찮게 느껴졌겠지만, 탁 트인 교정에서라면 그런 재잘거림도 기분 좋은 소리로 들린단다.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참가한 이윤소(과교 10)·서민정(중문 07) 동창 가족은 남



편들이 사법연수원 동기로, 두 남편 모두 이화 동창을 아내로 맞아 가족을 이루면서 가족 간의 교류도 더욱 끈끈해졌다. 파라솔과 접이의자, 캠핑 테이블까지 챙겨온 이유를 묻자, 서민정 동창의 남편은 “작년에 아무 준비 없이 왔다가 아쉬움이 남아서 올해는 제대로 야외에서 놀 준비를 했습니다”라며 웃었다. 정다연(유치부) 어린이는 “엄마 학교 오니까 너무 좋아요!”라고 밝게 웃었고, 엄마 이윤소 동창은 “남편들 학교에는 이런 가족 참여 행사가 거의 없는데, 모교에는 가족 모두 함께할 수 있는 좋은 행사가 있어 참 뿌듯하고 자부심도 느낍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제11회 이화 가족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에 참여한 동창과 그 가족들은 가을 햇살 아래 모처럼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박동현·박서현(초등부) 쌍둥이 남매 손주들의 대회 참가 신청부터 현장 동행까지 도맡은 차도련(약학 74) 동창은 “손녀는 선뜻 그림대회에 오겠다고 했는데, 손자는 오늘이 축구하러 가는 날이라며 고민하더라고요. 캠퍼스를 둘러보며 메리 스크랜튼 선교사 동상에 대해 알려줬더니 축구하러 갔으면 후회할 뻔했다며 내년에 또 오겠대요”라며 흐뭇해한다. 이어 “상을 받으면 물론 좋겠지만, 아파트에서만 살던 아이들이 이렇게 넓고 아름다운 교정에서 마음껏 뛰놀며 하루를 보냈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장은주(외국어교육특수대학원 13) 동창은 올해가 참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친정부모님에 남편까지 다섯 식구가 함께했다. 이제 막 도화지 앞에 앉아 뭘 그리면 좋을지 생각에 빠진 염가은(초등부) 어린이는 “와보니 기대했던 것보다 더 신나고 설렌다”고 소감을 표현했다. 장은주 동창은 “모교 교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기회가 흔치 않은데, 이런 행사를 마련해줘서 정말 감사해요”라고 소감을 전했다.

세 살 막내손녀딸을 데리고 잠시 산책 중인 딸 내외를 대신해 강지은(유치부), 강지윤(초등부) 두 손녀와 함께 돛자리에 앉아 있던 외할머니 이은경(동양 87) 동창은 “손녀들이 집에서는 잘 안 그리는데 여기 오니 대회라는 분위기를 느꼈는지 집중해서 그리더라고요. 햇살 아래 모처럼 온 가족이 함께 나들이하니 더없이 좋습니다”라고 흐뭇한 마음을 드러냈다.



이명경 총동창회장이 시상식에 앞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다(위)/심사위원들은 이번 그림대회 심사 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웠다고 전했다(아래)

도전정신과 소중한 기억을 남기는 시간

오후 2시, 참가 어린이 모두가 오늘의 주인공으로 무대에 오르는 시상식이 김경령(수학 84) 총동창회 총무의 사회로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명경 총동창회장은 시상에 앞서 동창들에게 따뜻하면서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오늘 이 자리에 발걸음해 주신 모든 동창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오늘 아이들이 보고 느낀 ‘나의 하루’를 도화지에 솔직하게 담아낸 과정 자체를 마음껏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한 장의 그림이 아이들의 감성과 자신감을 키우는 소중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어 “오늘의 경험이 우리 어린이들이 앞으로 더 주도적이고 독립적으로, 그리고 공동체의 선을 실천하는 어른으로 성장해 가는 여정에서 의미 있는 ‘징검다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올해 그림대회 심사위원은 강승주(조소 87) 전 조형대학 동창회장, 이승은(동양 89) 조형대학 동창회장, 안혜리(서양 91) 서양화과 동창회장이 맡았다. 심사위원장 강승주 동창은 “해를 거듭할수록 어린이들의 표현력과 색채 감각이 눈에 띄게 성장해 어느 작품 하나 가볍게 넘길 수 없을 만큼 심사가 어려웠습니다”라며 “이 대회의 취지는 어린이들에게 내재된 상상력과 창조성을 발견하고 복돋우며 스스로의 생각을 두려움 없이 펼쳐 보이는 도전정신을 기르는 데 있습니다. 이 대회를 통해 쌓인 소중한 기억들이 어린이들의 성장에 큰 힘이 되리라 믿습니다”라고 총평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유치부·초등부 각 25명에게 ‘표현력이 뛰어난 상’, ‘창의성이 돋보이는 상’, ‘성실성이 묻어 있는 상’, ‘즐거움이 가득한 상’, ‘공간감이 좋은 상’ 등이 수여됐으며, ‘행복 가득 상’을 수상한 어린이들까지 모두에게 상장과 부상(문구 세트와 전자노트 등)이 전달됐다. 무대 위에서 대기하고 있던 어린이들은 자신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놀라우면서도 뿌듯한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저마다 상장과 꾸집한 상품을 받아들고 가족, 친구들과 함께 가을 소풍을 즐긴 이화가족들의 얼굴에는 깊은 만족감과 행복감이 가득했다. 이화가족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는 다음 세대에까지 이화의 따뜻한 사랑과 공동체 정신을 전하는 소중한 문화행사로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다.

한편, 이번 그림대회를 위해 (주)크라운 해태제과에서 스낵과 과자 세트, 서울식품공업(주)에서 쿠키 세트, 이경희(약학 88) 총동창회 문화부장이 뽀로로 비타민 젤리, 한국마즈(유)에서 스키티즈 젤리를 후원했다.

글·정진숙(행정 89, 이화동창 편집위원)



시상식 무대에 오른 유치부 어린이들. 시상식에서는 참여한 모든 어린이들에게 상장과 부상이 수여됐다



부상으로 전달된 전자노트 및 문구세트와 도시락으로 나눠준 런치박스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운 마음을 채워가야



이명경 총동창회장, 이항숙 총장,
안선희 교목실장(위부터)

2025년 12월 4일(목) 오후 3시, 이화가족 성탄예배가 열린 대강당 1,500여 석의 자리. 작년까지 성탄예배는 학기 중 채플 출석을 다 채우지 못한 재학생들의 채플 보충 시간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았다. 평소에 아침 10시 채플이 열리는 시간이 되면 대강당의 문이 닫혔고, 분주히 자리를 잡은 학생들은 채플이 시작되면 휴대전화를 보거나 잠을 자기도 해서 안타깝기만 했다. 그런데 올해 성탄예배는 재학생 외에도 많은 이화 가족이 자발적으로 참석하여 2025년의 첫 성탄 예배를 여는 시간이 되어 무척 기뻐다.

총동창회와 모교에서 이화의 가족을 다 초대한 것이다. 교직원, 은퇴 교수, 이화 동창뿐만 아니라 이대부속고등학교, 이화유치원, 학교법인 이화학당의 장애인표준사업장 이수매니지먼트의 직원과 보호자 등 이화의 울타리에 있는 가족들이 손에 손잡고 대강당에 모여들었다. 선교부는 좀 더 많은 사람을 초대하기 위해 처음으로 초대장을 인쇄해서 홍보했다. 그 덕분인지 동창과 선교사들도 많이 자리에 참석하였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로 좀 더 많은 사람이 오지 못한 아쉬움은 있었지만, 늘 고요하게 진행되는 채플 예배의 분위기가 평소보다 떠들썩해진 기분이었다.

김희성 교수의 오르간 전주에 이어, 이대 남성교수중창단 교수들이 목

각종 축하공연을 통해 성탄의 기쁨을 함께했다
이화의 울타리에 있는 많은 이화가족이 참석한 성탄예배

자의 심정으로 <고요한 밤>을 찬송하고, 교수(한중수 경영대 교수), 직원(이지연 호크마 교양대학 행정실), 학생(Yerezhpova Indira, 국문과 24학번), 동창 선교사(박재연, 생명 90, 마다가스카르)의 '이화 성탄 기도'에 이어 정자영(성악 93) 교수의 선창에 따라 다 함께 "기뻐하라, 임마누엘, 곧 오시리라 임마누엘"을 화답하였다. 사도행전 12:20-23, 빌립보서 2:5-8의 말씀을 이명경(무용 77) 총동창회장의 낭독으로 들을 수 있었고, 음대합창단의 <오 거룩한 밤> 찬양 후, 안선희(기독 88) 교목실장의 '비움의 절기'라는 말씀을 들었다. 하나님의 자기 비움이 예수님의 등장으로 이어진다는 말씀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운 마음을 채우라'는 내용의 말씀이었다. 이어진 '스크랜튼 선교사의 열매' 영상은 늘 감동을 주었고, 조선영(영문 74) 선교부장의 기도가 절실하게 와 닿았다.

이향숙 총장은 성탄 인사를 통해 "성탄의 기쁨을 세상을 향해 나누라"는 주님의 부르심, 깨어서 기도하자는 내용의 메시지를 나누어 주었다. 음대합창단의 <어린 아기 예수> 찬양은 타악기의 선율이 경쾌한 리듬을 올려주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파송 찬송으로 오실 아기 예수님을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날 이화 이슬랭에서 오미자차와 커피를, 총동창회에서 성탄 쿠키를 나누어 주어서 마음이 풍성했으며, 모든 헌금은 이화 동창 선교사에게 보내지는 귀한 사역으로 이어졌다. 첫눈이 내리는 저녁은 2025년 첫 성탄예배의 축복의 선물이었다.

글·안영주(유교 88)





2025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워싱턴 D.C. 지회

우리 안에 다양한 모습이 하나되어 꽃처럼 피어나라 이화!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가 2025년 10월 23일(목)부터 10월 27일(일)까지 'Go Together, Blossom Forever!'라는 슬로건 아래 미국 워싱턴 D.C.(이하 워싱턴)에서 3박 4일 일정으로 열렸다.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는 북미주(미국과 캐나다)의 이화 동창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최대 규모의 연례행사로, 모교와 총동창회가 공식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번 총회에는 행사를 주관한 북미주 지회연합회 회장이자 워싱턴 지회장 이지은(불문 96) 동창과 총회 준비위원장 최미나(관현 90) 동창을 비롯해 북미주 30여 개 지회에서 동창과 내빈 등 5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총동창회에서는 이명경(무용 77) 총동창회장과 임원단, 모교에서는 이향숙(수학 86) 총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참석하여 연대와 협력을 강화했다. 이밖에 매리 앤 스웬슨 이화국제재단 이사장과 재단 관계자, 강경화 주미대사, 토마스 허버드 전 주한미국대사, 리처드 몰리스 전 미국 국방부 차관보, 강임산 주미대한제국 공사관 관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지회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3박 4일간의 행사 시작

10월 24일(목) 오후 6시 '지회장 간담회'가 열렸다. 지회장들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신규 회원의 졸업 증명 문제와 젊은 동창의 유입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북미주 지회연합회의 통합과 연대의 노력에 대해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이 자리에는 이명경 총동창회장과, 한은주(특교 79)·곽은아(한음 85) 부회장, 김정령(수학 84) 총무, 이수은(한음 02) 사업부장, 최지영(사학 89) 홍보부장이 참석했고, 애틀랜타 차희숙(체육 77)·볼티모어 금영진(의직 80)·디트로이트 박은하(공교 92)·뉴욕 김영신(독문 88)·필라델피아 이교연(영교 70)·포틀랜드 한나리(체육 92)·세인트루이스 최혜영(생미 86)·북가주 이영완(정외 81)·시애틀 이재경(수교 80, 전 지회장)·남가주 조혜진(장미 89)·워싱턴 이지은(불문 96)·토론토 조혜라(영문 96)·일리노이 서석영(정외 94) 지회장 등 19명이 참석했다.

이어 오후 8시부터 '북미주 지회연합회 이사회'가 32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영완 이사장의 사회로 열

렸다. 북미주 지회연합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토론이 있었고, 이날 상정된 안건은 다음날 총회에서 인준되었다.

10월 24일(금) 오전 8시 30분부터 열린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에는 70여 명의 회원이 참석했다. 전 회의록 낭독·인준 후 이어진 2024년도 '결산보고'에서 이영완 이사장은 '이화 웨스트 캠퍼스 건립 기금'으로 3만 7,000달러를 후원했다고 알렸다. 전날 이사회 결의 사항으로, 북미주 지회연합회 이사회 오혜경(영문 72) 고문의 퇴임 및 제갈숙경(관현 79) 신임 고문 선출, 가칭 '북동'대책위원회' 설립과 이를 위한 '설립 준비 위원회' 구성안을 승인했으며 이영완 이사장을 설립위원장으로 인준했다.

다음으로 김정진(의학 72) 이화국제재단 부이사장의 사업 보고가 이어졌다. 국제재단은 170여 개의 개인 및 북미주 지회별 장학기금이 있어, 지금까지 누적 2,100만 달러 이상을 모교에 지원해 왔으며, 2025 회계연도에는 모교에 190만여 달러를 기금으로 전달했다고 알렸다.

두 차례의 만찬을 통해 결속 다져

북미주 지회연합회 동창들은 24일(금)과 25일(토) 이틀간 두 차례의 만찬을 통해 결속을 다지며 유대감을 돈독히 했다. 10월 24일(금) 오후 6시부터 열린 '총장님과의 만찬'은 이명경 총동창회장과 임원들, 모교 이향숙 총장과 최윤정(영문 95) 대외협력처장, 스웬슨 이화국제재단 이사장과 재단 관계자, 북미

주 각지에서 온 동창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지은 회장은 "이화인으로서 자긍심과 따뜻한 우정을 확인하고, 앞으로의 도약을 위해 서로 격려하며 즐기는 축제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환영했으며, 이향숙 총장은 "Go Together, Blossom Forever 슬로건처럼 북미주에서 이화를 꽃 피우고 있는 동창들을 직접 보게 되어 감격스럽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명경 총동창회장은 축사에서 "풍성한 잔치 자리를 준비하느라 애써준 임원들과, 먼 길을 마다않고 달려온 동창 선후배들을 환영하고 축복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이어 '우분트(Ubunt)'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이화가 있기에 우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2부 만찬에는 '이화 앙상블 D.C.'(플루트 최지영(관현 00)·피아노 주미향(피아노 00)·첼로 이지원(관현 19) 동창)의 멋진 축주가 있었고, 이화 그린벨벳 스카프를 맨 북미주합창단(지휘 오혜리(피아노 05) 동창) 30여 명이 무대에 올라 〈You Raise Me Up〉을 선사해 참석자들이 큰 박수를 보내 응원했다. 합창단원들은 각 지회에서 지원해 주 2회 줌으로 꾸준히 연습한 실력을 뽐냈으며, 다음날 케네디센터 공연에도 올랐다. 마지막 곡으로는 '북미주합창단'과 '이화 앙상블 D.C.', '이대 관현악 및 국악팀'이 모두 함께 〈이화 판타지〉(안현정 곡(모교 음대 교수)를 선사했는데, 판소리와 합창, 서양의 클래식과 한국의 전통 리듬이 어우러지면서 큰 감동을 주었다.

만찬의 절정인 3부 '탤런트 쇼'는 15년째 진행을

이명경 총동창회장

이향숙 총장

이영완 이사장

이지은 회장

스웬슨 국제재단 이사장





동창들은 지회장 간담회, 이사회, 총회 등과 함께 두 차례 열린 만찬회에서 장기자랑과 흥을 뽐내며 교류를 나누었고, 워싱턴 주요 명소를 돌아보았다

말고 있는 한나리(체육 92) 동창의 유쾌한 사회로 진행됐다. 텔런트 쇼의 첫 번째 주자로 남가주 지회가 〈아파트〉 노래에 맞춰 경쾌한 댄스를 선보이며 호응을 끌어냈다. 이어 애틀랜타 지회에서는 〈이화 찬가〉를 박수와 발 구름 동작으로 구성한 아카펠라 무대로 감동을 선사했다. 마지막으로 뉴욕 지회는 이화인으로 살아온 삶의 다양한 모습들을 유니버스 무대로 풀어냈다. ‘80이 넘어 배운 크로마하프-오빠 생각’, ‘아빠 생각’, ‘이화인, 나’, ‘아파트로 초대’ 등의 무대를 선보여 큰 박수를 받았다.

이화와 워싱턴의 특별한 인연, 역사적 가치 되새겨

다음날인 10월 25일(토) 오후 7시에 열린 ‘북미주 지회연합회 대만찬’에는 270여 명이 참석했다. 학과별로 테이블을 배치해 같은 전공 선배배들이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며 만찬장은 시작부터 화기에 애한 분위기로 가득 찼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한 리처드 톨리스 전 국방부 차관보와 동창의 자녀·손주 세대로 구성된 ‘차세대 리더 테이블’이 마련돼, 미래 이화 공동체의 참여라는 점에서도 의미를 더했다. 이명경 총동창회장은 김옥길 선생의 ‘오래 가꾼 나무일수록 꽃이 핀다’는 말씀을 전하며, 풍성한

결실에 감사드렸다. 이어 “서로가 위로하고 지지하고 격려하면서 축복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더욱 감사하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날 스웬스 이화국제재단 이사장은 이향숙 모교 총장에게 80만 달러의 기금을 전달했다.

이어 특별 연설로 강임산 주미대한제국 공사관 관장(국외소재문화재단 미국사무소 소장)이 대한제국공사관의 설립과 폐쇄, 복원의 과정과 역사적 의미를 강의했다.

마지막으로 차기 개최지인 애틀랜타 지회장 차희숙 동창이 2026년 10월 29일(목)~11월 1일(일)에 열릴 차기 총회에 많이 참석할 것을 당부했고, 이지는 회장이 무대에 올라 총회기를 인계하자 참석자들은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였다. 이어 이영완 이사장의 식사 기도와 워싱턴 지회 지영자(체육 72) 이사장의 건배에 이어 만찬이 시작되었고, 이어 이화를 연호하며 화합과 우의를 다지는 3부 ‘우리 모두 함께’ 순서가 잇따랐다. 한나리 동창의 지도로 라인댄스, 베스트 드레서 선발, 댄스 경연, 추억의 청백팀 운동회, ‘토끼와 거북이 판소리 공연’ 등이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며 시끌벅적 축제의 장이 펼쳐졌다. 한편, 이번 총회에 처음 참가했다는 90세 김소옥(교육

60)·88세 박천자(생명 60) 동창은 김정진 동창의 인도로 플로리다에서 함께 참석해 환영의 박수를 받았다. 참석한 동창들은 다 함께 하나의 큰 원을 만들어 손에 손을 잡고 “덕분에 이 자리가 빛났다”고 서로를 격려하고, “우리는 이화!” “우리는 하나!”를 외치며 만찬을 마쳤다.

케네디 센터에서 열린 음대 100주년 기념음악회

이 기간 워싱턴 지회에서 마련한 관광 프로그램과 특강, 음악회 등도 다채롭게 준비됐다. 2025년 10월 24일(금)에는 80여 명의 동창이 두 대의 관광버스로 주미대한제국공사관을 방문했고, 25일(토)에는 오전에 워싱턴의 미국 국회의사당과 링컨기념관, 한국전 참전 용사 기념관, 워싱턴 기념탑 등 주요 명소를 둘러본 후 음악회가 열리는 케네디 센터로 이동해 공연에 참석했다.

2025년 10월 25일(토) 오후 2시, 만찬에 앞서 케네디 센터 테라스 극장에서 이화여대 음악대학 창립 100주년 음악회 ‘EWAH GIVING THANKS’가 열렸다. 랭커스터 감리교회와 뉴욕 카네기홀 공연에 이어 마지막을 장식하는 공연으로, 모교 음악대학이 주최하고 워싱턴 지회 동창회가 주관했다. 이 자리에는 강경화 주미대사와 토마스 허버드 전 주한미국대사, 동창과 가족 등 450여 명의 관객이 참석해 객석을 가득 채웠다. 객은아 모교 음대 학장은 이해경(피아노 50, 95세) 동창에게 ‘자랑스러운 음대인’ 상을 수여했

고, 이해경 동창은 “학교가 이렇게 크게 발전해서 기쁘고 자랑스럽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해경 동창은 이화학당 명칭을 준 고종의 손녀이자 조선의 마지막 공주로, 피아노과 2회 졸업생이다. 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에서 먼 걸음을 했고, 전날 총장 주최 만찬에도 참석했다.

공연은 〈이화 랩소디〉(안현정 곡)로 시작해, 피아노 앙상블 ‘이화로움’, ‘이화합창단’, 국악 ‘소리앙상블’이 차례로 무대에 올랐다. 이어 배일환 교수가 이끄는 ‘이화첼리’가 무용과 함께한 〈투 탕고스〉로 큰 호응을 얻었다. 소프라노 박나애(성악 10) 동창과 테너 박종현이 〈그대 있음에〉(김순애 곡)를 ‘이화 있음에’로 개사해 열창했고, 합창과 판소리가 어우러진 〈이화 판타지〉로 마무리됐다. 참석자들은 박희원(한음 11) 동창의 판소리에 맞춰 교가를 함께 부르며 이화인으로서의 긍지를 다시금 확인했다.

한편, 26일(일) 오전 8시 30분부터 최미나 동창의 인도로 열린 ‘주일예배’에서는 특송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소리 박희원, 해금 강예원(한음 05), 반주 박우빈(피아노 03))과 말씀 ‘예수를 닮은 사람’(김선희(기독 92) 감리사)을 통해 이화를 만든 선교사들의 희생과 사랑을 되새겼다. 이어 ‘총장과의 대화’를 마지막으로 이번 총회를 마쳤다. 참석자들은 ‘북미주 지회연합회’의 정통성을 재확인하고 통합의 노력을 다짐하면서 일정을 마무리했다.

글·최지영(사학 89, 총동창회 홍보부장)

케네디 센터에서 열린 음대 창립 100주년 음악회(사진 왼쪽)와 ‘자랑스러운 음대인’ 상을 받은 이해경 동창



넘치는 끼와 열정, 함께여서 더 빛나는 하모니

조형예술대 동창 합창단을 향한 깊은 애정으로 헌신해 온 9명의 임원이, 합창단의 15년 역사를 들려주기 위해 이승은(동양 89) 조형예술대 동창회장의 집에 모였다. 예술가 특유의 개성과 끼를 지닌 동창들이 어떻게 아름



2023 합창제에 참석한 조형대 동창합창단 단체 사진

다운 하모니를 이루며 성장해 왔는지, 해마다 기대를 모으는 독창적인 퍼포먼스의 비결은 무엇인지, 합창단 활동이 개인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왔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 화기애애하면서도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다.

조형예술대 동창 합창단의 탄생과 성장

7년간 장식미술과 동창회장을 맡았던 노 실(장미 79, 합창단 설립자) 동창은 조형예술대 동창 합창단의 창단 배경을 이렇게 회상한다. “2009년 동창의 날 합창대회에서 여러 단과대가 무대에 올랐는데 조형예술대만 나오지 않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있을 줄 알고 계속 기다렸죠. 동기 김혜연(장미 79, 명예교수) 교수에게 왜 우리는 안 나오냐고 물었더니, 합창단이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가 한번 만들어 봐라’고 권하더라고요. 무슨 패기였

는지, 교회 성가대 40년 경력 하나만 믿고 곧바로 하겠다고 했어요.” 이렇게 결성된 조형예술대 동창 합창단은 2010년 5월 동창회 날 행사 때 13명 중창팀을 꾸려 첫 무대에 올랐다. 노 실 동창은 “당시 형편상 청바지와 흰 셔

츠에 코르사주 하나를 달고 무대에 올랐는데 오히려 개성이 잘 드러나 다음 행사부터 따라하는 팀이 생겼다”며 웃음을 지었다. 서양화와 동창회장을 지낸 차명임(서양 82, 합창단장) 동창은 “2016년 총동창회 합창제 참가 규정이 25명 이상 합창단으로 변경되면서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됐다”며 “그 시기에 조형예술대 동창회 임원들이 대거 합류했고, 김혜연 교수의 적극적인 협조로 반주자와 지휘자를 초빙하면서 합창단 운영이 체계를 갖추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 후 합창단은 끼와 에너지를 살린 독창적 퍼포먼스로 큰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특히, 2018년에는 화려한 초록색과 실버색 반짝이 의상으로 출연, 신나는 율동을 곁들여 〈댄싱퀸〉을 불러 큰 박수갈채를 받았다. 해를 거듭할수록 공연장을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넣는다는 입소문에 2019년에는 총동창회 송년행사 ‘이화인의 밤’ 게스트로 초

청되어 화려한 의상과 현란한 율동으로 무대를 압도하며 <씨니>와 <댄싱퀸>을 불러 장내를 축제 분위기로 만들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3년간 중단됐던 합창 경연이 재개된 2023년에는 초록색 학위복 차림의 붉은색 탱고 의상 변신 퍼포먼스로, 2024년에는 독특한 전통의상에 갓을 쓰고 등장한 판소리 개사(<복 내려온다>) 무대로 관객을 단숨에 사로잡으며 조형대 합창단만의 명성을 굳히는 계기가 됐다.

매해 기대를 모으는 독창적 인 퍼포먼스의 비결

전영선(섬에 88, 부단장) 동창은 “동대문시장에서 산 원단만 건네주면 각자 알아서 의상을 만들어 오고, 퍼포

먼스에 필요한 장신구도 손수 준비한다”며 “이는 단순히 손재주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 바탕에 뜨거운 열정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합창단이 아니었다면 7개 학과(8개 전공)가 이렇게 한마음으로 뭉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처음 조형예술대 동창 합창단의 선교부장으로 참여하게 된 신미선(서양 85, 음악부감독) 동창은 “개성이 뚜렷한 사람들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이유는, 이화의 기독교적 정체성 덕분”이라며 “이화는 서로 양보하고 들어주며 화합을 이루는 문화가 기반에 자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마다 넘치는 끼와 퍼포먼스로 합창제에서 웃음과 감동을 선사한 조형대 동창 합창단 2018년부터 2024년까지 모습

정두옥(서양 87, 음악부감독) 동창도 “나이 들어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청춘합창단’을 보며 느꼈던 감동을 우리 합창단을 통해서도 느꼈다”며 “관객이 재미를 느낄 요소를 고민하는 가운데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결국 그들이 말하는 독창적인 퍼포먼스의 원천은 특별한 비결이 아니라 뜻을 모아 한마음으로 움직이는 화합과 소통, 그리고 모교를 향한 깊은 애정이 만들어낸 결실인 셈이다.

합창단 활동을 통해 얻는 보람과 변화

2023년 ‘이화인의 밤’에서 남자 댄서와 현란한 탱고를 선보인 강선희(조소 87,

부단장) 동창은 “무대에서 서기 위해 20회 개인 레슨까지 받았다”며 “자비를 부담하며 함께하는 이유는 선후배 간 서로의 에너지를 주고받는 합창단 활동이 내 삶에서 의미와 가치가 크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그날의 파격적인 탱고 공연은 남편이 모르는 사실”이라고 귀띔해 좌중의 웃음을 자아냈다. 이승은 동창은 “저마다 색이 튀지 않도록 조화롭게 서로에게 스며들어 공연을 완성하는 과정이 너무 감동적이고, 합창단을 계속하는 첫 번째 매력인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신미선 동창도 합창단 활동을 통해 “조형예술대 각 과마다 고

유의 빛깔이 있고, 다양한 선
후배들에게서 배우고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보다
감사하다”고 밝혔다. 올
한 해 합창단의 의미가 남다
르게 다가왔다는 강승주(조
소87, 전 조형예술대 동창회장)
동창은 “10년간 헌신과
봉사로 합창단 활성화에 큰
공을 세운 친구가 항암치료
중인데 우리가 그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며 “결
으로는 신나는 퍼포먼스로
가볍게 보이지만 내심은 그
무엇보다 진실하고 거룩한
모임이고, 앞으로 우리 합창

단이 영적으로 더욱 굳건해져서 내년에는 그녀의
건강 회복을 소망하며 합창을 준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합창단 단톡방 회원으
로만 머물러 있다가 2024년에야 본격적으로 합창
연습 지도에 나선 실용음악 전공자 김은경(서양
82, 음악감독) 동창은 합창단의 첫인상에 대해 “생
각하던 합창단이 아니었다. 상상도 못할 갖가지 퍼
포먼스에 너무 충격을 받았다”(일동 웃음)고 털어
놨다. 이어 “하지만 모두가 바쁜 중에도 열정을 쏟
아보는 모습에 존경심이 생겼고, 전시회를 찾아
서로 응원하는 모습에서도 큰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다.

다시 시작되는, 이화의 노래

인터뷰가 마무리될 즈음 강승주 동창은 “50주
년·30주년 동창들이 합창제를 제대로 즐기려면 스
피커 등 음향시설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고,



2019 이화인의 밤 초청 무대를 장식한 조형대 동창합창단



자리에 함께한 9명의 조형예술대 동창 합창단 임원들. 뒷
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이승은, 김은경, 정두옥, 강승
주, 전영선, 강선희, 노 실, 차명임, 신미선 동창

함께한 동창들도 이에 공감
했다. 또한 합창제 인기 팀
을 ‘이화인의 밤’ 게스트로
초청하는 것을 공식화하자
는 의견도 제시됐다.

앞으로의 계획을 묻는 질
문에 단장 차명임 동창은 “올
해, 음악 전공자에 견줄 만한
반주 능력과 노래 실력을 가
진 동창들의 영입과 정기 연
습 등으로 체계를 갖춰 조직
이 보강됐다”며 “앞으로는
기량과 실력을 더욱 갈고 닦
아 기대에 부응하는 합창단
이 되고자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이승은 동창도

“12월 2~13일에 열리는 ‘12월은, 동·동 친구전’에
서 합창과 패션쇼가 결합된 깜짝 공연을 준비 중”이
라며 “앞으로는 장애인 시설, 요양원 등에서 재능
기부하는 기회도 늘려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하
고 싶다”고 전했다.

인터뷰를 마친 모두의 얼굴에는 뿌듯함과 설렘
이 함께 묻어 있었다. 합창단은 단순한 취미 모임
이 아니다. 각자의 삶에서 바쁘고 지친 시간을 지
나 다시 모교의 품으로 돌아와 서로를 격려하고 일
으켜 세우는, 이화인이기에 가능한 소중한 연대의
공간이다. 누군가는 이곳에서 잊었던 용기를 되찾
고, 누군가는 새로운 도전을 향한 에너지를 얻고,
또 다른 누군가는 인생의 위로를 받는다. 화려한
무대 뒤에서 서로를 향한 애정과 기도로 단단히 묶
여 있는 그들의 노래는 앞으로도 이화를 밝히는 따
뜻한 빛이 되어 오래도록 울려 퍼질 것이다.

글·정진숙(행정89, 이화동창 편집위원)

제18회 '아름다운 이화인' 상 수상자 /
웰인터내셔널 마다가스카르 지부장 박재연 동창

질문을 포기하지 않는 용기, 배움을 삶으로 확장하려는 책임감



“생각도 못 해본 일이었습니다. 이화와 이렇게 다시 만나다니요. 개인에 대한 상이라기보다, 마다가스카르 의료선교와 이화를 잇는 접점이라고 느낍니다. 21세기 선교는 시혜적 원조를 넘어, 현지의 자립 역량을 키우는 ‘총체적 선교(Holistic Mission)’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15~20년 동안 마다가스카르 수도에 의료·교육·선교가 결합된 미션센터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지난 송년의 밤, 총장님 축사를 통해 이화의 글로벌 비전을 들으며 감사가 절로 나왔습니다.”

2025년 ‘아름다운 이화인’ 상을 수상한 박재연(생

명 90) 동창은 이화의 세계적 전문성과 인적 자원, 공공성을 향한 교육 철학이 자신의 의료선교 비전과 깊이 맞닿아 있다고 전했다. 여기에 웰인터내셔널의 현장 경험과 실행력이 더해진다면,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 협력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마음을 향한 질문, 이화에서 확장하다

어린 시절부터 박재연 동창의 마음에는 질문이 많았다. ‘사람들은 왜 아플까?’ ‘마음의 고통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걸까?’ 이 질문들은 기독교 신앙으로 이어졌고, 자연스럽게 정신과 의사를 꿈꾸게 했다. 박 동창이 꿈꾸던 진로는 계획한 대로 펼쳐지지 않았다. 의대 진학에 실패했고, 생물학 전공자로 이화 캠퍼스에 첫발을 내디뎠다. 그때는 알지 못했다. 이 선택이 훗날 자신의 삶 전체를 떠받치는 토대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궁금증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깊어졌다. 생물학은 인간을 생리적·과학적으로 이해하는 훈련이었다. 박 동창의 의구심은 개인을 넘어 사회구조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으로 확장되었다. 4학년 2학기라는 늦은 시점에 임상심리학 대학원 진학을 결심했다. 첫 도전은 실패로 끝났다. 실패는 포기가 아니라 또 다른 질문을 불러왔다.

“어떻게 제대로 배울 수 있을까? 고려대 심리학과 교수님을 찾아가 임상심리학을 공부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당돌함’ 덕분에인지 청강이 허락되었고, 1년 동안 학부 전 과정을 수강하며 학생증도 없는 ‘비공식 학생’으로 치열하게 공부했습니다.”

넉넉지 않은 형편에 여러 개의 아르바이트를 병행해야 했지만, 그 시기는 성적을 위한 공부 아니라 이해를 위한 공부의 방법을 온몸으로 배우는 시간이었다.



의료선교 현장에서 박동창은 현지 언어를 익히고
의료 인력 양성과 제도 구축에 힘썼다

마침내 그녀는 대학원에 진학했다. 병원 임상을 통해 환자들을 만나면서 중요한 사실을 확인했다. 같은 진단명 아래 놓인 환자들이었지만, 그들이 감당하는 고통의 깊이는 놀라울 만큼 달랐다. 증상은 비슷해 보였으나, 회복을 향해 나아가는 속도와 방향은 저마다 달랐다. 그 차이의 근원은 종종 ‘가정’이라는 이름의 자리에서 비롯되고 있었다.

정서적으로 안전한 울타리를 가진 사람들은 같은 위기 속에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았고, 상처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힘을 발견해 나갔다. 반면 보호받지 못한 마음을 안고 살아온 이들은 작은 흔들림에도 더 깊은 아픔을 겪고 있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며 박재연 동창의 마음에는 점점 구체적인 소망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치료와 회복이 병실 안에서만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부터 이어져야 한다는 깨달음이었다.

그렇게 그는 신앙 안에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싶다는 꿈을 품게 되었다. 상처를 덮는 공간이 아니라 치유가 시작되는 자리, 고통을 혼자 견디지 않아도 되는 울타리. 누군가에게는 다시 살아갈 힘이 되어 줄 가정을 세우는 것, 그것은 그가 앞으로 걸어갈 길

의 또 하나의 분명한 방향이 되었다.

만남, 공동체와 함께 시작된 선교

결혼은 박재연 동창의 삶에 또 하나의 깊은 전환점이자, 오래도록 품어온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다. 신앙 안에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겠다는 꿈을 품은 후 “하나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기다려왔다. 신기하게도 훗날 남편이 되는 외과 전문의 이재훈(《인간극장》〈길 위의 닥터〉) 씨 역시 같은 질문을 가슴에 품고 있었다. 아프리카라는 험지로 의료선교를 향하는 길 위에서, 자신을 사지로 보내는 선택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아내, 그는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함께 걸어갈 동반자를 기다려 왔던 것이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처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만나게 되었다.

두 사람의 여정은 의료 환경이 극도로 열악한 마다가스카르로 이어졌다. 그 첫걸음에는 어느새 형제처럼 가까워진 ‘그리심의료선교회’와 ‘웰인터내셔널(구 연세우사모)’ 가족들이 함께하고 있었다. 현실적인 두려움과 막막함을 나누던 밤들,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던 시간들, 그리고 “함께 가자”는 말 한마디가 건네는 단단한 위로. 박재연 동창에게 선교는 결코 혼자만의 헌신이었다. 그것은 공동체가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며,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한 걸음씩 내딛는 믿음의 여정이었다.

마다가스카르, 삶이 된 현장

2006년, 첫 이동 진료 현장에서 ‘의료선교’라는 말은 더 이상 개념이나 이상이 아니었다. 사역지를 정하기까지는 수개월에 걸친 사전 조사와 행정 협의가 필요했고, 비포장도로를 따라 며칠씩 흔들리며

이동해야 했다. 그렇게 도착한 곳에서는 진료보다 먼저 잠잘 공간과 화장실을 마련해야 했다. 모든 준비가 끝나기도 전에 다음 날 새벽부터 수백 명의 환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진료소 앞에 끝없이 늘어선 사람들의 줄, 평생 단 한 번도 의사를 만나본 적 없다고 말하던 이들의 눈빛 속에서 그것은 곧바로 삶의 현실이 되었다.

그 치열한 현장에서 박 동창의 역할은 단순한 진료 보조에 머물지 않았다. 두려움에 몸을 웅크린 아이의 손을 꼭 잡아주고, 말이 통하지 않아도 끝까지 이야기를 들으려 애쓰며 고개를 끄덕이는 일. 임상 심리학에서 배운 ‘맥락 속의 인간’이라는 관점은 이곳에서 가장 생생한 언어가 되었다. 병은 몸에만 머무르지 않았고, 환자의 삶과 역사, 상처와 희망 속에 함께 자리하고 있었다.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마다가스카르 전국을 돌며 6만 명이 넘는 환자를 만났지만, 박 동창의 기억에 오래 남아 있는 것은 숫자가 아니었다. 치료가 끝난 뒤에도 손을 놓지 않던 아이들, 서툰 노래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던 마을 사람들, 말없이 눈빛으로 마음을 건넬던 순간들. 그 하나하나의 얼굴 속에서 그는 점점 더 분명해졌다. 이 길은 희생이 아니라 스스로의 선택이며, 두려움이 아니라 분명한 부르심이라는 것을.

의료·교육·공동체를 잇는 하나의 공간을 꿈꾸며

현장에서 얻은 결론은 분명했다. 단기 진료와 일회성 지원만으로는 변화가 이어질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현지 언어를 익히고 정부와 협력하며 의료 인력 양성과 제도 구축에 힘썼다.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세우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박 동창이 꿈꾸는 미션센터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다. 배움과 훈련이 이어지고 공동체가 회복되는 공



남편 이재훈 선교사와 함께 마다가스카르 전역을 돌며 6만 명의 환자를 돌봤다

간이다. 2026년, 확보된 부지에 교육·의료·숙소·커뮤니티 시설이 연결된 센터가 들어서면, 차세대 의료인을 키우는 훈련의 장이자 사역자들의 베이스 캠프가 될 예정이다.

박 동창이 걸어온 길은 언제나 직선은 아니었다. 의대 실패, 전공 전환, 청강생 시절, 낯선 나라에서의 삶, 허리 디스크가 터지고 여러 차례의 병치레 등 수많은 우회가 있었다. 하지만 모든 과정은 하나의 태도로 수렴되었다. 질문을 포기하지 않는 용기, 그리고 배움을 삶으로 확장하려는 책임감이 있었다.

지천명(地天命)의 나이 끝 무렵을 맞이한 박 동창, ‘원하는 때’, ‘원하는 방식’은 아니었을지라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큰 그림 안에서 삶의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음을 고백했다. 어쩌면 지금 꿈꾸는 총체적 선교 차원의 미션센터의 설립이 그녀가 원할 때, 원하는 방식이 아닐 수도 있으리라. 하지만 박 동창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분의 뜻이라면 언젠가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체득했으니 말이다.

글·최정은(커미부 89, 이화동창 편집위원)

“이화를 위한 아름다운 공동체로 거듭나기를”



축하떡 키팅식

2025년 10월 22일(수) 오후 6시 모교 EOC 이삼봉홀에서 '이올 연합회(EWHA-in ALL)' 창립 4주년 기념행사가 열렸다. 행사에는 이향숙 모교 총장과 이명경(무용 77) 총동창회 회장, 한은주(특교 79) 총동창회 부회장, 신난식(성악 73) 이올 연합회 회장, 배혜화(불문 77)·박희성(제약 78)·강남이(식영 81)·임선영(의학 82)·황복기(화학 83)·김곡미(생미 87) 이올 연합회 부회장, 최윤정 대외협력처 처장, 이올 회원 등 170여 명이 참석했다. '이올 연합회'는 1991년부터 각 과에서 졸업 30주년 대표로 추대된 '올해의 이화인'과 2022년부터 50주년 대표로 추대된 '영원한 이화인'으로 구성된 단체로, 해마다 창립 기념 모임을 통해 유대감을 돈독히 하고 나눔과 섬김의 이화 정신을 되새기며 모교의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윤소영(가관 89) 이올 연합회 총무의 사회로 시작된 1부 행사는 '올해의 이화인' 10주년 대표 정정미



4주년 기념행사에 모인 이올인들

(서양 85) 동창이 성경 봉독(시편 23절)을 한 데 이어 30주년 대표 최은영(가정 63) 동창의 이올 연합회와 이화의 미래가 잘 화합하여 큰 일을 이루기를 바라는 기도로 이어졌다.

신난식 이올 연합회 회장은 “‘영원한 이화인’과 ‘올해의 이화인’으로 구성된 이올 연합회는 모교에 대한 사랑과 헌신의 상징이며, 이화의 가치와 정신을 후배 세대와 더불어 세계 속에 널리 확산시키는 든든한 기반이 되고 있다”고 밝히며, “모든 이화인들이 앞으로의 삶을 더욱 아름답고 풍요롭게 이어가기를 기원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명경 총동창회장은 “불확실하고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이올 연합회’의 동창 선후배들께서 ‘진선미’의 이화 정신을 근간으로 서로가 믿어주고 이해하며 용납하고 인내하는 가운데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서 풍성한 열매 맺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이향숙 총장은 먼저 동영상으로 인사를 전하고 1부 마지막에 참석하여 “모교와 이올 연합회가 앞으로도 더욱 빛나는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길 응원한다”고 당부했다.

곽연희(관현 89) 동창이 플루트로 <사랑의 인사(Salut d'Amour)—Edward Elgar>를 축하 연주했고, '축하떡 키팅식'에 이어 테이블마다 떡을 나누며 '이올 연합회' 4주년을 기념하였다. 신난식 회장은 임원진을 호명하여 소개하고 임원진들이 인사를 하자 참



박연희 동창의 플루트 연주와 아르모니아 합창단의 축하 공연 및 장기자랑과 경품 추천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석자들은 큰 박수로 감사함을 전했다. 이어 졸업 30주년(1995)·20주년(2005)·10주년(2015)을 맞이 대표에게 축하금을 전달하였고, 신혜영(화학 78) 감사가 감사보고를, 권미경(교공 87) 회계가 회계보고를 했으며, 2025 이올 연합회 활동 보고 동영상을 시청하며 올 한 해의 활동을 돌아보고 서로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올해의 이화인'으로 구성된 합창단 '이화 아르모니아 합창단'이 〈Musical Risotto-Jonathan Willcooks〉를 선사해 박수갈채를 받았다.

2부는 장기자랑과 경품 추천 시간으로, 강승애(체육 95) 동창의 사회로 문을 열었다. 제일 먼저 솜씨를 뽐낸 이올인은 2004년 올해의 이화인 주성희(의직 74) 동창으로 지미 로저스의 〈Today〉를 기타로 멋지게 연주하며 관객들의 호응을 이끌어 냈다. 이어 등장한 2025년 올해의 이화인은 장기자랑을 두 가지 버전으로 준비했다. 양훈진(의학 95) 동창이 작사·작곡한 〈미래를 이화하라〉 뮤직비디오는 30년

만에 다시 만난 이화인의 미래를 아름답게 그려내어 모두의 가슴에 잔잔한 감동을 주었으며, 바로 분위기를 바꾸어 세 곡의 메들리로 흥겨운 합창과 귀여운 댄스를 선보여 막내 이올인으로 충분한 사랑을 받았다. 그리고 2024년 영원한 이화인 김귀주(동양 74) 동창은 하모니카로 〈향수〉를 연주해 흥을 돋우었다. 마지막은 2025년 영원한 이화인들의 댄스였는데 이인숙(중음 75) 외 9명의 이화인들이 〈이화여 영원하라!〉는 제목으로 여름내 갈고닦은 실력을 뽐내었다. 관객석의 이화인들은 모두 환호했고, 뜨거운 박수를 받기에 충분했다. 그리고 이어진 퀴즈로 관객석까지 후끈했으며, 경품추첨으로 또 한번 행운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지난 1년간의 활동과 결실을 돌아보고 화합을 다진 참석자들은 정자영(성악 93) 동창의 선창으로 교가 제창을 한 후, 새롭게 도약할 기대를 안고 행사를 마무리했다.

글·안성희(국문 88, 2018년 올해의 이화인)

총 동 창 회 소 식

1

‘이화인의 밤’과 ‘이화가족 성탄 예배’ 진행 상황 논의

2025년도 10월 정기임원회가 10월 16일(목) 오후 2시 30분 동창회관 대회의실(이화·삼성교육문화관 806호)에서 28명의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10월 정기임원회 회의록을 낭독한 후 동의와 재청으로 회계보고를 처리하고, 안건 토의를 진행했다. ‘대바자회’에 대한 평가는, “본부석이 중앙에 있어서 잘 찾을 수 있었으며 학생문화관 숲 주변의 부스에 동창들이 많이 다녀서 다행이었다” (윤금진(영교 80) 사범대 회장)라는 등 긍정적인 의견이 다수였다.

‘이화 가족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에 대해서 이명경 총동창회장은 토요일임에도 참석하여 애써준 임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신청자 222명 중 대회 당일에 211명이 참가하였으며 불참자에게는 사무국에서 후원 물품을 택배로 보냈다”고 안내하였다. 덧붙여 “이 대회는 젊은 동창들이 모교와 총동창회에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작되었

는데, 많은 동창이 가족 단위로 참석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설명하였다.

이어 이명경 총동창회장은 11월에 개최되는 ‘이화인의 밤’ 행사에 대해서, “가능한 한 지출을 덜하여 모교에 후원금을 많이 보낼 수 있도록 동창들 안에서 축하공연 레퍼토리를 찾으려고 다방면으로 알아보던 중에 동창(권정희, 피아노 95, 린브랜딩 대표)의 기획사를 통해 ‘팬텀싱어’ 준우승을 했던 가수 백인태의 공연을 준비하게 되었다”고 경과를 설명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노정희(법대·법전원 86) 회칙개정위원장이 회칙개정위원회에서 논의된 두 가지 의제를 보고해 이명경 총동창회장이 임원진의 의견을 물었고, 임원진의 토의 후 거수로 심의된 안건은 다음 총회 때 상정하여 인준 받기로 하였다.

조선영(영문 74) 선교부장은 세계 각지의 140여명 동창 선교사로부터 기도 제목과 본인 사진을 일일이 취합하여 『2026 이화동창 선교사 기도 수첩』을 발행 준비 중이라고 알리며, 한 권당 5,000원의 비용이 드는데 1,000부 인쇄 예정이라고 안내하고 후원을 부탁했다.

2

내년 동창의 날 전야제 행사 합창제 형식의 흥겨운 축제 기대

2025년도 11월 정기임원회가 11월 13일(목) 오후 2시 30분 동창회관 대회의실(이화·삼성교육문화관 806호)에서 열려 30명의 임원이 참석했다.

이명경 총동창회장은 ‘이화인의 밤’ 행사 진행 상황을 보고하며, “올해는 이화학당 이사장이 새로 선

임되고 제18대 총장도 취임하여 이화의 새로운 역사가 기대되는 시간이라 더욱 세심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안내하였다. 참석자 기념품은, 모교에서 이화그린 토트백을, 총동창회에서 생포, 동화약품, 서울식품, 아이소이, 한국마즈 등 후원 물품을 지원해 주어 총동창회 타포린백 안에 선물을 담은 예정이다. 행사 당일엔 임원진들은 오후 1시까지 도착하여 일을 도와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이명경 총동창회장은 12월 4일(목) 오후 3시에 '이화가족 성탄예배'가 열릴 예정이라고 전하며, 성탄의 기쁨을 함께하고 싶은 동창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하였다.

한편 2026년 모교 창립 140주년을 맞아 5월 '동창의 날' 전야제(5월 28일 목요일)를 합창제 형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임원들이 의견을 나누었다. 이명경 총동창회장은 이화 창립 140주년을 기념하여 처음 기획하는 행사로서, 신청하는 팀들은 모두 전야제에 참가하게 되며, 그중 7팀을 추천하여 '동창의 날' 당일 무대에 올리기로 단과대학 합창단의 수고를 파악해야 한다고 알렸다. 이에 "40명 이상 인원 이 이를 출연하는 것은 어렵고, 전야제에서 순위 안에 들지 않으면 '동창의 날'에 다시 참석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최경임(물리 85) 자연대 회장), "매년 있는 행사가 아니라 140주년 기념이므로 실시하면 좋겠다"(이승은(동양 89) 조형대 회장), "합창제가 '올해의 이화인', '영원한 이화인' 추대 행사와 함께 진행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았는데 이를 연속으로 행사를 한다면 아예 합창제를 전야제에 집중하여 가족들도 참석하고 별도의 행사도 마련하여 140주년을 기념하는 축제처럼 하고, '동창의 날'에는 상징적으로 2~3팀만 축소하여 무대에 오르도록 하자"(윤금진 사범대 회장), "전야제를 한다면 합창 이외에 음악회를 별도로 마련하여 교수나

게스트 한두 명이라도 준비하고, 7팀이 선착순이면 단과대학 회장 입장에서는 순위 내에 들지 못하는 경우 부담이 되므로 시상을 하거나 5팀으로 축소하자"(이은영(컴공 85) 인공지능대학 회장), "전야제를 하게 된다면 '동창의 날'에는 합창하는 단과대학을 3팀 이내로 줄이자"(노정희(법대·법전원 86) 법대·법전원 회장) 등 적극적인 의견이 개진되었다. 거수에 의해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전야제를 개최하는 것으로 의결했으며, 전야제에서 3팀을 추천으로 선정하여 다음날 '동창의 날' 무대에 올리고 그 이외의 팀들은 모두 당일 행사에 참석하여 객석에서 응원하기로 했다.

— 3 —

2025년 마지막 정기임원회, '이화인의 밤' 행사 등 호평 이어져

2025년 마지막 정기임원회가 12월 11일(목) 오후 2시 30분 동창회관 대회의실(이화·삼성교육문화관 806호)에서 31명의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우선 '이화인의 밤'에 대한 평가를 했는데, 공연 내용, 음향, 사회자의 진행 등 전반적으로 완성도가 높았고 참석자들의 호응도 잘 이끌어 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경임 자연대 회장은 "준비된 프로그램이 매우 좋아 몰입도가 높았고 참여한 동창들의 만족도가 컸다"고 말하며 '올해 행사는 만점'이라고 평가했다. 윤금진 사범대 회장은 "음향이 개선돼 공연에 더욱 집중할 수 있었고, 사회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느꼈다"고 말했다. 판매되지 못한 티켓을 대신 구매한 단과대학(윤금진 사범대 회장), 졸업 30주년 기수를 중심으로 티켓을 사서 참여하

는 사례(정승은(간호 86) 간호대 회장), 선배들이 후배의 티켓을 구매해 주는 사례 등(이은영 인공지능대학 회장, 이효수(환경 98) 공과대학 회장) 등 다양한 방법이 공유되며 이화 공동체의 연대가 주목됐다는 평가도 받았다. 이효수 공과대학 회장은 특히 젊은 동창이 호텔에서 회합을 갖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이번에 참석하면서 울동을 따라하고 적극 즐기는 모습을 보게 되어서 좋았다고 했다.

“티켓 가격이 부담된다”(임영미(디대원 15) 디자인대학원 회장)는 의견도 있었는데, 이명경 총동창회장은 “호텔에서 진행되는 행사의 경우 1,000장의 티켓 판매로 약 2억 5,000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고, 1억 8,000만 원의 지출을 제외한 수익금이 모교 장학금과 후원금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티켓 가격을 조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내년 행사는 호텔(티켓가 25만 원)과 대강당(15만 원, 대신 판매 물량이 2.5배 증가)의 두 가지 안을 놓고, 각 단과대학 회장단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한 뒤, 2026년 2월 12일(목) 정기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니 각 단과대학 회장은 각 과 회장들과 심사숙고하여 의견을 모아주기를 당부하였다.

이어 ‘이화가족 성탄예배’ 평가가 진행되었다. 올해는 학생의 채플 참여가 없는 성탄예배인 만큼 참여자가 적을 것을 우려했으나, 교수와 동창, 교직원, 유치원생과 가족, 이수매니지먼트 관계자 등 다양한 구성원이 한자리에 모여 성탄을 축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향후 성탄예배에서는 부담이 되는 구성원은 제외하고 동창과 교직원, 교수로만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 의견도 있었다. 이경숙(영문 70) 고문은 이화가족 구성원이 다양하게 참석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면서 특히 학교의 노력으로 현역 교수들이 많이 참석한 점을 의미 있게 평가했다. 예배 구성원 범위

에 대한 논의는 총동창회에서 결정할 일이 아니라 모교 측과 충분히 상의해서 결정할 사안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조선영 선교부장은 참석을 독려하기 위해 초대 카드 1,500장을 제작해 ‘이화인의 밤’ 등 행사에서 나눠 주었는데 오랜만에 참석한 선교사들이 많아서 감사했다고 소감을 말했다. 또한 당일 갑작스런 기온 하강으로 대강당이 추워져, 핫팩 200개를 급히 마련해 60세 이상 동창들에게 나눠 주었다고 덧붙였다. 향후 참여와 접근성을 고려해 성탄예배 시간을 오후 5시로 늦추는 방안도 제기되었다. 이명경 총동창회장은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장소와 시간, 대상 등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기타 ‘이화 동창 및 기부자 초청 음악회’ 건에 대해서는 호평이 쏟아졌다. 이은영 인공지능대학 회장은 “올해 행사 중 가장 인상 깊은 자리였다”고 평가했고, 정승은 간호대학 회장은 “훌륭한 연주자의 공연을 가까이에서 생생하게 감상할 수 있었던 중강당을 재평가하게 되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명경 총동창회장은 중강당이 조금 추웠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 악기 보호를 위해 공연장을 일정 수준의 낮은 온도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연주자(김지연 바이올리니스트) 역시 중강당에 대해 아름답고 음향을 내기에도 뛰어나 연주자에게 최적의 장소라고 높이 평가했다는 말을 전하며, 향후 연주 계획이 있을 경우 중강당도 적극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이명경 총동창회장은 2025년 애써 온 임원진에게 감사를 전하면서, “창립 140주년을 향해 가는 여정에도 계속해서 힘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말하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글·이영희(사학 88, 이화동창 편집위원)

모교소식

1

국가연구소 사업(NRL 2.0) 선정

모교 '멀티스케일 물질 및 시스템 연구소(Institute for Multiscale Matter and Systems)' (이하 IMMS, 소장 문회리 교수)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가 지원하는 '2025년 국가연구소(이하 'NRL 2.0')'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모교 IMMS는 연간 100억 원씩 10년간 총 1,000억 원을 블록 펀딩(Block funding) 방식으로 지원받아 멀티스케일 물질 연구를 기반으로 국가 전략기술과 인류사회의 난제를 해결하는 문제해결형 융합 연구

모교 멀티스케일 물질 및 시스템 연구소 연구그룹



수행에 앞장선다.

IMMS는 금속-유기 골격체(MOF) 분야 세계적인 연구자 문회리(화학·나노과학과) 교수를 필두로 부소장 김동하(화학·나노과학과) 교수와 각 그룹책임자인 박소정(화학·나노과학과) 교수, 박창원(물리학과) 교수, 김동욱(물리학과 교수), 조성재(지능형 반도체공학전공) 교수, 나종걸(화공신소재공학과) 교수, 그리고 화학나노·물리·생명·화공신소재·반도체·인공지능 등 31명의 다양한 분야의 연구진이 참여하는 다학제 협력 구조를 구축했다. IMMS의 핵심 연구 분야는 멀티스케일 소재 설계, 차세대 이차전지·수소 에너지 시스템, 미래형 반도체·광전자 소자, 인공지능 기반 자율실험실(Self-Driving Lab) 구축 등으로, 모두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과 첨단 반도체·에너지 산업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고부가가치 연구 주제들이다.

2

4단계 두뇌한국21 혁신인재 양성사업(BK21) 인공지능 분야 교육연구단 선정

모교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하는 '4단계 두뇌한국21(BK21) 혁신인재 양성사업' 인공지능 분야 교육연구단에 선정됐다. '고신뢰·고효율 인공지능 교육연구단(Trustworthy and Resource-efficient Unified Evolving AI, 이하 Ewha TRUE-AI)'(단장 양대현 교수)은 이번 사업 선정을 통해 고신뢰·고효율 인공지능 원천기술 연구와 차세대 인공지능 인재 양성의 중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두뇌한국21(BK21)’ 사업은 1999년 시작된 국내 최대 규모의 대학원 혁신·연구자 양성 지원 사업으로, 4단계 사업(2020~2027)은 혁신성장을 선도할 신산업 분야 연구 인력 양성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모교 교육연구단은 인공지능대학 소속 12명의 교수와 대학원생 총 60명의 대학원생이 참여해 효율성과 신뢰성을 동시에 갖춘 차세대 AI 기술 개발과 여성 중심의 고급 인재 양성에 나선다.

— 3 —

2025 중앙일보 대학평가 종합 순위 ‘상승’, 모교, 종합 6위로 도약

모교가 11월 25일(화) 발표된 ‘2025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종합 순위 6위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한 단계 상승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학문 분야 평가에서 모교는 인문·사회·경영·이공계를 아우르는 성과를 보였다. ▲언어·문학·인문학 분야는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되어 인문학 기반의 전임교원 확보와 안정적인 교육·연구 환경,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교육 혁신 노력이 종합적으로 인정받았다. ▲경영·경제 분야도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높은 취업률과 낮은 중도 포기율은 학생들의 학업 충실도와 진로 경쟁력을 보여주며, 상위 10% 우수 논문 비율을 통해 연구의 질적 수준도 함께 입증되었다. ▲사회과학 분야는 교수당 국내논문 피인용(FWCI) 등에서 강점을 보이며 ‘우수’ 등급을 획득해 국내외 학문 공동체에서의 영향력을 확인했다. 이공계에서는 ▲전기·전자·통신·컴퓨터, ▲수학·물리·천문·지구, ▲화학·생명·농림·수산 분야가 모두 ‘우수’ 등급을 받았다. 기초과학과 공학 분야

에서 연구성과와 교육성과가 균형 있게 평가되었다는 점에서 향후 이공계 전반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번 종합 순위 상승과 학문분야별 성과에는 학생 중심 학사 운영과 연구 생태계 개선을 위한 꾸준한 노력이 바탕이 됐다. 모교는 자기설계 모듈 교과목, 다전공 제도, 지도교수제와 밀착 상담 등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전공과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4 —

2026년 서울 캠퍼스타운 사업 선정

모교가 서울시 주관 ‘2026년 서울 캠퍼스타운 사업’에 최종 선정되었다. 서울 캠퍼스타운은 서울시가 대학, 자치구와 협력해 창업팀 발굴·육성·사업화 전 과정을 지원하는 서울시 대표 창업 육성 사업이다. 올해 공모에는 서울 23개 대학 및 컨소시엄이 참여해 약 1.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모교를 포함한 13개 대학이 선정되었다. 선정 대학은 향후 4년간 최대 50억 원을 지원받는다.

이번 선정으로 모교는 인공지능 및 소프트웨어 분야의 다양한 사업 경험과 보유 기술, 창업지원 조직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성과를 한층 고도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술이전 기반 창업 활성화 ▲단계별 AI 인재양성 프로그램 ▲아기유니콘 기업 투자 매칭 ▲민간 협력형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 ▲글로벌 인·아웃바운드 프로그램 등을 새롭게 도입·확장하여, 창업교육부터 기술창업·산학협력까지 이어지는 실질적 지원 체계를 완성할 예정이다.

학교법인 이화학당 이사장

이·취임식 개최

학교법인 이화학당은 장명수 이사장 이임식 및 김은미 이사장의 취임식을 10월 29일(수) 이화여자 대학교 ECC 이삼봉 홀에서 거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학교법인 이화학당 임직원과 모교 전·현직 총장을 비롯해 주요 대학 총장, 정부 부처 및 주요 기관장, 정·재계 인사, 동창 및 교직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향숙 총장은 인사 말씀을 통해 “지난 14년간 이화학당을 든든히 이끌며, 이화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헌신해 주신 장명수 전임 이사장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김은미 신임 이사장님은 총장 재임 시절 ‘법고창신’의 정신 아래 교육과 연구 혁신을 이끌며 이화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셨고 앞으로도 통찰력과 따뜻한 리더십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반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장은 “이화학당은 단순한 교육기관을 넘어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살아 있는 증인이자 여성 인권과 교육의 등대”라며 “통합과 소통을 통해 이 땅의 여성들에게, 나아가 인류 전체에게 희망의 빛이 되는 가치 있는 이화의 여정이 계속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축하했다.

장명수 이사장은 “2011년 윤후정 선생님의 뒤를 이어 이사장으로 취임한 뒤 어려운 순간마다 ‘비결이란 건 없어’라고 말씀하시던 김옥길 선생님의 단호한 가르침을 품고 이화의 미래를 바라보며 열심히 걸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 맡은 김은미 이사장은 넓은 그릇과 깊은 헌신으로 이화를 세계 속 명문으로 이끌 훌륭한 리더로서 이화의 새로운

도약을 이뤄낼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이화 있음에 우리가 있고 하나님이 계심에 이화가 있다”는 말을 전하며 “훌륭한 여성 인재를 키워 더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이화의 창립 정신이 영원히 빛날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김은미 이사장은 “이화학당의 역사는 한국 근대 교육의 역사이자 여성의 인격화와 인류의 희망을 향한 여정으로, 메리 스크랜튼 여사가 여성에게 교육의 문을 연 순간 이화는 사회 변화를 이끄는 뜻대가 되었다”며 “이화학당은 산하 기관 등이 교육·연구·의료·경영의 사명을 다하도록 제도적·재정적·윤리적 기반을 제공하는 ‘교육 생태계의 중심 플랫폼’으로서 이화 공동체의 든든한 토대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속가능한 교육 생태계를 구축하여, 이화의 가치로 인류의 미래를 밝히는 책임 있는 교육법인’이 될 것”이라며 이화학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 ▲투명한 거버넌스와 신뢰 경영 확립 ▲교육환경과 캠퍼스 인프라의 체계적 개선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강화 ▲이화의 정체성 계승과 글로벌 확산을 제시했다.

이향숙 총장, 김은미 이사장, 장명수 전 이사장,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왼쪽부터)



대학(원) 소식

사회과학대학

회장__임복희(행정 93)

회장단 정기 모임

2025년 10월 21일(화) 11시 30분, 샛썰로 압구정 동점에서 사회과학대학 동창회장단 정기 모임이 있었다. 이날 모임에는 임복희 회장과 각 과 동창 회장 김희정(정외 88)·장지숙(문정 89)·임명숙(사회 83)·라현정(심리 91)·최진경(경제 91) 동창 및 권미경(커미부 88) 커미부 회장 위임에 의한 대리 권은형(영교 90) 동창이 참석하였다. 참석자들 소개로 시작하여 각 과 동창회 소식 및 '2025 이화인의 밤' 행사 티켓 100매 배부와 총동창회 사업 관

사회과학대학 동창회장단 정기 모임에 참석한 동창들



련 의견 등을 나누었다.

음악대학

회장__정소희(작곡 89)

김영의 선생 추모예배

2025년 11월 26일(수), 음악대학 동창회 회장단(정소희 회장, 곽연희(관현 89) 부회장, 박주영(성악 89) 부회장)은 가평 이화수목원에서 김영의 선생 추모예배를 드렸다.

김영의(1908-1987) 선생은 이화여자전문학교 음악과(피아노 전공)를 졸업한 후, 1947년 미국 퍼시픽 음악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귀국했다. 이후 후진 양성에 전념하였으며,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음악대학 학장, 한림원장, 학교법인 상무이사, 이사장을 역임하였다. 현재 음악대학 내에는 김영의 선생을 기리는 김영의 홀이 있다.



이화수목원을 찾아 김영의 선생 추모예배를 드린 음악대학 회장단

조형예술대학

회장__이승은(동양 89)

동창회 정기전 녹미전, 10년 만의 현장 개최

2025 녹미전에는 1950년부터 2025년 졸업생까



녹미전에서 축하무대를 공연한 녹미합창단 단원들



창립 8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 체육대학 동창들

지 총 7개과(동양화과, 서양화과, 조소과, 섬유예술과, 생활미술과, 장식미술과, 도예과) 118명의 동창이 참여해 이화아트센터, 이화아트갤러리, 대산갤러리에서 10월 21일(화)부터 25일(토)까지 작품을 전시했다. 오프닝 행사에서는 한은주(특교 79) 총동창회 부회장, 문경원(서양 93) 조형예술대학 학장, 장영란(섬예 77) 한국 공예가협회 이사장, 고은비(도예 24) 동창, 이승은 녹미회 회장 등이 축사를 하였고, 녹미합창단 <오 해피 데이> 영상을 다시 선보였으며, 녹미합창단 차명임(서양 82) 단장의 지도하에 10여 명으로 구성된 단원들의 위킹 무대가 화려하게 펼쳐졌다.

체육대학

회장 _ 허현미(체육 89)

국내 최초 체육과학부 80년 역사 함께 기념

2025년 11월 29일(토) 체육과학부 창립 8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했다. 이화여대 체육과학부는 국내 대학 최초로 체육과학부 인가를 받은 곳으로, 이번 행사는 이화여대만의 기념을 넘어 한국 체육학의 80년 역사를 되짚어보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29일(토) 오후 1시, 동창과 재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OGYG 체육대회’가 열렸다. 골프, 테니스, 탁구, 피클볼 등 다양한 종목이 진행되었으며, 다른 세대가 함께 뛰고 응원하는 모습 속에서 체육과학부의 전통과 공동체 정신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오후 5시, 동창과 재학생 약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체육과학부 창립 80주년 기념식이 진행되었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은미 이화학당 이사장, 이항숙 이화여대 총장, 이명경 이화여대 총동창회장, 허현미 체육대학 동창회장 등 학교와 동창회를 대표하는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체육과학부의 80주년을 축하했다.

이어 ‘여성과 스포츠, 그리고 스포츠 행정’을 주제로 한 토크 콘서트가 진행되었다. 대한체육회 105년 역사상 최초의 여성 사무총장인 김나미(체육 94) 동창과 스포츠윤리센터 최초의 스포츠계 출신 이사장인 박지영(체육 93) 동창은 여성 리더십의 성장, 한국 스포츠 행정의 변화, 미래 스포츠 분야의 비전을 생생한 경험과 함께 공유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기념식 후에는 52학번 김정자(체육 56) 동창부터 25학번 재학생까지 다양한 세대가 함께하는 레크리에이션 시간이 이어졌다. 행사는 한나리(체육 92) 동창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체육과학부 구성원들이 세대를 넘어 서로 소통하고 어울리는 따뜻한 자리가 되었다.

이화여자대학교 체육과학부는 앞으로도 한국

체육교육을 이끄는 중심으로, 미래 스포츠 인재를 길러내고 새로운 체육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역할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경영대학

회장_김지훈(경영 90)

제12회 '이화, 경영인의 밤'

9월 25일(목) ECC 이삼봉 홀에서 제12회 '이화, 경영인의 밤' 행사를 가졌다. '이화, 경영인의 밤'은 재학생들의 진로에 도움을 주기 위해 경영대 학생회가 기획하고, 경영대 동창회(이하 '이경회')가 후원하며, 경영대학이 주최하는 멘토링 행사이다. 학생 120명, 동창 20여 명과 교직원 등 총 1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즐겁고 뜻깊은 자리로 성황리에 치러졌다.

이경회의 유정민(경영 97) 총무가 멘토로 섭외한 각 분야의 동창들은 오랜만에 모교를 방문해서 재학생 후배들에게 경험과 지혜를 나누며 뿌듯함을 느꼈고, 재학생들은 선배들로부터 애정 어린 조언과 지도를 받는 소중한 귀한 자리였다(선배 멘토 명단(모두 경영, 가나다순): 김현순(96), 남영진(98), 박희현(01), 성은숙(96), 송다예(12), 송아현

(국제학부 12), 엄세민(14), 유정운(98), 이경연(97), 이세련(98), 이진성(수교 16), 임진영(99), 정경희(99), 정송이(16), 정지영(96)).

학생회는 학생들의 축하공연과 영상제작 등 행사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동창회는 멘토라는 인력 지원뿐 아니라 기념품과 경품 등 재정적으로도 아낌없이 후원했다. 특히 올해 음악대학 100주년 기념 오페라에서 주연을 맡았던 김인영(성악 24)·홍세아(성악 24) 동창과 반주자 우승지(피아노 20) 동창의 수준 높은 축하공연이 행사의 열기를 더욱 밝고 희망차게 만들어 주었다.

바쁜 일정 가운데 참석해 준 김봉진 학장, 박소라(경영 05) 부학장을 비롯한 교수들과 더불어, 행사 전반을 묵묵히 지원해 준 행정실 팀장과 직원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경회의 이연주(경영 90) 부회장과 유정민 총무에게 특별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여러 분야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동창 선배들과 그들의 얘기를 경청하며 자신들의 미래를 설계하는 학생들에게서 이화 경영인으로서의 자부심이 충만했던 날이었다.

의과대학

회장_피상순(의학 84)

창립 80주년 및 보구녀관 138주년 기념행사

9월 27일(토) 이대서울병원 컨벤션센터에서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8회 영닥터스 포럼을 개최하였다. 빅마마 이혜정 요리연구가를 초빙하여 '맛있게 먹자' 강의를 듣고, 영닥터스 포럼 전체진(의학 05) 위원장이 이끄는 신나는 놀이마당을 진행하여 젊은 의사들과의 소통과 선후배들의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화, 경영인의 밤'에 참석한 경영대학 재학생들과 동창들





가을야유회에 참석한 의과대학동창들

10월 12일(일) 이예누(이화 예술 누림) 모임을 갖고, 광림아트센터 BBCH홀에서 뮤지컬 <마리 퀴리>를 관람하였다. 마리 퀴리의 과학에 대한 열정과 헌신, 사랑과 우정, 그리고 인간적인 고뇌까지 짜임새 있게 풀어낸 공연을 관람한 뒤, 함께 식사하고 차 마시며 퀴리 부인 같은 선배들의 경험담을 함께 경청하였다.

10월 19일(일) 80여 명의 동창들과 함께 태안 천리포수목원과 서산 해미읍성으로 가을 야유회를 다녀왔다. 날씨 요정 덕분에 화창한 날씨에 바람 소리, 새 소리, 파도 소리에 취하고 나무 향기에 흠뻑 취해서 에너지를 가득 충전하고 돌아왔다.

10월 31일(금) 의과대학 창립 80주년 및 보구녀관 138주년 기념행사를 마곡 의학관 계림홀과 이대 서울병원 컨벤션센터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1945년 설립 이후 한국 여성 의학교육의 선구자로 걸어온 의과대학 80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미래 100년을 향한 비전을 선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기념 학술대회와 전시 개막식, 출판기념회, 기념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 이날 행사에서는 이향숙 총장과 유경하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피상순 동창회장을 비롯해 교수진, 재학생, 동창 등 다수의 내외 귀빈이 참석해 이화 의학의 역사와 발전을 함께 축하했다.

11월 7일(금) 달개비 컨퍼런스하우스에서 들꽃청

소년세상 대표 및 관장과 8명의 동창이 만나 자립 청소년 지원 프로젝트에 대해 간담회를 가졌다. 의과대학 동창회는 매년 10여 명의 청소년에게 자립 지원금을 1년간 지원하여 청소년 자립을 돕고 있다. 또한 11월 14일(금) 마곡 의학관 계림홀에서 '화이트 코트 세리머니'가 있었다. 의대 본과 2학년 학생들이 직접 환자를 보며 병실 실습을 시작하기 전에 교수와 동창회장이 학생들에게 하얀 가운을 입혀 주는 행사이다. 이날 학생 68명과 교수, 동창회장, 부모들이 함께하였다.

11월 16일(일) 달개비 컨퍼런스하우스에서 서울시 청소년 쉼터 의료지원을 위한 대표자 간담회 및 장학생 선발식이 있었다. 이날 쉼터 관장 16명과 동창 7명이 참석하여 3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간호대학

회장_정승은(간호 86)

동창과 함께한 나눔 그리고 단합

9월 23일(화) 모교 생활환경관 인근 광장에서 총동창회 대바자회가 있었다. 이번 바자회에서는 김숙영(간호 90) 동창이 시중가 대비 할인된 가격으로 기부한 닥터 디퍼런트 화장품, 로코팝 대표이자 섬유예술가인 마송이(간호 98) 동창이 선보인 프렌치 감성의 주얼리와 잡화가 주요 품목으로 큰 관심을 모았다. 이외에도 간호대학에서 자체 제작한 우양산 등 다양한 기념품을 준비하여 방문객들에게 풍성한 즐길 거리를 제공하였다.

행사 당일에는 여러 학과의 학생과 교수, 교직원 이 방문해 물품 구매를 통해 동창회 발전 기금 조성에 동참하였다. 결실의 계절 9월, 간호대학 동창



강화도로 가을 단합대회를 다녀온 간호대학 동창들

회 총무단은 행사를 기획·준비하고 함께 참여하며 서로의 소중한 인연을 더욱 깊이 다지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11월 4일(화),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제9회 간호대학 동창회 연합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정승은 회장의 주도로 3회부터 53회까지 총 24명의 동창이 함께해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강화도의 아름다운 건축미가 돋보이는 강화 성공회 성당, 예술과 감성이 공존하는 동검도 해든뮤지엄 그리고 역사적 울림을 품은 광성보를 함께 둘러보며, 선후배가 서로의 지나온 시간을 나누고 소중한 인연을 되새기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이번 단합대회는 간호대학 동창 간 친목을 도모하고 공동체의 결속을 강화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

약학대학

회장__허은경(제약 87)

창립 80주년 기념 심포지엄

11월 6일(수) 학생문화회관 소극장에서 창립 80주년 기념 신약 개발 심포지엄 및 성과 공유회를 약학연구소 주관으로 개최하였다. 약대 동창 임원들도 심포지엄에 참석하여 강의를 들었고, 동창회

약학연구소 후원회를 대표해 박병희(약학 84) 위원장이 약학연구소에 2,000만 원을 기탁하였다.

행사 1부에서는 오병하(KAIST) 교수, 하상준(연세대) 교수, 김광명(이화여대) 교수, 조광현(KAIST) 교수가 차세대 치료 기술의 기초 연구와 혁신적 접근법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어서 이영미(제약 89, 유한양행 부사장) 동창, 박정신(제약 93, SK바이오팜 부사장) 동창, 김미경(약학 96, 동아에스티 상무) 동창이 연사로 나와 제약 현장에서의 표적 치료 항암제의 최신 경향에 대해 발표하였다. 2부 순서에서는 박혜영(약학 76) 명예교수가 '이화 약대의 역사'에 대해 발표하였고, 이화정(제약 90) 학장이 약대 발전 계획과 성과를 공유하며 심포지엄을 마무리하였다.

이화 약대는 1945년 10월 최초의 4년제 약대로 출발하여 2025년 창립 80주년을 맞이하였다.



심포지엄에 참석한 약학대학 동창들

생활환경대학

회장__박경임(식영 73)

야유회로 가을의 정취 만끽

아령회(생활환경대 동창회)는 '2029 이화여대 가정학 100주년 기념 포럼-이로운 선택, 이로운 변화'를 10월 17일(금) 학관 251호에서 개최했다.



‘2029 가정학100주년 기념 포럼’에 참석한 생활환경대학 동창들

이번 포럼은 백종화(가관 86, 백종화심리포럼연구소장) 동창의 사회로 진미정(서울대 아동가족학과) 교수의 <달라진 개인, 달라지는 가족>을 주제로 강연이 진행되었다.

급변하는 사회 속 개인의 가치관 변화와 가족 구조의 변화양상, 혼인율 및 출산율 하락의 사회경제적 및 문화적 요인을 살펴보고 일-개인-가정생활 균형의 중요성 증대와 노년기 관계성 준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는 50여 명이 참여해 가족문화의 유연한 변화와 사회 정책의 역할에 대해 열띤 질의 응답을 나누었다.

11월 13일(목) 가을 야유회를 송덕산 수덕사, 예당호, 느린호수길, 아산 외암리 민속촌으로 다녀왔다. 김숙희(가정 60) 명예교수 및 41명의 동창(김명주(의직 74) 동창은 부부동반 참석)은 단풍이 곱게 물든 수덕사, 수덕사 선미술관의 <천연염색기획전시>, 이응로 화백 사적지인 수덕여관 등을 둘러보았다. 동창들은 함께 사진도 찍으며 가을의 정취를 한껏 만끽하고, 약선공양간에서 더덕 정식으로 맛있는 오찬과 정담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오찬 후 윤슬이 반짝이는 예당호 출렁다리, 느린호수길, 아산 외암리 민속촌을 둘러보았다. 일정 내내 무심재 이형권 대표가 함께하며 야유회 장소에 대한 안내와 설명으로 동창들의 나들이가 더욱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디자인대학원

회장 임영미(디대원 15)

장학금 및 ‘이화 첨단 스마트 도서관’ 건립 기금 전달

디자인대학원 동창회는 9월 9일(화) 장학금 기증식을 갖고 대외협력처에 장학금을 전달하였다. 해당 장학생은 디자인대학원에 입학하는 각 전공별 우수 인재로 선정하기로 하였으며 기준 마련을 통해 전달할 예정이다. 뜻깊은 이 행사는 디자인대학원 40주년 기념식 이후 ‘이화 첨단 스마트 도서관’ 건립기금 전달에 이어 ‘장학금’ 전달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김곡미(디대원 93) 회장은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발전을 위해 40주년 행사 이후 모은 발전기금을 좀 더 의미 있게 사용하기 위해 전달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우수 인재들이 많이 영입되기를 바란다”고 뜻을 밝혔다. 또한 “금년에 임기를 마치게 되며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와 더불어 새로 선출된 임영미 회장이 디자인대학원 발전을 위해 힘써 역량을 발휘해 줄 것을 부탁한다”며 디자인대학원에 대한 애정과 기대감을 나타내었다.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과 함께 앞으로 더욱 다양하고 창의적인 활동이 기대된다.

장학금 기증식에 참석한 디자인대학원 동창들



과(학부)소식

국어국문학과

회장__현혜경(76)

여주로 가을 나들이 다녀와

연일 쏟아지던 비가 그치고 가을 하늘이 맑아진 10월 14일(화) 국문과 동창 70여 명은 가을 나들이를 다녀왔다. 이번 가을 나들이의 목적지는 여주의 명성왕후 생가와 바이블랜드(성서박물관, 수목원)였다. 첫 번째 들른 명성왕후 생가는 명성왕후가 태어나 유년 시절을 보낸 곳으로,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 공간이라 역사적 무게감이 느껴졌다. 맛있는 점심을 먹고 이동한 두 번째 장소인 성서박

가을 나들이를 다녀온 국어국문학과 동창들



물관에서는 목사님의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그 이후 산책하기 위해 나선 수목원은 비가 온 뒤라서 그런지 더 청량하고 맑은 느낌이라 가벼운 마음으로 걷기에 더없이 좋았다. 특히 이번 나들이에서는 20기 동창들이 모은 장학금 1,000만 원에 대한 감사장 전달식이 있어서 더 의미가 깊었다.

11월 6일(목) 국어국문학과 ‘국문인의 밤’에서 국문과 동창회 장학금 수여가 있었다. 국문과 동창회 장학금은 매년 두 명의 학생을 선정해 각각 150만 원씩 수여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장학생들과 동창회를 발전시키는 새로운 방안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또한 24기 동창들이 1,000만 원을 모아 장학금으로 기탁해 주었다.

영어영문학과

회장__정경숙(79)

‘영문인의 밤’에서 멘토링 대담

11월 6일(목) ECC B4층 컨퍼런스 홀에서 제57대 영어영문학회 학생회 영포에버가 주최하는 이화영문 100주년 기념 ‘영문인의 밤’ 행사가 있었다. 선배들을 초청하여 진로 토크쇼와 진로 멘토링을 진행하는 행사로, 영문학과 동창회는 격려사와 장학금 수여에 이어 학생들에게 멘토링을 제공하였다. 멘토링 행사장에는 사회 진출 분야별로 원형 테이블 12개를 배치하여 학생들이 원하는 진로를 찾아서 선배와의 대화를 가질 수 있게 하였다. 방송신문, 언론 분야에 김균미(88) 전 서울신문 편집국장과 박지영(02) KBS 예능 PD, 부장 CP 동창이, 입법 사법 분야에 최소혜(24) 이화여대 법전원 학생과 원지영(92) GM 코리아 부사장 및 변호사가, 외교행정 분야에는 곽진영(88) 건국대 교수, 이신

화(88) 전 북한인권대사 및 고대 교수와 강민아(88)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 및 이대 교수가 멘토로 나섰다.

또한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김지명(95) SMG 테크 극단 표현과상상 제작·무대감독과 윤여선(85) 갤러리 가이아 대표, 김유현(85) 화가가 배석했고, 경영금융 분야에서는 허금주(87) 'G20 엠파워 얼라이언스' 한국 대표와 정수영(98) JP 모건 체이스 본부장이 자리를 함께해 사회 진출을 앞둔 학생들의 뜨거운 눈길을 받았다. NGO와 사회공헌 시민단체 분야에서는 김인희(80) 굿네이버스 미래재단 이사장이 나서서 그야말로 역대급의 각 분야 최고 선배들을 초청한 화려한 라인업으로 구성된 영문인의 밤이 되었다.



'영문인의 밤' 행사에 참석한 영어영문학과 동창 및 재학생들

불어불문학과

회장__이화원(81)

간사회 10월 정례 모임

10월 15일(수) 12시 한일관 압구정점에서 총 26인이 참석해 간사회 정례 모임을 가졌다. 이날 모임에서는 이홍주(81) 동창의 우리 전통차 이야기 특강이 진행되었다. 불어불문학과 동창회는 각 기



간사회 정례 모임에 참석한 불어불문학과 동창들

별 2명 내외로 구성되는 간사회 정례 모임을 격월로 갖고 있으며, 2025년-2026년에는 총 70명의 간사가 활동하고 있다.

독어독문학과

회장__박지나(90)

야외 스포츠로 친목 다져

10월 21일(화) 경기도 남양주시 양주CC에서 독어독문학과 동창회 친목 골프 대회가 있었다. 골프를 좋아하는 선후배들이 한자리에 모여 야외 스포츠를 함께 즐기며 지난 이야기로 웃음꽃을 피우는 시간이 되었다. 대회 후에는 여러 가지 재미있는 상을 수여하며 유쾌하게 마무리하고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동창회 친목 골프 대회에 참가한 독어독문학과 동창들

사학과

회장 __ 최유리(84)

창립 70주년 기념행사

10월 23일(목)부터 24일(금)까지 진주(진주성, 진주박물관)와 함양(남계서원, 함양숲, 일두고택)으로 가을 정기 답사를 다녀왔다. 답사는 고경희(72, 전 국립진주박물관장)·이혜옥(74) 동창의 설명으로 진행되어 그 어느 때보다 특별하고 풍성하였다.

11월 1일(토) 사학과 창립 70주년 기념행사를 ECC B4층 컨퍼런스 홀에서 가졌다. 행사에는 이향숙 모교 총장과 최소자(62)·김염자(63)·김영미(79) 모교 사학과 명예교수, 그리고 150명의 동창과 재학생이 참석하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동창들이 모은 기금 1억 8,900만 원을 총장에게 전달하는 기금 전달식도 진행되었다. 사학과 70년의 역사를 돌아보고 이화 사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사학과 창립 7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한 사학과 동창들

정치외교학과

회장 __ 김희정(88)

제13회 DMZ미래길 걷기대회 참가

10월 1일(수) 덕수궁 돈덕전에서 열린 광복 80주



DMZ미래길 걷기대회에 참가한 정치외교학과 동창들

년 특별전 ‘빛을 담은 항일 유산’ 전시와 덕수궁 국립현대미술관 광복 80주년 기념 전시회 ‘향수, 고향을 그리다’ 전시를 관람했다.

돈덕전 전시회에는 구혜정(71) 동창이 서울 옥션 경매에서 낙찰받은 안중근 의사의 <녹죽> 유목이 전시되었다. <녹죽>은 굳건한 절개와 지조를 상징하는 글귀로 안중근 의사가 평생 마음속에 깊이 새겨온 사상과 정신을 잘 드러내는 작품이다.

11월 1일(토) 제13회 DMZ미래길 걷기대회에 참가했다. 사단법인 DMZ미래연합이 주최한 이번 행사는 리비교 역사공원에서 출발해 평화누리길 9코스과 울곡수목원을 걷는 코스로 진행됐다. 리비교는 한국전쟁 당시 미군이 건설한 유일한 교량으로 전쟁의 상흔과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장소이다. DMZ미래연합 상임대표 이춘호(69) 동창은 “이 길은 단순한 걷기대회의 길이 아니라 분단의 아픔을 넘어 평화와 화해, 공존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희망의 길”이라고 말했다.

행정학과

회장 __ 임복희(93)

창설 44주년 기념행사 개최

행정학과 창설 44주년 기념행사가 11월 13일(목)



‘행정인의 밤’ 행사에 참석한 행정학과 동창 및 재학생들

18시 모교 ECC B4 이삼봉 홀에서 열렸다. 제45대 학생회 강승연(23학번)·김영민(23학번) 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제1부는 이근주 학과장의 개회사, 임복희 회장의 축사, 이진아(21) 변호사의 강연으로 시작되었다. 이진아 동창은 ‘행정학도가 걷는 변호사로서의 길’ 이야기를 통해 법조인을 희망하는 많은 재학생들의 도전을 응원했다.

석식과 더불어 이어진 2부는 정은영(96) 국민은행 상무와 최정빈(18) 국회 선임비서관이 각자의 직업 세계 이야기를 통해 재학생들에게 인사이트를 주었고, 퀴즈 및 행운권 추첨, 행정학과 동창회에서 마련한 소정의 기념품 증정으로 마무리하였다. 약 100여 명의 참석자들은 앞으로 행정학과의 힘찬 행보를 기원하였다.

사회학과

회장 _ 엄명숙(83)

김은미 전 총장, 이사장으로 공식 취임

김은미(81) 전 모교 총장이 10월 28일(화) 학교법인 이화학당 이사장으로 공식 취임했다. 김 이사장은 사회학과 동창으로서 총장·대학원장·국제대학

원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하며 이화의 발전을 이끌어온 바 있다.

취임식에서 김은미 이사장은 이화의 역사와 여성 교육의 역할,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취임사를 전했다. 이날 참석한 주요 내빈도 김 이사장의 취임을 축하했으며, 그중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김 이사장의 글로벌 역량과 기여에 대해서 큰 지지를 보냈다.

또한 많은 사회학과 동창들이 함께 자리해, 학과 출신 리더의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따뜻한 응원의 시간을 나눴다.



김은미 전 총장의 이사장 취임 축하하는 사회학과 동창회

사회복지학과

회장 _ 김혜영(87)

장학금 기금 전달식

김판숙(58) 동창이 모교에 장학금 1억 원을 기탁하였다. 11월 28일(금) 오후 3시 모교 본관 접견실에서 이향숙 모교 총장, 최윤정 대외협력처장, 박은영 대외협력처 부처장, 한인영(72) 명예교수, 조영민 학과장, 노충래·전종실 교수, 김혜영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금 전달식이 있었다. 같은 날 오후 4시에 사회복지학과 동창회가 학과 후배 해외 연수 지원을 위한 장학금 500만 원을 전달하는 기



'2025 후배사랑 장학금'을 모교에 전달한 사회복지학과 동창회(오른쪽에서 네 번째는 장학금 1억 원을 기탁한 김판숙 동창)

금 전달식을 가졌다.

생명과학과

회장 __ 황유경(89)

주도적인 미래 설계를 향한 EBB 멘토링

생명과학과의 산업 연계 멘토링 프로그램 '이화 바이오브릿지(Ewha Bio Bridge, EBB)'가 11월 21일(금) 모교 종합과학관에서 올해 활동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EBB는 생명과학과 졸업생(멘토)과 재학생(멘티)이 학업·진로·커리어 전반에 대해 소통하며 선순환의 성장과 연결을 추구하는 학과·동창 협력 프로그램이다. 올해로 4기를 맞이했으며, 학과의 협업과 동창회의 운영을 뒷받침하여 진행되고 있다.

이번 활동에는 동창 멘토단의 ▲황유경(89, 주식회사CTX 대표이사), ▲황유선(15, LG화학생명과학본부 책임연구원), ▲이다예(15, 이화여대 박사후연구원) ▲강예희(20, LG화학생명과학본부 선임연구원) 동창이 참석하여, 멘토로서 재학생들의 커리어 설계와 진로에 대해 조언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5월, 멘토링 프로그램을 시작하며 재학생들은 '10년 후 나의 하루'라는 주제로 각자의 관심 분

야와 진로를 바탕으로 커리어를 쌓아 나가는 자신의 미래 모습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약 6개월 동안 동창 멘토와 그룹/개별 멘토링, 기업 탐방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여 더욱 풍부하고 구체적인 진로 탐색과 설계의 시간을 보냈다. 이에 따라 이번 활동에서는 그동안의 활동을 바탕으로 '10년 후 나의 하루'에서 확장된 '10년 후 나의 이력서'를 작성하여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재학생들은 각자 작성한 '이력서'를 동창 멘토들에게 조언을 받아, 수정 및 보완을 거쳐 발표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재학생들은 프로그램 참여 전·후의 달라진 자신의 미래 진로에 대한 관점과 학업 및 진로 목표에 대해 이야기하며, 10년 후 커리어 계획을 발표했고, 프로그램을 통해 막연하게 생각했던 졸업과 진로를 진지하게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며, 다양한 경험과 탐색을 통해 열정을 가질 수 있는 커리어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현했다. 또한, 프로그램을 참여하면서 도전에 나아갈 용기와 자신감을 얻었고, 전공과 진로에 대한 시야를 넓히면서 자신만의 커리어를 설계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재학생들은 전했다.

동창 멘토단은 '한번 멘토-멘티는 영원한 멘토-멘티'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멘토링이 끝나도 끊임

제4회 EBB 프로그램 수료식에 참석한 생명과학과 재학생과 동창들



없이 선배들과 소통하면서 각자의 빛나는 미래를 설계하고, 'Bridge'의 뜻처럼 경험과 노하우를 다시 미래의 후배들에게 전하는 지속적인 연결을 이어가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활동의 마지막에는 우수 이력서를 발표한 학생과 가장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학생들을 동창 멘토단이 선정하여 우수 멘티상을 수여했다. 아울러 참여한 동창 멘토단에게도 학과에서 발급한 멘토 인증서가 전달됐다. 올해로 4기를 맞는 EBB는 동창과 재학생의 적극적인 참여로 학업과 커리어 확장 그리고 동창 네트워킹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갈 예정이다.

사이버보안학과

회장 __ 김연희(21)

동창회보《사이사이》첫 발간

8월 29일(금) 사이버보안학과 동창회의 첫 동창회보 《사이사이》가 발간되었다. '사이사이'는 '사'이버보안과 '이'화의 '사이'라는 뜻으로, 사이버보안학과 동창들을 대상으로 한 공모를 통해 선정된 이름이다.



사이버보안학과 동창회의 첫 동창회보 《사이사이》

김연희 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사이버보안학과가 소속된 인공지능대학의 이은영(컴공 85) 동창회장과 사이버보안학과와의 첫걸음부터 함께한 도인실(컴공 93) 교수의 축하글이 실렸다. 또한, 동창들과 학과의 근황을 담은 다양한 소식이 이어졌다.

《사이사이》는 앞으로 연 1회 발간될 예정이다.

서양화과

회장 __ 안혜리(91)

이화가족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 심사

9월 27일(토)에 열린 '제11회 이화가족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에 안혜리 회장이 조형예술대학 동창회의 이승은(동양 89) 현 회장과 강승주(조소 87) 전임 회장과 함께 심사위원 3인에 위촉되어 심사와 시상에 참여하였다.

조형예술대학 주최로 5년마다 열리는 동창전인 '녹미전'에 서양화과 동창 20명이 참가하였다. 이번 녹미전은 10월 21일(화)부터 25일(금)까지 이화아트센터와 이화아트갤러리, 대산갤러리에서 열렸다. 서양화과의 참가자는 김도연(25)·김수현(07)·김지은(91)·김효선(92)·나인하(91)·박지윤(25)·박형주(91)·신혜심(86)·안혜리(91)·이경순(50)·이종영(75)·임형순(97)·장수임(92)·정선주(94)·정화영(01)·조기주(79)·조상은(93)·주경숙(87)·차명임(82)·한남주(92) 동창이다(가나다순).

11월 24일(월) '2025 이화인의 밤'에 안혜리 회장, 나인하·장수임 부회장, 정선주 총무이사, 조상은 서기이사, 정혜나(94) 재무이사 등의 임원진과 이종영 동창이 참석하였다. 또한 2025년 서양화 전공 졸업 전시 'Swing-by: 항해의 시작'이 11월

'이화인의 밤' 행사에 참석한 서양화과 동창회 임원진



25일(화)부터 30일(일)까지 모교 조형예술관 3층에서 열렸다. 서양화와 동창회 대표로 정선주 총무이사가 참석하여 축하의 뜻을 전하였다.

조소과

회장__김 연(91)

녹미전에 21명 동창 작품 전시

조소과 동창회가 재학생과 동창 작가들의 전시·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ESArts Award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2026 'ISF 국제조각페스타' 제2차 작가 회의가 9월 7일(일) 모교 조형예술관 조소과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김 연 회장과 임원진, 선정 작가들이 참석하여 작품 성향을 공유하고 전시 공간 구성, 인쇄 홍보물 제작, 작가 소개 영상 기획 등 전시 준비를 위한 주요 실무 사항들을 논의하였다. (참석자: 김연(91), 오수연(98), 이말용(98), 김순임(02), 손혜경(03), 조재영(03), 이수원(12), 김보경(19), 도정윤(24))

9월 23일(화) 총동창회의 주최로 개최된 대바자회에서 오주연(90) 전 회장을 중심으로 윤 영(90)·신혜용(94)·유선영(00)·윤수진(01)·이수원(12)·이우현(15) 동창이 참여하여 빈티지 소품, 가죽공예, 액세서리, 건강식품 등 다양한 구성으로 나눔의 장

에 함께하였다. 이번 바자회는 동창 간의 교류뿐 아니라 학생들과의 소통의 장이 되어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10월 21일(화)부터 25일(토)까지 이화아트센터, 이화아트갤러리, ECC 대산갤러리에서 조형예술대학 동창회의 정기전인 '녹미전'이 개최되었다. 가을빛이 물든 교정을 배경으로 열린 전시에는 조소과 동창 21명이 참여하여 다양한 조형 언어를 담은 작품을 선보였다. 이번 녹미전은 오랜만에 캠퍼스를 찾은 동창들에게 따뜻한 만남의 장이 되었으며, 전시장을 찾은 많은 이들에게도 의미 있는 경험을 선사하였다. (참여 작가: 고혜숙(77), 이정미(85), 강선희(87), 강승주(87), 김정연(89), 오주연(90), 원영은(90), 김 연(91), 이윤정(91), 손정은(92), 이은이(92), 박은선(98), 차경화(00), 김순임(02), 김보경(19), 강나운(24), 김은영(24), 도정윤(24), 안세진(24), 김현정(25), 서술아(25))

11월 4일(화) 한택식물원과 호암미술관으로 가을 야유회를 다녀왔다. 청명한 가을빛 속 숲길을 함께 걸으며 동창들은 오랜만에 근황을 나누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다. 호암미술관에서는 현대미술의 거장 루이스 부르주아의 대규모 회고전을 감상하며 다양한 예술적 대화를 나누었다. 자연과 예술이 어우러진 일정은 동창들에게 작은 휴식이자 영감의 시간이 되었다. 이번 야유회는 동창 17명이 함께한 따뜻한 자리로, 조소과 동창들의 유대감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호암미술관을 찾은 조소과 동창들



섬유예술과

회장__이상영(94)

예미 회장단 회의 및 이화인의 밤 참석



'이화인의 밤' 행사에 참석한 섬유예술과 동창들

9월 13일(토) 오전11시 30분 압구정 오미가에서 후반기 활동 계획 중 총동창회 대바자회 및 동문전인 제10회 예미전 준비, 녹미전 참여, 이화인의 밤 참석, 조형대학 졸업 전시 참석을 위해 섬유예술과 회장단이 모여 회의를 하였다. 또한, 임원진의 상반기 각 부 활동 보고 및 총평, 중간회계 보고가 있었다. (참석자: 이효범(61), 김혜순(66), 오복환(66), 이상복(67), 윤귀영(71), 장영란(77), 박정례(79), 전영선(88), 이상영(94))

후반기 활동들을 위해 회장단에서 바자회 물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해 주었고, '이화인의 밤' 티켓을 사주는 한편, 원로 작가로 녹미전에 참여하였다. 적극적으로 술선수범하는 선배들의 섬유예술과에 대한 깊은 사랑과 관심을 볼 수 있었다.

장식미술과 - 공간디자인전공

회장 __ 이경수(92)

대바자회에서 추석맞이 상품 판매

9월 23일(화) 총동창회 대바자회에서 주다소반, 주전부리 및 송편 등 추석맞이 상품을 판매하였다. 온라인 사전 판매와 현장 판매를 통해 많은 동창들의 관심을 받았고, 좋은 결과를 얻었다.

11월 24일(월) 6시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



바자회장을 찾아준 장식미술과-공간디자인전공 동창들

르나스 호텔에서 열린 '2025 이화인의 밤' 행사에 참석한 동창들은 선·후배 동창들과 함께 담소를 나누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장식미술과 - 패션디자인전공

회장 __ 한정아(96)

세대를 아우르는 녹미전 참여

9월 23일(화) 총동창회 대바자회가 열렸다. 동창 브랜드들의 활발한 참여 속에 와인, 친환경 식기류, 고급 식품 및 화장품 등을 소개하며 동창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10월 21일(화)부터 25일(토)까지 '녹미전'이 개최되었다. 패션디자인전공에서는 1988년 졸업 동창부터 2025년 졸업 동창까지 12명의 동창이 참여하여 세대를 아우르는 작품 세계를 선보였다. 박선희

대바자회에 참여한 장식미술과-패션디자인전공 동창들



(88)·신영선(88)·이예선(88)·이재민(00)·신혜정(02)·김혜림(04)·이규원(04)·이혜선(06)·강현주(21)·김정민(22)·장자원(23)·박서영(25) 동창이 함께한 뜻깊은 전시였다.

11월 21일(금) 오후 7시, 이화여대 정문 운동장에서 재학생들의 졸업 작품 발표행사인 '2025 PRE-MIER EHWA FASHION COLLECTION'이 개최되었다. 패션디자인전공 동창회는 후배들의 성공적인 졸업 전시를 응원하며 100만 원을 후원했다.

도예과

회장__정호정(90)

'녹미전'에 최다 인원 참가

9월 23일(화) 총동창회 대바자회에 도예과 대학원 재학생들이 참가하여 다양한 도예 소품을 제작·판매하며 뜻깊은 행사에 함께하였다.

10월 21일(화)부터 25일(토)까지 열린 녹미전에 도예과 동창들이 대거 참여하여 전시의 열기를 더했다. 전시 개막식에서는 선배 동창의 축하에 이어 도예과 고은비(24) 동창의 답사가 진행되었다. 녹미전에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한 도예과의 활발한 활동에 동창들의 많은 응원이 이어졌다.

녹미전에 참가한 도예과 동창들



11월 24일(월)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열린 '이화인의 밤' 행사에는 유혜자(생미 67) 명예교수, 김미경(87)·김지혜(91) 교수 등 도예과 교수진을 비롯하여 역대 도림회장단과 현 임원들이 함께 참석하였다. 세대와 기수를 아우르는 뜻깊은 조우가 이뤄지며 화합의 장이 마련되었다.

무용과

회장__한명옥(79)

'2025 무용과 친선골프 대회' 개최

무용과 동창회는 동창들의 친목과 화합을 위한 행사인 '2025 무용과 친선골프 대회'를 9월 15일(월) 강원도 홍천에 위치한 클럽 모우CC에서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는 무용과 7기(1973년 졸업)부터 43기(2009년 졸업)까지 폭 넓은 세대의 동창들이 38명 규모로 참가해서 기량을 뽐내고 동창 간 우의를 다졌다. 골프대회에서는 우승, 준우승, 룡기스트, 니어리스트, 배꽃상, 베스트 포즈상 등 6개 부문의 상이 상금과 함께 시상되었다.

무용과 동창회는 '골프분과 위원회'를 두고 매년 친선골프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친선골프대회에 참가한 무용과 동창들



가정관리학과

회장__이향진(87)

60주년 기념 송년회 행사

12월 2일(화) 몬드리안 서울 이태원 호텔에서 53명의 동창이 참석한 가운데 '가정관리학과 60주년 기념 송년회' 행사를 가졌다. 68학번부터 00학번까지 가정관리학과 졸업생과 현직 아동학과 한세영(94)·신나나(대학원 00)·이운경(03) 교수도 참석해 가정관리학과 송년회 자리를 빛내 주었다.

김숙희(가정 60) 명예교수, 박경임(식영 73) 아령 회장, 이재희(69) 1대 이가회장, 이경희(70) 2대 이가회장, 김상희(81) 전 이가회장의 축하 메시지와 축하 케이크 커팅과 광인숙(72) 동창의 건배사가



60주년 행사에 참석한 가정관리학과 동창들

이어졌다. 2부에서는 한경아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 교수의 진행으로 친교의 시간을 가지며 송년회를 즐겼다.

가정관리학과 60주년을 계기로 가정관리학과 동창회의 더 큰 발전을 기대하는 행사였다.

이화 사랑의 힘, 연회비와 평생회비 납부로 보여 주세요



■ 이화동창 평생회비

30만 원-2026년 기준 만 60세 이상(1989년 이전 졸업 동창)

50만 원-2026년 기준 만 60세 미만(1990년 이후 졸업 동창)

평생 한 번 납부, 평생회비 납부자는 연회비 면제

■ 이화동창 연회비 금액

3만 원-1년에 한 번 납부

■ 납부 방법

지로 입금 : 《이화동창》에 동봉한 지로용지를 통해 납부

계좌 이체 : 신한은행 100-009-592614(예금주:이명경 이대총동창회)

※ 송금시 성명, 학과, 졸업연도를 꼭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예:김이화영문80)

■ 문의

총동창회 사무국 전화: 02-3277-3386~7

E-mail : ewhaalum@ewha.ac.kr

동 창 이 퍼 낸 새 책



크리스마스 카드 한 장

최자영(기독 66)

최자영 글, 가족 그림 / 시간의 물레

최자영 동창이 동화집 『크리스마스 카드 한 장』을 출간하였다. 성탄을 기다리는 어린이들의 설렘이 그대로 손에 잡힐 듯 재미있고 감동적인 작품들로 채워져 있으며 작가의 가족들의 그림이 함께 담겨 있다. 2025년 이화문학상 수상작이다.



한 걸음 더 다가간 이화 의료 이야기

이자형(간호 70)·임선영(의학 82)·유경하(의학 84)·강덕희(의학 88)·김영주(의학 88)·심기남(의학 92)·홍연주(사학 02)·전혜진(의학 05)·박세련(교공 15) 이화의료원 역사편찬위원회 지음 /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이 책은 2022년 발간된 『이화 의료 이야기』의 속편 같은 책이다. 보구녀관, 볼드윈진료소, 릴리안해리스기념병원, 이대동대문병원 등 이화 의료 역사 속 주요 기관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인물들의 삶과 기억, 제도와 공간, 그리고 시대별 변화 속에 깃든 이화 의료의 정신을 풍부하게 담아내고 있다.

다시, 적기교육

이기숙(유교 72)·강숙현(유교 86)·강민정(유교 87)·강수경(유교 89) 이기숙·강숙현·강민정·강수경 지음 / 글담출판

유아교육과 명예교수 이기숙 동창이 제자 강숙현·강민정·강수경 동창과 공저 『다시, 적기교육』을 발간하였다. 선행학습과 사교육 유혹에 흔들리는 부모를 위한 책으로, 적기에 시작하는 유아교육의 놀라운 힘을 주제별로 강조했다.



고혜련의 지구촌 인문 산책

고혜련(국문 76)

고혜련 지음 / 제이커뮤니케이션

여행 마니아인 저자가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인류의 역사와 철학·예술에 현세까지 깊은 영향을 전달한 위대한 인물들과 장소들을 엄선했다 소개한 책이다. 특히 청소년 자녀들과 함께 읽고 가족 여행을 떠나면 여행의 의미와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리전 글리클럽

양선희(교육 87)

양선희 지음 / 독서일가

양선희 동창이 장편소설 『리전 글리클럽』을 펴냈다. 『리전 글리클럽』은 이화여전 합창단이라는 뜻으로, 소설은 1927년부터 1935년까지 실재했던 '이화여자전문학교 음악과 글리클럽'을 조명한다. 소설은 사실과 상상력을 교차시키며 일제강점기 '조선 신여성'의

민요합창' 신드롬을 일으킨 이화여자전문학교 합창단 이야기를 통해 근대 조선 여성들의 고통과 희망, 우정 등을 되살렸다.



엄마의 갈대상자

이지남(장미 97)

이지남 지음 / 규장

(주)52마켓 대표 이지남 동창이 『엄마의 갈대상자』를 펴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아들을 갈대상자에 담아 강물에 띄웠다. 그 믿음은 모세를 훗날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웠다. 오늘을 사는 부모들이 어떻게 담대히 갈대상자를 준비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답을 찾고자 펴낸 책이 바로 『엄마의 갈대상자』이다.

이지남 동창은 구독자 10만 명의 〈지난밤 성경공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육시설 아동과 자립준비 청년을 돌보는 52패밀리 사역도 감당하고 있다.



우주를 짓다

윤주연(건축 05)

윤주연 지음 / 헤이박스

건축가인 윤주연 동창이 집을 짓고 싶어하는 건축주의 만남부터 시작, 집이 완성될 때까지의 이야기를 구체적이고 친근한 목소리로 풀어냈다. 한 가족의 하루, 일 년, 생애를 생각하며 서로 대화하고 협의하며 한 번의 맞춤 같은 집을 짓는 과정을 때로는 드라마처럼 흥미롭고 때로는 건축학 개론처럼 알차게 표현했다.



김선향(영문 66) 동창

북한대학원대학교 이사장 김선향 동창의 시집 『So Long』이 2025년 오르페우스 텍스트 ‘올해의 책’에 선정되어 10월 28일(화) 경남대 극문문제연구소 1층 대회의실에서 시상식이 있었다.



김선향 동창

김혜순(섬예 66) 동창

경주에서 열린 APEC 정상회담 홍보영상에 국가무형유산 매듭장 보유자인 김혜순 동창과 그의 작품이 소개되었다. 김혜순 동창은 정상회의 공식 엠블럼인 ‘나비’의 의미를 매듭공예로 구현했다.



김혜순 동창

원문자(동양 66) 동창

모교 명예교수 원문자 동창의 개인전이 11월 16일(일)부터 12월 14일(일)까지 열렸다. 이천시립 월전미술관의 초대로 열린 이 전시는 전통성과 현대성을 아우르는 한국화 작업을 지속해 온 원문자 동창의 작품 세계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원문자 동창

정미령(교육 66) 동창

10월 13일(월)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제10차 세계한인여성대회에서 교육 부문 세계화 공로대상을 받았다. 1985년 영국 옥스퍼드대 심리학부 연구전담교수로 발탁된 정미령 동창은 2012년 68



정미령 동창

세에 정년퇴임한 이후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옥스퍼드대 종신 명예교수가 되었다.

유중근(영문 67) 동창

10월 27일(월)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대한적십자사 창립 120년 기념 행사에서 유중근 동창이 나눔문화 확산에 평생을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훈하였다. 약 40년 동안 기부를 이어온 유중근 동창의 개인 누적 기부액은 60억 5,657만 원에 이른다.



유중근 동창

한경자(캐서린 한, 영문 67) 동창

11월 19일(수) 광화문 교보생명빌딩 23층 대산홀에서 열린 제27회 교보교육대상 시상식에서 참사람 육성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한경자 동창은 2006년에 한국 NVC센터를 설립해 교육현장과 사회 각계에 공감과 존중의 가치를 전파해왔다.



한경자 동창

강승애(서양 72) 동창

11월 5일(수)부터 10일(월)까지 인사1010갤러리에서 ‘아프리카 말라위-메마른 땅, 맨발의 어린이가 돕기 미술 자선전’을 개최했다. 이번 전시를 통해 총 4,300만 원을 말라위 어린이 후원금으로 기부했다.



강승애 동창

박재희(무용 72) 동창

국가무형유산 태평무보존회 기획공연 〈이야기와 춤

사위로 풀어내는 태평무》를 9월 13일(토) 서울 강남구 한국 문화의 집 코우스(KOUS)에서 개최했다. 또한 'M극장 Revival 프로젝트' 중 명인명무전의 맥을 잇는 기획 'REmember M'에 초청되어 9월 16일(화)부터 17일(수)까지 <태평무>를 직접 공연했고, 20일(토)에는 태평무보존회의 공연을 개최했다.



박재희 동창

허영일(무용 72) 동창

11월 7일(금)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한 '2025년 문화예술발전 유공 시상식'에서 화관 문화훈장을 수여 받았다. 허영일 동창은 전통춤 복원·무용국제교류 및 전문무용인 양성의 공로를 인정받아 화관 문화훈장 수여자로 선정되었다.



허영일 동창

이미자(의직 74) 동창

11월 7일(금)부터 8일(토)까지 궁중음식문화재단이 주관하는 한식예술장인 작품전이 궁중음식문화재단

낙선재에서 열렸다. 또한 11월 7일(금) 한식예술장인 인증서 수여식에서 찬품·주식장 인증서를 받았다. 이미자 동창은 한국의 맛을 담은 섬세한 60여 가지 죽을 전시하였다.



이미자 동창

장필화(영문 74) 동창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장필화 동창이 제18회 의암주논개상에 추대자로 선정됐다. 추대식은 10월 22일(수) 전북 장수군 한누리전당에서 열리는 의암 주논개 탄신 제451주년 기념 의암 주논개 제전에서 거행되었다.



장필화 동창

김선호(서양 75) 동창

10월 31일(금)부터 11월 4일(화)까지 진주여류작가회원전의 초대로 경남문화예술회관에서 '설레는 날'이란 주제로 누드 드로잉 20점과 유화 40점을 선보였다.



김선호 동창

『이대동창문인회 작가 대표작품선집』 출판기념회와 문학상 시상식

11월 20일(목) 모교 이화·삼성교육문화관 806호에서 이대동창문인회(회장 김현숙(영문 69, 시인))가 발간한 『이대동창문인회 작가 대표작품선집』 출판기념회와 이화문학상, 이화재학생 문학상 시상식이 열렸다. 올해 발간한 대표작품선집은 1993년 발행된 『이화동창 문인자료집』 이후 32년 만에 펴낸 것이다. 제38회 이화문학상 수상자는 아동문학가 최자영(기독 66) 동창으로, 수상작은 『크리스마스 카드 장』이다. 최균희 이화문학상 심사위원(아동문학가, 한국여성문학인회 이사장)은 "성탄을 맞이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사랑의 선물"이라는 심사평을 했다.

제3회 이화재학생 문학상은 시 부문에 239편, 산문 부문에 47편(소설 28편, 수필 19편) 총 286편이 접수되었고 심사는 박덕규(소설가, 문학평론가)·이승하(시인, 중앙대 교수) 작가가 맡았다. 예심과 본심을 거쳐 대상 1명(정다운(시)), 최우수상 1명(서지우(수필)), 우수상 5명(유아린(시), 정 준(시), 임서진(소설), 전수현(수필), 최현서(수필))이 당선되었다.



이종영(서양 75) 동창

10월 12일(일)부터 11월 27일(목)까지 47일간 평창동 작업실에서 오픈 스튜디오 전시 'Welcome to Joy's World! III'를 열었다. 작업실 전 공간을 개방하여, 여러 평면 작업과 다양한 설치 작업을 선보였다.



이종영 동창

손인숙(섬예 76) 동창

11월 8일(토) 프랑스 루브르박물관 자비에르 살몽 부관장이 예원실그림갤러리를 방문하여 손인숙 동창의 작품들을 감상하였다. 11월 29일(토) 오렐리 사무엘 루이비통 보존이사가 방문하여 손인숙 동창의 작품 도록 제작 관련 회의를 가졌다. 한편 12월 9일(화)부터 13일(토)까지 백련사 불일미술관에서 '전통 예술과 정신문화'라는 주제로 전시를 가졌다.



손인숙 동창

신경림(간호 76) 동창

대한간호협회 회장 신경림 동창이 '제50회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기



신경림 동창

장'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수상 축하연은 10월 29일(수)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되었다.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기장'은 세계 최고 권위의 간호상이다.

전수용(영문 76) 동창

솔 벨로의 『험볼트의 선물』을 번역한 전수용(한국문화번역원 원장) 동창이 제19회 유명번역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시상식은 11월 13일(목) 연세대 동문회관에서 거행되었으며 상패와 상금 1,000만 원이 수여되었다.



전수용 동창

배혜화(불문 77) 동창

제22회 서울국제사랑영화제의 조직위원장을 맡아 10월 29일(수)부터 11월 2일(일)까지 모교 ECC 영산극장과 필름포럼 영화관에서 총 18편의 영화 상영과 토크 등 관련 행사들을 성황리에 진행하였다.



배혜화 동창

김미옥(김나영, 철학 78) 동창

9월 27일(토) 안동문화예술의전당 옹부홀에서 아리

의과대학 동창 14인, '이화 새시대 발전기금' 1억 7,000만 원 기부

의과대학 동창 14인(조종남(의학 75)·윤석완(의학 76)·오혜숙(의학 78)·전희숙(의학 79)·임선영(의학 82)·한복순(의학 83)·피상순(의학 84)·김성희(의학 87)·최현주(의학 87)·하은희(의학 87)·김영주(의학 88)·조지희(의학 88)·박혜영(의학 89)·양훈진(의학 95) 동창)이 모교에 '이화 새시대 발전기금'으로 1억 7,000만 원을 기부하였다. 본 기금은 이화글로벌사회공헌원을 중심으로 통합적 사회공헌과 지역 상생 전략을 실천하는 각종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기금전달식은 11월 4일(화) 모교 본관 접견실에서 있었다. 기부자를 대표해 윤석완 성완산부인과 원장, 오혜숙 오혜숙산부인과 원장, 임선영 임선영산부인과 원장, 피상순 안산우리정신건강의학과 원장, 김영주 이화여대 의학과 교수, 하은희 이화글로벌사회공헌원장, 박혜영 힘찬병원 이사장이 참석했다. 모교에서는 이향숙 총장, 박정수 연구·대외부총장, 최윤정 대외협력처장, 박은영 대외협력처 부처장이 참석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예술단(대표 겸 예술감독 김나영) 주최·주관 <신령한 탈 이야기-하회> 공연이 개최되었다.

김경옥(불문 80) 동창

김경옥 동창이 해외 프로듀서로 참여한 영화 <피렌체>가 10월 4일(토, 현지 시간) 미국에서 열린 '글로벌 스테이지 할리우드 영화제' 시상식에서 작품상·감독상·각본상을 수상하며 3관왕에 올랐다.



김경옥 동창

김옥광(섬예 80) 동창

10월 19일(일) 어린이대공원 열린 마당 인근에서 '재활용 미술' 개인전과 재활용 미술 무료체험 프로그램 부스전을 개최하였다. 행사는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지원과 광진 문화재단의 초대를 받아 이루어졌다.



김옥광 동창

신현숙(동양 81) 동창

신현숙(보나) 동창이 9월 16일(화)부터 10월 12일(일)까지 서울 서초구 아트 스페이스 엑스에서 개인전 '찰나에서 영원으로(Fleeting to Eternal)'를 가졌다.

이화원(불문 81) 동창

문화예술전문 사회적기업 '경계없는예술센터' 대표 이화원 동창이 단체 창립 20주년 기념 2인극 시리즈 <어떤 내기>의 각색과 제작을 맡아 12월 12일(금)부터 14일(일)까지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에 위치한 스페이스T에서 공연하였다.



이화원 동창

류시숙(서양 82) 동창

11월 1일(토)부터 14일(금)까지 대구시 수성구에 위치한 G갤러리에서 미협 초대 개인전 '그리움의 숨결'을 가졌다.



류시숙 동창

이영미(서양 82) 동창

10월 13일(월)부터 18일(토)까지 러시아 올란우데에서 열린 한국 현대 작가들의 국제 미술 교류전에 참가하였다.



이영미 동창

양은숙(도예 83) 동창

10월 10일(금)부터 19일(일)까지 서울 종로구 부암동 하랑갤러리에서 개인전 '소소한 풍경'을 가졌다. 작은 풍경 속에서 미소와 위안을 건네는 작품들을 선보였다.

염선행(생미 83) 동창

10월 21일(화)부터 11월 20일(목)까지 공군교육사령부 학술정보관에서 공군교육사령부의 초대로 15번째 개인전 '바람이 보인다'를 개최하였다. 전시 첫째날은 군악대 공연과 함께 호수공원에서 야외 전시로 시작되었다.



염선행 동창

박은라(동양 84) 동창

9월 3일(수)부터 8일(월)까지 인사아트센터 5층 경남갤러리에서 '민들레 홀씨 여행'이라는 제목으로 40번째 개인전을 가졌다.



박은라 동창

김성숙(간호 85) 동창

9월 30일(화) 이화 웨스트 캠퍼스 건립을 위한 '간호 과학관 건축기금'으로 10만 달러(한화 약 1억 4,000만 원)를 기부하였다.

염미연(사회 85) 동창

11월 3일(월) 경기 화성시여성가족 청소년재단 신임 대표이사로 공식 취임했다. 염미연 동창은 국가청소년위원회 상담자활 팀장과 보건복지가족부 청소년 상담자활 과장,



염미연 동창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경기인천강원 지역 본부장을 역임했다.

윤 선(조소 85) 동창

10월 22일(수)부터 11월 5일(수)까지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e.jung 갤러리에서 제23회 개인전을 개최하였다.



윤 선 동창

김복만(동양 86) 동창

9월 24일(수)부터 29일(월)까지 경인미술관에서 개인전 '어느날의 풍경 이야기'를 개최하였다. 김복만 동창은 "풍경은 그 안에 머물렀던 모든 순간과 이야기를 기억하는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김복만 동창

김곡미(생미 87) 동창

11월 14일(금)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KFDA) 30주년 기념 시상식에서 'Outstanding Contribution Award(공로상)'을 수상했다. 충남 콘텐츠진흥원 원장으로 재직 중인 김곡미 동창은 40여 년 경력의 콘텐츠 전문가로 다양한 혁신정책을 추진해왔다.



김곡미 동창

하은희(의학 87) 동창

11월 26일(수) 하은희 동창이 원장으로 있는 이화글로벌사회공헌원이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케냐 카지아도주 전문의료센터 구축 PMC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총 5년간이며, 전체 규모는 47억 8,000만 원이다.



노혜신 동창

노혜신(도예 88) 동창

11월 13일(목)부터 30일(일)까지 갤러리 솔루나리빙에서 개인전

'Dream in Repetition'을 가지고, 다양한 오브제와 테이블웨어를 선보였다.

박 현(정외 88) 동창

11월 13일(목)부터 16일(일)까지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어포더블 아트 페어에 참가하여 행사 첫날 출품한 작품 4점 모두 아트 콜렉터들에게 판매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박 현 동창은 홍콩에서 현대적 창작민화와 전통재현민화 활동을 하고 있다.



박 현 동창

윤선흥(동양 88) 동창

10월 28일(화)부터 11월 15일(토)까지 청담동의 갤러리두에서 개인전 '빛이 좋아'를 가졌다. 윤선흥 동창은 "단순한 정물이나 풍경이 아닌 작가의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메시지를 표현한 심상의 빛"이라고 설명했다.



윤선흥 동창

조지희(의학 88) 동창

9월 19일(금) 모교에 '의과대학 연구기금' 1억 원을 기부하였다. 조지희 동창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현재 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의과대학 동창회 수석 부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김선주(서양 89)·박현우(서양 89) 동창

11월 1일(토)부터 30일(일)까지 여수 아트더힐 갤러리에서 2인전 '여인의 향기'를 가졌다. 전시 제목처럼 두 동창은 삶 곳곳에 배어 있는 은은한 온기를 회화에 담았다.

이영선(생미 89) 동창

10월 14일(화)부터 25일(토)까지 인천 중구에 위치한 북살롱 서당재에서 뜨개 전시회를 개최했다. 한편, 전시 공간인 북살롱 서당재는 이에



이영선 동창

정 동창(사교 86)이 운영하는 문화공간이다.

이인경(동양 89) 동창

10월 29일(수)부터 11월 24일(월)까지 평택 프리퍼갤러리에서 개인전 '카이로스'를 개최하였다. 이인경 동창에 의하면 카이로스는 특별한 시간, 의미 있는 시간을 뜻한다.



이인경 동창

이정원(조소 89) 동창

10월 30일(목)부터 11월 2일(일)까지 대구 엑스코 동관에서 개최된 대구국제아트페어(DIAF)에 참가하였다.



이정원 동창

김수진(서양 90) 동창

10월 15일(수)부터 27일(월)까지 갤러리 너트에서 'Resonance'라는 제목으로 다양한 선인장을 소재로 개인전을 개최했다. 김수진 동창은 현재 서울예술고등학교에 출강하고 있다.



김수진 동창

김영래(피아노 90) 동창

'제27회 교보교육대상'에서 창의인재육성 부문 대상을 수상하였다. 김영래 동창은 신일중학교에서 음악교사로 재직 중이다.



김연 동창

김연(조소 91) 동창

11월 23일(일)부터 12월 9일(화)까지 '고요한 빛'이라는 주제로 갤러리 에포크에서 개인전을 개최하였다.



임석아 동창

임석아(의학 91) 동창

서울대혈액내과 교수로 재직 중인 임석아 동창이 11월 12일(수) 클래식 배이트 'Highly Cited

Researcher 2025' 발표에서 '세계 상위 1% 연구자'로 선정되었다. 한국에서는 총 12인이 선정되었다.

박레지나(섬예 92) 동창

10월 11일(토)부터 25일(토)까지 244아트스페이스 II관에서 초대전 'Nostalgia'를 가졌다. 박레지나 동창은 로마 페라렐레 크리스마스 에디션 공모전 1등을 수상한 바 있다.

이은이(조소 92) 동창

11월 6일(목)부터 12월 3일(수)까지 '흐르는 공간'이라는 주제로 아트필드 갤러리 2관에서 개인전을 개최하였다.



이은이 동창

강진명(도예 93) 동창

9월 18일(목)부터 10월 2일(목)까지 갤러리 아뜰리에 키마에서 개인전 'GRATIA ZINCUM'을 가졌다. 눈꽃이 내려앉은 듯한 아연 유약의 결정 위에 은 장식이 더해져 독특한 미감을 보여주었다.



강진명 동창

임복희(행정 93) 동창

11월 27일(목) 도봉구민회관 공연장에서 2025 편지낭독 콘서트를 기획·섭외 및 공연하였다. <오페라 속 편지 이야기: 사랑하기 때문에> 공연은 임복희 동창의 해설 및 편지 낭독과 함께 소프라노 임영신(성악 97) 동창과 소프라노 박현아, 테너 이준성, 바리톤 김지훈, 피아니스트 김해지가 참여하여 문화와 음악이 어우러진 감동의 무대를 선사하였다.



임복희 동창

황정아(동양 93) 동창

11월 19일(수)부터 24일(월)까지 인사아트센터에서 개인전 '마음이 고



황정아 동창

요해지는 그 순간의 풍경'을 가졌다. 황정아 동창은 “풍경 속에서 잠시 머물며 고요한 심과 따스한 위안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하였다.

이상영(섬예 94) 동창

9월 25일(목)부터 2026년 3월 31일(화)까지 인천공항박물관에서 열리는 <HIP, KOREA: 시대를 잇는 공예, 미래를 빛다>전에 참여하였다. 이 전시는 한국 공예가 지닌 다채로운 매력과 무한한 가능성을 ‘협’이라는 새로운 시선으로 보여 주고 있다.



이상영 동창

이선주(커미부 94) 동창

10월 1일(수) LG생활건강 신입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이선주 동창은 마케팅·브랜딩 전문가로 로레알 USA 국제사업개발 수석부사장, 엘앤피코스메틱 글로벌 전략본부 사장 및 미국법인 지사장, 유니레버 자회사인 카버코리아 대표이사, 테라로사 커피 CEO 등을 역임하였다.



이선주 동창

김유진(성악 95) 동창

워싱턴주 음악협회장이자 소프라노 김유진 동창이 11월 15일(토) 주 시애틀 총영사관 후원으로 UW 음대 브레케민홀에서 대한민국 광복 80주년을 경축하는 음악회 <A Musical Tribute to Korea's 80th Liberation>을 UW 음대와 함께 주최했다.



김유진 동창

황지영(동양 95) 동창

9월 17일(수)부터 21일(일)까지 삼청동 갤러리마롱에서 개인전 'AFTERIMAGE'를 가졌다.

김정아(국문 96) 동창

11월 1일(토) 현대차그룹의 광고대행사 이노선의 대

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현대차그룹에서 여성 최고경영자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정아 동창

송혜영(피아노 96) 동창

피아니스트이자 웨더포드 컬리지 교수인 송혜영 동창이 10월 30일(목) 모교를 방문해 이향숙 총장을 예방했다. 이번 방한은 '웨더포드 컬리지 국제 피아노 콩쿠르'의 한국 예선전 개최를 위한 것으로, 송혜영 동창은 '한 대의 피아노, 세상을 잇다-국제 음악 콩쿠르의 탄생과 비전'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열었으며, 주요 음악대학을 방문해 향후 상호 협력 및 교류 방안을 논의했다.



송혜영 동창

양윤정(동양 96) 동창

11월 12일(수)부터 29일(토)까지 아트스페이스H에서 개인전 '느린 시간'을 가졌다. 이번 전시는 1년간의 작업을 아카이브 형식으로 모아 선보였다.



양윤정 동창

곽현주(장미 97) 동창

디자이너 곽현주 동창이 가방 브랜드 '어더와이즈(Otherwise)'를 런칭했다. '나만을 위한 새로운 선택'이라는 슬로건의 이 브랜드는 11월 28일(금) '브랜드엑트' 플랫폼을 통해 공식 출시되었다.



곽현주 동창

정영락(도예 97) 동창

10월 22일(수)부터 11월 2일(일)까지 KCDF갤러리에서 개인전 '자연을 담은 화폭'을 가졌다. 국가무형유산 도예기능장 정영락 동창은 용기를 현대적 시각으로 재해석해 자연과 사계절의 풍경을 담아냈다.



정영락 동창

고현정(무용 99) 동창

9월 7일(일)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 2025 예술창작활동지원사업 선정 프로젝트 <Salt Path(소금길)>을 무대에 올렸다. <Salt Path>는 고현정 동창이 주최·주관하고 안무를 맡았다.



고현정 동창

곽상은(영문 99) 동창

10월 20일(월) 제42회 최은희여기자상을 수상하였다. 곽상은 동창은 2022년 한국 기자 중 처음으로 우크라이나 현지를, 지난 6월에는 이스라엘·이란 전쟁의 공습 현장을 찾아 전쟁의 참상을 보도했다.



곽상은 동창

윤정민(동양 99) 동창

10월 15일(수)부터 20일(월)까지 양평의 스페이스 청담에서 개인전 '거석의 두 계절: Two Seasons of the Dolmen'을 가졌다.



윤정민 동창

신혜진(조소 00) 동창

11월 17일(월)부터 29일(토)까지 'Serenity of the Mind'라는 주제로 Gallery HELEN.A에서 개인전을 개최하였다.



신혜진 동창

김순임(조소 02) 동창

10월 25일(토)부터 11월 30일(일)까지 '흰'이라는 주제로 일본 Shun Art Gallery Tokyo에서 개인전을 개최하였다.



김순임 동창

박승혜(종음 02) 동창

박승혜 동창이 '파랑새 프로젝트'의 일원으로 10월 8일(목) 뉴욕 카네기홀의 Weill Recital Hall에서



박승혜 동창

연주회를 가졌다. 파랑새 프로젝트는 시카고에 있는 재능 있는 한인 클래식 음악가들로 구성된 앙상블팀이다.

신지혜(섬예 02) 동창

11월 18일(화)부터 2026년 1월 30일(금)까지 이대서울병원 2층 아트큐브 전시실에서 개인전 'Reframing the Sky: 하늘의 윤곽선'을 개최하였다.



신지혜 동창

김주희(동양 03) 동창

9월 20일(토)부터 10월 18일(토)까지 갤러리 자작나무에서 개인전 '우리를 비추는 것들'을 가졌다.



김주희 동창

김아영(도예 04) 동창

9월 20일(토)부터 10월 4일(토)까지 니닉크라프트에서 개인전 '소녀들의 언덕'을 가졌다. 다수의 아이들과 함께한 도예 체험을 비롯해 회화, 조형, 퍼포먼스, 디지털 미디어, 소설 등 여러 예술 장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며 완성된 전시였다.



김아영 동창

박주희(박지민, 동양 04) 동창

10월 1일(수)부터 15일(수)까지 남양주 라온숨카페 갤러리에서 개인전 'Wanted Room'을 가졌다. 이번 전시에서는 2025년 러닝을 하면서 마주했던 새로운 시각의 '산책일기' 작품들을 선보였다.



박주희 동창

이덕희(의학 04) 동창

이대목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이덕희 동창이 11월 3일(월) 제1회 손상예방의 날 기념행사에서 '응급실 손상환자 심층조사' 유공자로 선정돼 질병관리청장 표창을 수상하였다. 또한 11월 20일(목)

‘제13차 서울 국제응급의료 심포지엄’에서 재난관리 부문 서울특별시장 표창을 수상했다.

이우진(생명 04) 동창

계약바이오 및 헬스케어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로 활동 중인 이우진 동창이 10월 28일(화) 모교 국제교육관에서 개최된 ‘제5회 여성기술창업포럼 Woman, AI and Connection’에서 ‘AI와 바이오헬스케어 여성창업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였다.



이우진 동창

홍민정(불문 04) 동창

홍민정 동창이 9월 13일(토) 예술의전당 오페라 극장에서 오페라 <라 보엠>: 2025 라벨라 그랜드 갈라 공연의 연출을 맡아 성황리에 공연하였다.



홍민정 동창

서주희(피아노 05) 동창

11월 21일(금) 대구 콘서트하우스 챔버홀에서 <눈으로 듣고 귀로 보는 음악 VII, 서주희 피아노 독주회>를 개최하였다.



서주희 동창

김지형(국제학부 06) 동창

김지형 동창이 Best Lawyers 2026 - Ones To Watch의 ‘노동 및 고용법’과 ‘소송’ 분야의 전문가로 선정되었다. 김지형 동창은 2022년부터 Littler의 Associate 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김지형 동창

손서현(서양 06) 동창

11월 15일(토)부터 29일(토)까지 서울 경교장길 페아트갤러리에서 개인전 ‘Ordinary Boundary’를 진행하였다.

김애라(대학원 07) 동창

10월 27일(월) ‘2025 제6회 이화-현우 여성과 평화학술상’ 시상식에서 김애라 동창의 저서 『폐북 스타가 된 소녀들』이 학술연구 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김애라 동창은 현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김애라 동창

안은선(섬예 07) 동창

안은선 동창이 2025 청주국제공예공모전에 <숨, 우림산수_2503 (The Breath, Rainforest Landscape_2503)>로 입상하였다. 또한 99점의 입상작으로 진행된 인기상 투표에서 1위로 선정되어 상패와 상금 200만 원을 수여받았다.



안은선 동창

고형지(도예 09) 동창

9월 16일(화)부터 20일(토)까지 이화아트센터에서 개인전 ‘살아 있는 빛’을 개최하였다. 색 유약을 적용한 도자 조형물과 설치 작품을 선보였다.



고형지 동창

박보오리(조소 09) 동창

11월 26일(수)부터 12월 10일(수)까지 제주시 북성로에 위치한 스튜디오126에서 개인전 ‘땀도 없고, 뭉툭도 없는’을 가졌다.

민은희(동양 10) 동창

9월 4일(목)부터 10월 3일(금)까지 스페이스뎀미술관에서 ‘너의 얼굴’ 개인전을 가졌다.



이은영 동창

이은영(도예 10) 동창

10월 22일(수)부터 11월 6일(목)까지 스페이스유닛플러스에서 개인전 ‘Cave in & Caving’을 가졌다.

서울 을지로 상가 공간에서 출발한 이번 전시는 변화하는 시장의 흐름 속에서 예술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영역과 역할을 조명하였다.

최희유(섬예 11) 동창

11월 8일(토)부터 16일(일)까지 인천 송도 갤러리 올에서 두 번째 개인전을 가졌다. 청아세무회계 대표 최희유 동창은 유튜브 채널 <최희유의 세금살롱>을 운영하며, '그림 그리는 세무사'로 알려져 있다.



최희유 동창

위다희(간호 12) 동창

위다희 동창이 NIH Pathway to Independence Award를 수상하여 100만 달러의 연구 지원금을 받았다. 위다희 동창은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 시카고에서 박사후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위다희 동창

조혜진(피아노 12) 동창

5월 14일(수) 모교에서 '미국 유학 및 진로 이야기'를 주제로 후배들을 위한 강연을 하였다. 10월 2일(목) Armerding Concert Hall에서 슈만 피아노 곡 연주회를 가졌으며, 12월 10일(수) 시카고 소재 Seventeenth Church of Christ에서 파니 멘델스존 헨젤을 주제로 피아노 연주회를 가졌다. 조혜진 동창은 현재 미국 휘튼 칼리지에서 피아노 교수로 재직 중이다.



조혜진 동창

이나래(무용 14) 동창

9월 25일(목)부터 10월 4일(토)까지 산지천갤러리에

서 '동조(同調)하는 춤' 전시를 가졌다. 또한 9월 26일(금)부터 28일(일)까지 '바다숲이 되는 춤'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김민지(도예 19) 동창

11월 14일(금)부터 12월 5일(금)까지 서울시 중구 KG타워 갤러리 선에서 개인전 '블루 사이클(BLUE CYCLE): 순환하는 블루'를 가졌다. 김민지 동창은 광재선문화재단 제3회 아트공모전 대상 수상자이자 재단 3기 아티스트이다.



김민지 동창

김은총(성악 19) 동창

11월 30일(토) 멜버른 시티 타운홀에서 열린 '멜버른 투게더'에 출연하여 <Amor Dei>를 연주하였다. '멜버른 투게더'는 크리스천 연인들이 참여한 찬양 행사이다.



김은총 동창

정재은(무용 21) 동창

전 세계 80개 이상 도시에서 공연하고 있는 <Ballet of Lights> 무대에서 무용수로 활약하고 있다. 또한 영국 페스티벌 발레단과 함께 <백조의 호수>, <호두까기 인형> 등의 작품에 참여할 예정이다.



정재은 동창

김정민(장미 22) 동창

제10회 서리풀 ART for ART 대상전에서 특선을 수상했다. 수상작은 11월 20일(목)부터 28일(금)까지 한전아트센터 기획전시실에서 전시되었다.



김정민 동창

《이화동창》을 받으시는 동창 여러분 중 주소가 변경된 분은
총동창회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2-3277-3386~7 / E-mail: ewhaalum@ewha.ac.kr



지 회 소 식

남가주(LA) 지회

회장 __ 조혜진(장미 89)

동창회 장학금 기금 마련 바자회 개최

9월 17일(수) LA 온누리 교회 비전홀에서 선교부 기도회 창립 22주년 감사 예배가 있었다. LA 온누리 교회의 이정엽 목사의 말씀이 있었고, 약 30여 명이 참석하여 감사 예배를 드렸다. 감사 예배 후에는 준비한 오찬으로 교류하며 선교사들의 헌신을 기억하며 기도할 것을 다짐하였다.

10월 18일(토)에 Coldwell Banker Best Realty 주 차장에서 남가주 지회 장학기금 마련 바자회를 개

최하였다. 동창 및 지인들의 물건을 기증받아 일반 및 동창들에게 판매하여 기금을 마련하였고 이 기금은 동창회 장학금 후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워싱턴 D.C.에서 열린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에 동창 16명이 참석하였다. 3박 4일 동안 탤런트 쇼와 회의 및 행사에 참석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11월 12일(수)에는 LA 용수산에서 이사회가 있었는데 기존의 동창 자녀 장학금 외에 randmother 장학금을 신설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네덜란드 지회

회장 __ 정희진(건축 10)

헤이그 이준열사기념관 기념행사

7월 12일(토) 이준 열사 순국 118주기와 광복 80 주년을 기념하고, 더불어 송창주(가정 62) 동창이 관장으로 있는 이준열사기념관 개관 30주년을 축하하는 기념식이 개최되었다. 네덜란드 지회 동창들은 축하 꽃을 전달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또한 이영인(성악 13) 동창의 성악 공연과 김태영(피아노 00) 동창의 피아노 연주가 더해져 더욱 풍성하고 감동적인 축하의 순간을 만들었다.

기념식에는 현지 주요 인사와 동포들이 함께 했

선교부 기도회 창립 22주년 감사 예배에 참석한 남가주 지회 동창들



이준열사기념관 개관 3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네덜란드 지회 동창들



다. 헤이그 시장과 주네덜란드 한국대사를 비롯해 이화 동창들 포함 여러 관계자들이 참여해 헌화와 추모의 시간을 가졌다.

지회 동창들이 직접 방문해 자리를 채운 것은 기념관의 오랜 활동을 응원하는 동시에, 독립 정신을 이어가는 해외 동포 사회의 노력에 연대하는 뜻깊은 행보였다. 동창회는 앞으로도 이러한 역사적·문화적 행사에 꾸준히 함께할 예정이다.

뉴욕 지회

회장 __ 김영신(독문 88)

연례만찬 모임 가져

10월 18일(토)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Church of the Holy Apostles에서 연례만찬을 가졌다. 만찬은 'Passing the Legacy'라는 주제 아래, 뉴욕 동창회의 자랑스러운 유산을 기리고 미래를 이끌어갈 후배들에게 격려를 전하는 시간으로 마련되었다.

하이라이트로는 동창 연주자들이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가 준비되어, 가을밤을 풍성하게 채워주었다. 특히, 이번 무대에 참여하는 후배 연주자들에게는 이보영(음악 56)·백낙정(음악 59) 동창이 기탁한 음악대학 100주년 기념 후원금의 일부로 장학금이

연례만찬 모임에 참석한 뉴욕 지회 동창들



전달되었다. 선배들의 사랑과 격려가 동창회 전체에 아름답게 흐르는 'Legacy'의 의미를 함께 나누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대구 지회

회장 __ 권애실(불문 82)

경주 오아르미술관 방문

9월 26일(금) 수성호텔 내 중식당 '칭밍'에서 9월 정기모임을 가지고 오찬을 함께 했다.

10월 23일(목) 남성희(커미부 78, 대구보건대학교 총장) 동창의 초대로 지회 동창들은 보건대학교 인당뮤지엄을 방문했다. 동창들은 미술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고 김인겸 유작전을 관람하였다.

10월 24일(금) 경주로 가을 야유회를 다녀왔다. 동창들은 오아르미술관과 금관총을 관람하였다.



경주 오아르미술관을 방문한 대구 지회 동창들

대전 지회

회장 __ 조선희(정의 80)

대바자회와 모교 역사투어로 알찬 하루

대전 지회는 9월 23일(화) 총동창회 대바자회에



모교 역사투어에 참가한 대전 지회 동창들

참가하는 한편, 대외협력처가 시행하는 모교 역사투어를 실시했다. 바자회 참여 출품은 붓글씨(황순자·교육 69)와 종이접기(송명옥·생명 82)로 장식한 선물 봉투였다. 바자회 부스를 담당한 주인혜(과교 82) 총무와 송명옥 동창은 일찌감치부터 장터를 지키고, 투어에 참가한 동창 11명은 모교 홍보대사 김세령 학부생의 안내로 한 시간에 걸쳐 모교를 둘러보았다.

친숙한 건물이지만 투어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많았다. 본관 중앙현관 진입 돌계단의 턱이 군데군데 떨어져 나간 흔적은 한국전쟁 때 총격으로 파손된 것으로 역사성으로 그대로 존치한다고 한다. 또한 중앙 현관 위 첨탑 부분에 화강암 십자가가 박혀 있는데, 원래는 은십자가였으나 일제강점기 때 수탈되었다고 한다. 대강당의 의자 팔걸이에는 의자를 보수할 당시에 기부한 동창의 이름을 새겼다고 하니 앉을 때 한번 훑어보고 앉을 일이다.

바자회 첫 참가 후기로는 정성 가득히 만든 선물 봉투지만 남의 호주머니에서 5,000원, 1만 원을 꺼내게 하는 일의 어려움을 크게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모교 투어 일행은 진관의 학생식당에서 먹은 미역국의 맛을 잊을 수 없다고 했다. 바자회 부스 곳곳을 둘러보며 쇼핑하고, 숲속 탁자에 앉아

정담도 나누고, ECC 선물가게에서 이화 굿즈를 사 들고, 젊음이 일렁이는 학내 카페에서 따스한 정을 느꼈다는 동창들은 이화 동창임에 감사하며 이구동성으로 행복한 나들이였다는 답글을 보내와 임원진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

디트로이트 지회

회장 _ 박은하(교공 92)

각종 게임으로 즐거웠던 송년회

11월 8일(토) 미시간주 리보니아에 위치한 Laurel Manor에서 송년회를 가졌다. 1부 순서는 서기 이성원(영문 03) 동창의 사회로 진행하였고, 박은하 회장의 개회사가 있었다. 오주리(섬예 82) 동창이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 보고를 하였고, 모교가 제작한 이화 홍보 영상, 이성원 동창이 제작한 디트로이트 지회 소개 동영상을 다함께 시청했다.

2026년 신임 이사장을 맡게 된 오미령(식영 77) 동창의 식사 기도 후 저녁 식사를 하며 동기, 선후배 간에 이야기꽃을 피웠다. 식사 후 순서로 앤아버 지역에서 연주 활동을 하고 있는 조남우(바이올린)·임영준(기타) 연주자의 양상을 연주가 있었다. 2부에는 양혜인(사교 14) 동창의 진행으로 다양한

송년회에 참석한 디트로이트 지회 동창들



게임(속담 초성 게임, 부스러기 과자 이름 맞추기, 상자 속 과일 맞추기, 빙고 게임)을 즐겼고, 정답을 맞춘 동창은 상품으로 이화 굿즈를 받았다. 소박한 상품들에 비해 여섯 테이블의 경쟁은 TV 퀴즈쇼를 방불케 했다.

즐거운 분위기 속에 박은하 회장의 라인 댄스(〈씨니〉, 〈내가 제일 잘 나가〉) 시범 후 테이블별로 대결을 벌이게 해 60여 년이라는 두 세대 간의 동창들이 함께 맘껏 웃는 시간을 보냈다.

이화 커피가 참석한 동창 모두에게 기념품으로 제공되었고, 내년 봄 동창회에서의 만남을 약속하면서 송년회를 마쳤다.

시애틀 지회

회장 _ 김희정(영문 83)

추석맞이 먹거리 장터

장학기금 마련 추석맞이 먹거리 장터가 9월 27일(토) 김희정 회장 집에서 열렸다. 동창들이 직접 만든 만두, 빈대떡, 비빔밥 등 다양한 먹거리 상품이 선보였고, 동창들이 십시일반으로 힘을 보태 기꺼이 동참함으로써 장학기금 모금 목표액을 가뿐하게 채울 수 있었다. 무엇보다 이틀에 걸쳐 함께 장터 음식을 준비하면서 선후배 간 정이 듬뿍 쌓이고 유대감도 배가 되는 계기가 됐다.

10월 10일(금) 벨뷰 도서관에서는 동창회 주최로 박명호(정외 78) 동창이 인상주의와 모네(Monet) 관련 특강을 열었다. 올해 5월 '슈만 & 브람스 음악 특강', 그리고 8월 박명호 동창의 동생인 박길호 씨의 '추억의 영화 음악' 까지 총 3회에 걸쳐 커뮤니티 대상으로 한 음악과 예술 관련 특강을 성공리에 마쳤다. 이를 통해 모인 기부금은 연말연시를 맞아



함께 모여 먹거리 장터 음식을 준비한 시애틀 지회 동창들

Korean Emergency Fund, First Responders Children's Foundation 등을 통해 불우한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올해 마지막 행사로 12월 6일(토) Holiday Inn에서 송년 모임이 있을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는 UW 한국학 센터에서 한국학을 연구하는 박사과정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그 향기 널리 퍼져라, 이화 우리 이화'라는 교가 가사처럼 이화의 선한 영향력을 곳곳에 끼치기 위해 시애틀 지회는 톨툴 뭉쳐 노력하고 있다.

시카고 지회

회장 _ 최지숙(무용 83)

가을 정기 이사회

9월 6일(토) 시카고 한인문화회관 마루에서 2025년 가을 정기 이사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이사회에는 총 51명의 이사가 참석했으며, 지난 7월 1일(화)부로 새롭게 취임해 2년 임기를 시작한 최지숙 회장과 회장단이 주관한 첫 이사회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깊었다. 행사에서는 김영기(시카고 대학교 물리학과 교수) 박사가 '원자 세계의 소립자들'이라는 주제로 심도 있고 흥미로운 특별 강연을



정기 이사회에 참석한 시카고 지회 동창들

진행하여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박순자(국문 67) 이사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이번 이사회는 신임 회장단 출범을 축하하며 지난 활동을 돌아보고 향후 계획을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으로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서로의 우정을 다지고, 시카고 지역 동창으로서의 결속과 자부심을 다시금 확인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다.

애틀랜타 지회

회장 __ 차희숙(체육 77)

2026년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는 애틀랜타에서!

10월 23일(목)부터 26일(일)까지 개최된 북미주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에 참석한 애틀랜타 지회 동창들



지회연합회 총회에 16명의 동창이 참석했다. 이향숙 모교 총장 및 이명경 총동창회장을 뵙고, 각 지회에서 참여한 선후배 동창들과 한자리에서 친목을 다지고, 각 지회 활동 내용을 영상으로 보고받았다.

탤런트 쇼에서 애틀랜타 지회는 단장 이인순(약학 69) 동창의 지휘 아래 11명의 동창이 그동안 틈틈히 모여서 준비한 <이화 찬가>(무반주)와 <Rivers of Babylon>(라인댄스)을 열정적으로 공연하였다.

차희숙 회장은 2026년 개최지인 애틀랜타 지회를 영상으로 소개하였으며, 총회기를 인계 받았다.

2026년 10월 29일(목)부터 11월 1일(일)까지 애틀랜타에서 개최될 북미주 지회 연합회 총회에서 동창 모두를 만나기를 기원하고 환영한다. EWHA, GROW, GLOW Atlanta 2026!

워싱턴 D.C. 지회

회장 __ 이지은(불문 96)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 성황리에 마무리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 행사가 10월 23일(목)부터 26일(일)까지 버지니아주 Hyatt Regency Dulles에서 성황리에 치러졌다. 모교 총장을 비롯하여 한국에서 온 이화 가족, 북미주 각 지회에서 먼 길을 온 동창들, 그리고 워싱턴 D.C. 지회 동창들까지, 많은 분들이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한 덕분에 이번 총회가 이화의 화합과 감동이 어우러진 뜻깊은 자리로 아름답게 마무리 될 수 있었다. 워싱턴 D.C. 지회 임원들과 봉사자들의 헌신, 그리고 참석한 모든 분들의 협조 덕분에 관광 프로그램과 호텔 내 다양한 일정이 큰 사고 없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었으며, 여기에 화창한 가을 날씨가 더해져 더욱 감사한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를 성공적으로 치른 워싱턴 D.C. 지회

시간이었다.

10월 25일(토)에는 워싱턴 D.C. 케네디센터 Terrace Theater에서 이화여대 음대 100주년 기념 연주회가 열려 이번 총회를 더욱 빛냈다. 이 연주회는 'Giving Thanks'를 주제로 미국 선교사 앨리스 아펜젤러 초대 총장 등 이화의 발전을 위해 힘쓴 선구자들의 노고에 대한 깊은 감사를 담았다. 교수진, 동창 등 80여 명의 연주자가 피아노 앙상블, 첼로 앙상블 등 클래식과 한국 전통 음악을 결합해 이화 음악 100년의 발자취를 음악으로 풀어냈다. 피날레 무대인 안현정 작곡가의 〈이화 판타지〉에서는 이화의 교수, 재학생, 동창, 직원이 모두 한 무대에 올라 박수갈채를 받았다. 케네디센터 공연 하루 전에는 National Children's Hospital을 방문해 특별 공연을 펼치고, 지난 기념 행사의 수익금 일부를 기부하며 'Giving Thanks' 정신을 실천했다.

일리노이 지회

회장 __ 서석영(정의 94)

정기 이사회 및 온라인 교양강좌 개최

9월 20일(토) 가을맞이 야외 피크닉이 Montrose Beach Park에서 개최되어 총 38명의 어른과 아이

들이 모였다. 새로운 동창들이 많이 참석한 가운데 맛있는 분식을 즐기고 가족사진도 찍었으며, 2025 이화 일리노이 학술대회 참가 지원금 장학금 수여 식도 가졌다(수혜자: 원윤정(국제사무 13) 동창). 10월 23일(목)부터 26(일)까지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2025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에는 일리노이 지회를 대표하여 회장과 부회장이 참석하였다.

11월 9일(일) 정기 이사회가 줌 미팅으로 진행되어 전 회의록 승인, 임원 업무보고, 사임 이사 공지 및 신임 이사 선출, 지역단체 후원 및 2026년도 사업 및 행사를 논의했다. 2026-27년 이사장으로 장혜주(영교 01) 이사장이 연임되었다.

11월 14일(금) 온라인 교양강좌를 개최하였다. '또 다른 멘델스존: 파니 멘델스존 헨젤'을 주제로 휘튼 칼리지 교수로 재직 중인 조혜진(피아노 12) 동창의 연주와 강의를 들었다. 생소한 여성 음악가에 대해 배울 수 있었으며, 귀도 마음도 풍요로운 시간을 가졌다. 봄/가을 온라인 교양 강좌 동영상은 지회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다.

11월 16일(일) 온라인으로 임시 이사회가 진행되어 2026년 총회 일정 및 후원이사 신설, 이사 임기를 논의했으며, 2026년 신임 회장으로 이정화(용보 94) 현 부회장이, 2027년 회장으로 김태영(커미부 07) 현 서기가 각각 선출되었다. 12월 5일(금)에

9월 가을 피크닉 모임에 참석한 일리노이 지회 동창들



는 Beatrix-Fulton Market에서 송년 모임이 개최 될 예정이다.

자카르타 지회

회장 __ 김연선(특교 95)

근황 나누며 정겨운 시간

10월 1일(수) Lawry's Prime Rib에서 소규모 모임을 가졌다. 최근 귀국한 동창들이 많아 참석자는 많지 않았지만, 오랜만에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의 근황을 나누며 정겨운 시간을 보냈다. 특별한 프로그램 없이 담소를 중심으로 진행된 조촐한 자리였으나, 모두에게 뜻깊은 만남이었다.



동창회 모임에 참석한 자카르타 지회 동창들

토론토 지회

회장 __ 조혜라(영문 96)

동화 속의 이화, 토론토를 물들이다

9월 6일(토) 장학기금 마련을 위해 일일 찻집 겸 배움 카페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큐레이터 출신 김금미(영문 80) 동창의 특별 강연이 마련되어, 동창들은 현대미술사의 흐름을 배우며 깊이 있는 교제



연말 파티에 참석한 토론토 지회 동창들

를 나누었다. 성영희(서양 95) 동창의 갤러리에서 모인 동창들은 먹고, 즐기고, 배우는 유익한 바자회 시간을 가졌다. 한 해 동안 모은 이 기금은 매년 KCSF(캐나다 한인장학재단)의 선발을 거쳐 차세대 여성 리더로 성장할 학생에게 전달되고 있다.

9월 20일(토)에 열린 햇볕회 예배에는 20여 명의 동창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예배의 형식으로 함께 기도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별히 아이티에서 선교사로 활동 중인 김혜련(정외 88) 동창이 함께 예배드리며 간증을 나누었다. 아이티 어린이들을 돌보는 선교사 동창을 축복하고 위로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는 따뜻한 시간이었다.

2025년 연말 파티는 동창들의 밤길 운전 부담을 덜고자 점심 식사로 기획되었다. 장소와 시간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파티장은 여전히 즐거움과 웃음으로 가득 찼다. 올해 파티 주제는 '동화 속의 이화'였는데, 여왕, 공주, 요정, 혹은 어린 시절 동화 속 소녀의 모습으로 등장한 동창들의 다채로운 모습은 그야말로 멋진 볼거리였다. 합창과 댄스, 그리고 멋진 패션쇼와 재치 있는 게임 진행이 이어져 동창들의 열정과 끼로 파티장을 가득 채웠다.

이날 열린 총회에서는 2026년 신임 회장으로 김기방(서양 73) 동창이 선출되었다. 신임 회장은 내

년도 동창회를 이끌어갈 포부를 다졌다. 토론토 지회의 새로운 한 해에는 더 큰 기쁨과 단합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필라델피아 지회

회장 _ 이교연(영교 70)

동창회 행사에 관해 의견 나누어

10월 4일(토) 이교연 회장과 박윤옥(간호 75)·박찬수(간호 75)·오성실(영문 68)·유정은(독문 94) 동창이 모여 모처럼 마음을 내려놓고 서로의 근황에 대해 담소를 나누었다.

또한 10월 23일(목)부터 26일(일)까지 개최될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에서 진행될 프로그램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다.

12월 6일(토)에 있을 정기 모임과 송년회 개최 장소가 마땅치 않아 고심하던 중 박찬수 동창이 자신의 집을 오픈할 것과 더불어 몇 가지 음식을 준비할 것을 제안하여 모두의 마음을 기쁘게 하였다. 박찬수 동창은 지난 3월 1일(토)에 열렸던 음악대학 100주년 기념 음악회에서도 출연진과 감상하러 온 외국 손님들에게 자신이 만든 맛있는 후식을 제공하여 모두의 갈채를 받았다.

필라델피아 지회 박윤옥·이교연·박찬수·오성실·유정은 동창



홍콩 지회

회장 _ 최성희(정의 87)

한마음 장터 행사로 장학금 모금

11월 1일(토) KIS(한국국제학교)에서 열린 한마음 장터 부스에서 연말 모교에 보낼 장학금 총 6만 83홍콩달러(한화 약 1,100만 원)을 모금했다. 판매 품목은 시원한 커피, 어린이 음료와 달콤한 사탕, 에코백, 스카프, 텀블러 등 일상에 유용한 물품들 그리고 중고책 등이었다. 이 후원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모교 학생들에게 꿈과 재능을 펼칠 기회가 되길 바라며, 학업에 온전히 전념할 수 있게 되길 기원한다.

물품 구입과 판매에 힘써 준 임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그리고 현금 후원을 아끼지 않은 많은 선배들과 바쁜 가운데 방문해 물품 구입에 힘써 준 동창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보낸다.



한마음 장터를 통해 장학금을 모금한 홍콩 지회

휴스턴 지회

회장 _ 이은경(사교 92)

동창회 활동으로 지역과 모교에 사랑 전해

9월 19일(토) 김성혜(도예 84) 동창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모임을 가졌다. 13명의 동창이 모여서 그동안의 근황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특히 Life Tree Ministry라는 단체에서 난민을 돕는 사역을 하고 있는 최성숙(약학 65) 동창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도 가졌다. 휴스턴 지회는 매년 바자회 수익금의 일부를 기부하며 이 난민 사역을 후원하고 있다.

10월에는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북미주 지회 연합회 총회에 6명의 동창이 참석하여 즐겁고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한국에서 온 모교 총장과 여러 관계자들이 전해 주는 모교의 발전 소식을 듣고 북미주 지역에서 모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인 여러 동창들의 열정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특

히 이화국제재단에서 장학위원회 이사로 오랫동안 수고해주고 있는 조정실(의학 72) 동창과 함께 올해부터 구희경(사교 86) 동창도 이사로 봉사해 주기로함으로써 여러 분야에서 헌신해 주는 동창들의 애정어린 수고에 더 감사한 시간이었다.

동창회 모임에 참석한 휴스턴 지회 동창들



후원이사회비 납부자 명단 2025.01.01~2025.12.24(과·졸업 연도 순)

인문과학대학

국어국문학과

이사라(75) 5,000,000

중어중문학과

안영호(85) 1,000,000

송진영(90) 1,000,000

신지영(90) 1,000,000

조숙자(95) 3,000,000

영어영문학과

이경숙(70) 1,000,000

장 선(72) 1,000,000

이주영(75) 5,000,000

김혜숙(76) 1,000,000

박영주(78) 1,000,000

정경숙(79) 1,000,000

최윤정(95) 3,000,000

불어불문학과

노경선(82) 1,000,000

서창희(82) 1,000,000

배운경(87) 1,000,000

나승연(95) 3,000,000

독어독문학과

김영미(72) 1,000,000

이정화(74) 1,000,000

이지연(75) 5,000,000

이명주(95) 3,000,000

기독교학과

전옥경(75) 5,000,000

정수진(95) 3,000,000

사학과

김대숙(75) 5,000,000

최지영(89) 2,000,000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박재욱(72) 2,000,000

오유경(93) 1,000,000

김종하(95) 3,000,000

행정학과

구자은(95) 3,000,000

문헌정보학과

이성자(88) 1,000,000

김승혜(95) 3,000,000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조애진(66) 1,000,000

전수정(95) 3,000,000

사회학과

윤명근(72) 1,000,000

문병재(77) 1,000,000

박순원(77) 1,000,000

김은미(81) 1,000,000

엄명숙(83) 1,000,000

이재완(84) 1,000,000

최성희(91) 1,000,000

호정화(95) 3,000,000

사회복지학과

김희성(67) 1,000,000

박선숙(75) 5,000,000

김현희(95) 3,000,000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김경령(84) 1,000,000

이향숙(86) 1,000,000

김현선(88) 1,000,000

이홍숙(88) 1,000,000

통계학과

유혜련(95) 3,000,000

물리학과

남상택(74) 1,000,000

정숙희(77) 1,000,000

최경임(85) 1,000,000

최은영(87) 1,000,000

곽영신(95) 3,000,000

화학과

최경희(80) 1,000,000

황복기(83) 1,000,000

생명과학과

황유경(89) 1,000,000

인공지능대학

컴퓨터공학과

김정아(85) 1,000,000

이은영(85) 1,000,000

장선영(89) 1,000,000

설시경(95) 3,000,000

음악대학

기악과

임금자(59) 1,000,000

피아노과

채현경(75) 5,000,000

권정희(95) 3,000,000

성악과

양미라(75) 5,000,000

정선영(95) 3,000,000

작곡과

안선현(95) 3,000,000

종교음악과

이인숙(75) 5,000,000

최은희(81) 1,000,000

한국음악과

양재희(80) 1,000,000

곽은아(85) 1,000,000

류정연(95) 3,000,000

조형예술대학

동양화과

이승은(89) 1,000,000

서양화과

장옥빈(75) 5,000,000

김원영(95) 3,000,000

조소과

김정숙(71) 1,000,000

이여름(95) 3,000,000

생활미술과

진현경(93) 1,000,000

황지아(95) 3,000,000

장식미술과

최순희(75) 5,000,000

김소형(95) 3,000,000

도예과

한향림(79) 1,000,000

체육대학

체육학과

강은애(95) 3,000,000

이명진(95) 3,000,000

무용과

정귀린(75) 5,000,000

이명경(77) 2,000,000

박영애(81) 1,000,000

전유오(84) 1,000,000

이미영(88) 1,000,000

김우정(89) 1,000,000

우혜영(95) 3,000,000

사범대학

교육학과

김은산(59) 1,000,000

윤순희(65) 1,000,000

곽삼근(75) 5,000,000

홍승미(95) 3,000,000

유아교육과

김영주(71) 1,000,000

오승희(75) 5,000,000

유재경(95) 3,000,000

초등교육과

초등교육과 1995년 졸업(95)

3,000,000

교육공학과

하진경(75) 5,000,000

권미경(87) 1,000,000

주 리(95) 3,000,000

특수교육과

한기정(75) 5,000,000

한은주(79) 1,000,000

유은연(95) 3,000,000

영어교육과

안승진(75) 5,000,000

윤금진(80) 1,000,000

과학교육과

유경희(83) 2,000,000

김재명(92) 1,000,000

수학교육과

신경희(77) 1,000,000

법대·법전문

법학과

한정근(75) 5,000,000

안경희(86) 1,000,000

윤석희(87) 1,000,000

박성혜(88) 1,000,000

노정연(90) 1,000,000

조현지(91) 1,000,000

김구슬(93) 1,000,000

김현아(95) 3,000,000

경영대학

경영학과

김혜련(84) 1,000,000
정은실(88) 1,000,000
김지훈(90) 1,000,000
남궁진(95) 3,000,000
국제사무학과
고현주(90) 1,000,000
유현주(95) 3,000,000

의과대학
의학과
이경자(75) 5,000,000

오혜숙(78) 1,000,000
성시열(81) 1,000,000
임선영(82) 1,000,000
김태경(84) 1,000,000
안혜선(84) 1,000,000
파상순(84) 1,000,000
정은주(85) 1,000,000
김성희(87) 1,000,000
조지희(88) 1,000,000
박혜영(89) 1,000,000
임석아(91) 1,000,000

양훈진(95) 5,000,000
간호대학
간호학과
양순옥(75) 5,000,000
한영숙(75) 5,000,000
김윤주(95) 3,000,000
약학대학
약학과
김순영(62) 1,000,000

정준순(72) 1,000,000
정용희(75) 5,000,000
황미경(86) 1,000,000
이경희(88) 1,000,000
최경숙(92) 1,000,000
김호정(95) 3,000,000
제약학과
이숙희(75) 5,000,000
이현주(95) 3,000,000
생활환경대학

의류직물학과
이명숙(75) 5,000,000
이유나(95) 3,000,000
식품영양학과
황성미(75) 5,000,000
이은미(83) 1,000,000
권영주(95) 3,000,000
대학원
이화정(92) 1,000,000

교육대학원
양수화(74) 1,000,000
정책과학대학원
전혜성(08) 1,000,000
최영은(08) 1,000,000
김순숙(19) 2,000,000

평생회비 납부자 명단 2016.01~2025.12.24(과·졸업 연도 순)

인문과학대학

국어국문학과

김성자(61) 300,000
강진환(62) 351,624
조진상(62) 300,000
박미혜(64) 300,000
안정환(65) 300,000
유정자(65) 300,000
윤수영(65) 300,000
신효재(66) 300,000
박영숙(67) 300,000
오원자(68) 300,000
임완숙(68) 300,000
서경자(69) 300,000
송호연(69) 300,000
유원화(69) 300,000
조한숙(69) 300,000
최수정(70) 300,000
김용희(71) 300,000
박연희(71) 300,000
박희규(71) 300,000
이경희(71) 300,000
임덕기(72) 300,000
안현영(73) 300,000
이수자(73) 300,000
최숙희(73) 300,000
홍석진(73) 300,000
김선옥(74) 300,000
최경희(77) 300,000
하선아(85) 300,000
이현주(88) 500,000
이승선(91) 300,000
심현경(92) 500,000
탁유진(22) 500,000
중어중문학과
금지원(92) 500,000
박수현(08) 500,000
강운화(20) 500,000
윤이지(23) 500,000
영어영문학과
강상봉(56) 500,000
이인주(56) 300,000
김형숙(58) 300,000
전은경(59) 300,000
서진옥(61) 300,000

김화숙(62) 300,000
이행자(62) 300,000
정소영(62) 300,000
김애란(63) 500,000
문영혜(63) 300,000
박인자(63) 300,000
유영애(63) 300,000
양정자(64) 300,000
박명자(67) 300,000
엄은옥(67) 300,000
오경임(67) 300,000
한수미(67) 300,000
김영숙(69) 300,000
송혜영(69) 300,000
정성희(69) 300,000
김순희(70) 300,000
김영옥(70) 300,000
박지화(70) 300,000
성혜옥(70) 300,000
양연수(70) 300,000
오경심(70) 300,000
이경숙(70) 300,000
최선열(70) 300,000
홍선희(70) 300,000
김영이(72) 300,000
방희정(72) 300,000
신혜수(72) 300,000
이승진(72) 300,000
장 선(72) 300,000
엄정희(73) 300,000
박순연(74) 300,000
조선영(74) 300,000
권혜옥(75) 300,000
김희자(76) 300,000
유익순(76) 300,000
이정숙(77) 300,000
김남민(78) 300,000
김춘희(78) 300,000
이명실(78) 300,000
홍성미(78) 300,000
문영희(79) 300,000
안미영(79) 300,000
이혜남(79) 300,000
김종유(80) 300,000
김동숙(81) 300,000

김승희(81) 300,000
신인화(81) 300,000
임순희(82) 300,000
홍의경(85) 300,000
김주희(92) 500,000
맹선영(92) 500,000
김동연(93) 500,000
권은희(94) 500,000
이승은(94) 500,000
박미경(98) 500,000
박지희(07) 500,000
송세일(09) 500,000
현술일(09) 500,000
김민경(16) 500,000
방하영(24) 500,000
불어불문학과
허영자(62) 3,500,000
남혜경(63) 300,000
조귀연(65) 300,000
김영희(66) 300,000
임채문(67) 300,000
박순자(68) 300,000
안현주(68) 300,000
이원옥(68) 300,000
진선혜(69) 300,000
임순영(70) 300,000
민혜경(71) 300,000
강미영(72) 300,000
오인순(72) 300,000
이영숙(72) 300,000
장혜경(73) 300,000
신태영(75) 300,000
김영혜(77) 300,000
배혜화(77) 300,000
이은주(77) 300,000
조정순(77) 300,000
김지운(79) 300,000
박미리(79) 300,000
원종미(79) 300,000
이규숙(81) 300,000
어미화(82) 300,000
이정은(83) 500,000
조은실(85) 300,000
김세정(22) 500,000
독어독문학과

민용자(67) 900,000
오영란(67) 300,000
이중희(67) 300,000
최옥주(67) 300,000
이숙경(68) 300,000
강혜영(68) 300,000
고화련(69) 300,000
이금숙(69) 300,000
권영희(70) 300,000
김미희(71) 300,000
김장영(71) 300,000
주혜경(71) 300,000
이영미(72) 300,000
김용애(72) 300,000
차성은(72) 300,000
유동진(74) 300,000
이정화(74) 300,000
임병희(74) 300,000
이은주(82) 300,000
최상민(다경)(03) 500,000
기독교학과
김옥순(64) 300,000
문신자(64) 295,000
김 형(65) 300,000
이정자(66) 310,000
김연숙(69) 300,000
이정윤(74) 300,000
김미순(75) 300,000
송지애(86) 300,000
최수현(92) 500,000
윤애란(22) 500,000
박주은(23) 500,000
철학과
최소은(24) 500,000
사학과
김인숙(61) 300,000
한희경(65) 300,000
임계순(67) 600,000
오영옥(68) 300,000
오옥환(68) 300,000
임지향(68) 300,000
전진순(68) 300,000
김경순(70) 300,000
최명순(70) 300,000
윤현숙(71) 300,000

임인선(72) 300,000
유재옥(74) 300,000
이혜옥(74) 300,000
이홍선(74) 398,373
오승연(76) 300,000
주혜련(77) 300,000
박은화(80) 300,000
김광민(83) 300,000
한은미(87) 300,000
정현아(91) 500,000
정혜중(91) 500,000
박기옥 300,000
불 명 300,000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한연숙(59) 300,000
우정순(67) 300,000
홍영희(67) 300,000
구혜정(71) 300,000
남성희(74) 300,000
이문숙(79) 300,000
김미령(80) 300,000
조선희(80) 300,000
정민재(81) 300,000
문학옥(85) 300,000
남주리(87) 300,000
임수영(91) 500,000
김유진(22) 500,000
행정학과
엄주희(90) 500,000
차윤정(94) 500,000
문헌정보학과
홍승진(65) 300,000
김향진(66) 300,000
박재명(66) 300,000
자금련(72) 300,000
윤소영(73) 300,000
최덕영(74) 300,000
노경석(75) 300,000
고광옥(81) 300,000
권영금(94) 500,000
이승하(16) 500,000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장명수(64) 300,000

조영숙(64) 300,000
변지숙(65) 300,000
조애진(66) 300,000
차경애(66) 300,000
채명자(66) 300,000
한영자(66) 300,000
이경순(67) 300,000
한명미(67) 300,000
조여숙(70) 300,000
정완숙(74) 300,000
남성희(78) 300,000
홍인화(80) 300,000
서윤경(95) 500,000
권애지(25) 500,000
사회학과
김택진(66) 300,000
유혜향(66) 300,000
이수인(67) 300,000
강여금(69) 300,000
민순기(70) 300,000
김난숙(74) 300,000
김자혜(74) 300,000
양숙정(74) 300,000
문명재(77) 300,000
박순원(77) 300,000
서동선(77) 300,000
김은미(81) 300,000
김현주(81) 300,000
최신애(81) 300,000
김정희(82) 300,000
이정화(85) 300,000
김우진(08) 500,000
김현주 300,000
사회복지학과
오명자(65) 300,000
최재명(66) 300,000
김일숙(67) 300,000
김휘성(67) 300,000
문선화(68) 600,000
한인영(72) 600,000
한혜원(74) 300,000
이화수(77) 300,000
조명희(77) 300,000
박영애(79) 300,000
김정진(80) 300,000

김선영(92) 500,000
심세화(96) 500,000
정유선(02) 500,000
심리학과
이은실(80) 1,300,000
오봉림(61) 300,000
임혜영(64) 300,000
차정자(65) 300,000
홍기명(68) 300,000
남영자(71) 300,000
신현숙(71) 300,000
송혜숙(73) 300,000
한보란(75) 300,000
김정애(76) 300,000
박광규(76) 300,000
강순원(80) 300,000
한성엽(82) 300,000
한정은(84) 300,000
이현승(93) 500,000
장서희(01) 500,000
김선영(09) 500,000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민경자(63) 300,000
이명수(68) 300,000
최길남(70) 300,000
이명희(73) 300,000
강점기(79) 300,000
노선숙(79) 300,000
조선영(80) 300,000
조은희(81) 300,000
김경령(84) 300,000
김민경(85) 500,000
함지영(91) 500,000

통계학과

김나영(93) 500,000
송유정(94) 500,000
유시내(96) 500,000
정운계(98) 500,000
이혜은(00) 500,000
유선희(04) 500,000

물리학과

모혜정(62) 300,000
안응학(70) 300,000
김성희(74) 300,000
남상택(74) 300,000
이영애(74) 300,000
김우식(75) 300,000
이재화(75) 300,000
정명희(75) 300,000
심금희(86) 300,000
이미경(86) 300,000
이승미(86) 300,000
이경희(88) 500,000
박수산(91) 500,000
이수영(93) 500,000
안지영(95) 500,000
서정은(08) 500,000

이소윤(10) 500,000
화학과
강영옥(60) 300,000
김순신(69) 300,000
허인순(69) 300,000
김정수(70) 300,000
박연수(70) 300,000
백기숙(71) 300,000
정춘희(71) 300,000
심명숙(72) 300,000
심송영(73) 300,000
이종옥(73) 300,000
배경화(74) 300,000
최 인(74) 300,000
김정원(76) 300,000
성진희(85) 300,000
석지수(12) 500,000
주예영(15) 500,000

생명과학과

이정애(59) 300,000
류 우(60) 300,000
정은자(61) 300,000
서경자(63) 300,000
김문자(65) 300,000
이혜숙(67) 300,000
한진순(70) 300,000
조애현(74) 300,000
함천경(77) 300,000
조가현(09) 500,000

공과대학

전자공학과
김현주(16) 500,000
여현영(23) 500,000

환경공학과

이효수(98) 1,000,000
전유진(16) 500,000
손채원(21) 500,000

건축학부

장미현(00) 500,000
심미혜(09) 500,000

인공지능대학

컴퓨터공학과
조호경(87) 500,000

김애경(72) 300,000
손동숙(72) 300,000
양민순(74) 300,000
권혜령(76) 300,000
우숙영(87) 500,000
이혜영(87) 300,000
남영화(91) 500,000
백진영(91) 500,000
이선령(91) 500,000
이지영(91) 500,000
박지영(92) 500,000
채성내(92) 500,000
송혜영(96) 500,000

관현악과

유인숙(75) 300,000
서봉숙(77) 300,000
강효승(79) 300,000
민소원(01) 500,000
김재희(23) 500,000

성악과

이혜자(65) 300,000
이영애(68) 300,000
이정숙(68) 300,000
조순옥(72) 300,000
신난식(73) 300,000
양미라(75) 300,000
정이정(95) 500,000
김현나(02) 500,000
임나연(10) 500,000

작곡과

김옥자(67) 300,000
진영미(75) 300,000
신순아(85) 300,000
정소희(89) 500,000
성주연(20) 500,000

종교음악과

방명주(73) 300,000
조영심(77) 300,000
오지영(88) 500,000

한국음악과

양재희(80) 300,000
박지영(02) 500,000
이수진(16) 500,000
김경현(17) 500,000
박가영(17) 500,000

권현진(03) 500,000
이정수(03) 500,000
김도연(25) 500,000

조소과

김명숙(74) 300,000
황효석(74) 300,000
이숙자(77) 300,000
최윤희(77) 300,000
강신애(78) 300,000
표귀명(81) 300,000
박효정(90) 300,000
도정윤(24) 500,000

섬유예술과

이병남(64) 300,000
임정미(74) 300,000
이현주(83) 300,000
봉지희(85) 300,000
김로아(87) 500,000
김성희(89) 300,000
오현아(91) 500,000
반시훈(22) 500,000
이혜란(24) 500,000

생활미술과

김병미(63) 500,000
장유근(67) 300,000
조창연(67) 300,000
신수연(69) 300,000
이우경(69) 300,000
서동희(70) 300,000
노 용(72) 300,000
이혜순(72) 300,000
강구선(75) 300,000
우은희(81) 300,000
조미연(82) 300,000
염선행(83) 300,000
김곡미(87) 300,000
진현경(93) 500,000
이미숙 300,000

장식미술과

전복순(72) 300,000
정희송(73) 300,000
박 실(75) 300,000
박혜성(78) 300,000
이옥경(81) 300,000
고정란(82) 300,000
정경선(82) 300,000
신승원(87) 300,000
김승원(88) 500,000

도예과

진숙현(77) 300,000
최재원(84) 300,000
김은경(93) 500,000

체육대학

체육학과
방봉세(51) 300,000
김정자(56) 300,000
이요식(57) 300,000
임정희(60) 300,000
서희경(69) 300,000
문규순(70) 300,000
이숙원(70) 300,000
윤남숙(72) 300,000
박경실(78) 300,000

최정진(82) 300,000
김양래(91) 500,000
김선희(93) 500,000
최지원(22) 300,000

무용과

김정수(70) 800,000
조수형(70) 300,000
허명화(70) 300,000
김화숙(71) 300,000
차정원(71) 300,000
박명숙(72) 300,000
이경진(72) 300,000
이명경(77) 500,000
김경주(80) 300,000
김서경(89) 500,000
김민정(90) 500,000
정가희(19) 500,000
김나연(24) 500,000

사범대학

교육학과
정일래(50) 300,000
사지숙(55) 300,000
김은산(59) 300,000
이양순(59) 300,000
한임순(59) 300,000
오춘란(61) 300,000
구순희(65) 300,000
김신지(68) 300,000
박영자(68) 300,000
장예순(68) 300,000
이인숙(69) 300,000
유승희(70) 300,000
박인숙(71) 300,000
박문숙(72) 300,000
이상희(72) 300,000
채문숙(74) 300,000
김정애(76) 300,000
노경희(77) 300,000
박영숙(81) 300,000
정대련(82) 300,000
김수미(85) 300,000
이정표(85) 300,000
안경인(93) 500,000
호재숙(49입) 300,000

유아교육과

이정순(68) 300,000
정명자(68) 300,000
김영주(71) 300,000
임형란(71) 300,000
전순희(71) 300,000
조한수(71) 300,000
문경숙(74) 300,000
오승희(75) 300,000
임산희(81) 300,000
송은미(85) 300,000
김규정(06) 300,000

이재희(71) 300,000
조세향(74) 300,000
조진영(77) 300,000

교육공학과

김준희(67) 300,000
박선혜(67) 300,000
송순자(69) 300,000
전진오(71) 500,000
김영수(73) 300,000
김혜련(73) 300,000
이구인(73) 300,000
노정숙(74) 300,000
신경인(75) 300,000
박효숙(84) 300,000
정연정(81) 500,000

특수교육과

박애영(75) 300,000
한기정(75) 300,000
한은주(79) 300,000
이동승(85) 300,000
김태연(89) 300,000
채명숙(92) 500,000
홍경아(93) 500,000
정유진(24) 500,000

영어교육과

제기원(69) 300,000
김향련(69) 300,000
이혜완(69) 300,000
하현숙(72) 300,000
안승선(75) 300,000
이철표(76) 300,000
안정숙(81) 300,000
강혜숙(80) 300,000
박수경(80) 300,000
우경화(80) 300,000
김선자(82) 300,000
안인성(82) 300,000
유명순(87) 300,000
이지현(91) 500,000
한이경(01) 500,000
이미진(07) 500,000
강명주(25) 500,000

사회과교육과

이선희(61) 300,000
강봉기(63) 300,000
민태희(70) 300,000
서정희(70) 300,000
구경혜(71) 1,000,000
김명희A(71) 300,000
김영주(71) 300,000
김옥영(71) 300,000
노현숙(71) 300,000
양태주(71) 300,000
유경실(71) 300,000
이선희(71) 300,000
이은숙(71) 300,000
장세화(71) 300,000
전혜영(71) 300,000
정봉식(71) 300,000
조매순(71) 300,000
최필녀(71) 300,000
최 환(71) 300,000
이선희(72) 300,000
이인숙(72) 300,000

최영순(72) 300,000
 성경록(74) 300,000
 송선실(74) 300,000
 채영원(74) 300,000
 김강주(75) 300,000
 이연희(75) 300,000
 김정환(76) 300,000
 성효현(78) 300,000
 송선화(78) 300,000
 손혜경(80) 500,000
 최승원(80) 300,000
 부은영(81) 300,000
 장현주(82) 300,000
 이한순(83) 300,000
 서경애(84) 300,000
 김방희(85) 500,000
 손화정(88) 500,000
 최윤정(06) 500,000
 김하림(09) 500,000
과학교육과
 송옥자(66) 300,000
 이미혜(67) 300,000
 박예경(68) 300,000
 주영미(72) 300,000
 한영수(72) 300,000
 박현경(81) 300,000
 박종서(82) 300,000
 강윤란(83) 300,000
 김영숙(83) 300,000
 신동하(83) 300,000
 채희옥(85) 300,000
 손지현(89) 500,000
 김재령(92) 500,000
 조소현(95) 500,000
 신명은(05) 500,000
 김영미(미상) 300,000
수학교육과
 심홍임(76) 300,000
 신경희(77) 300,000
 윤혜영(82) 300,000
 윤희숙(82) 300,000
 이수영(82) 300,000
 조은숙(82) 300,000
 김혜영(83) 300,000
 이현심(83) 300,000
 장순복(83) 300,000
 김정미(87) 300,000
 한선옥(87) 500,000
국어교육과
 김예원(13) 500,000

법대·법전문

법학과

이미대안(55) 300,000
 김정자(56) 300,000
 허남희(59) 300,000
 김덕희(61) 300,000
 차명희(66) 500,000
 천경희(66) 300,000
 신인영(67) 300,000
 조남진(68) 300,000
 전효숙(73) 300,000
 박은정(74) 300,000
 신순자(74) 300,000

배귀희(76) 300,000
 송영숙(78) 300,000
 김남애(80) 300,000
 권성희(86) 500,000
 노정희(86) 300,000
 진은희(88) 300,000
 양옥희(90) 500,000
 정영심(00) 500,000
 백혜량(01) 500,000
 안신정(06) 500,000
 윤수영(07) 500,000
 박은지(09) 500,000
 임민정(10) 500,000
 김윤희(11) 500,000

경영대학

경영학과

이현수(68) 300,000
 임혜옥(74) 300,000
 김영선(78) 300,000
 권인호(79) 300,000
 고혜경(80) 300,000
 홍순경(80) 300,000
 강병화(83) 300,000
 채경령(83) 500,000
 김지훈(90) 500,000
 주 현(91) 500,000
 나민경(98) 500,000
 윤유진(00) 500,000
 최윤희(02) 500,000
 하혜심(05) 500,000
 조유진(09) 500,000
 차정민(23) 500,000
 김소정(25) 500,000
 이민서(25) 500,000
국제사무학과
 박문진(72) 300,000
 조계숙(73) 300,000
 이광희(74) 300,000
 이승연(74) 300,000
 김지혜(92) 500,000
 이유경(98) 500,000

의과대학

의학과

송애원(59) 300,000
 박보훈(60) 300,000
 이용옥(60) 300,000
 남소자(66) 300,000
 이국자(67) 300,000
 방희연(68) 300,000
 유신애(69) 300,000
 주문희(70) 300,000
 우명숙(71) 300,000
 이경혜(71) 300,000
 우경숙(72) 300,000
 이영주(72) 300,000
 방은숙(74) 300,000
 이덕용(75) 300,000
 최순옥(76) 300,000
 송선희(77) 300,000
 이용주(77) 300,000
 이혜영(77) 300,000
 오혜숙(78) 300,000

이진숙(78) 300,000
 심 현(80) 300,000
 백애란(81) 300,000
 이경숙(81) 300,000
 홍경희(81) 300,000
 양미혜(82) 300,000
 임선영(82) 300,000
 김태경(84) 300,000
 이승희(84) 300,000
 최혜영(85) 300,000
 박혜영(89) 500,000
 장혜경(92) 500,000
 김예진(93) 500,000
 채 림(93) 200,000
 박세미(01) 537,966

의학전문대학원

김성연(18) 500,000

간호대학

간호학과

김계숙(70) 300,000
 이남희(70) 300,000
 박미주(73) 300,000
 송희순(73) 300,000
 안기숙(73) 300,000
 김남순(74) 420,000
 박혜주(75) 300,000
 양순옥(75) 300,000
 유명희(75) 300,000
 하영수(75) 300,000
 윤숙경(76) 300,000
 윤정숙(77) 300,000
 임경희(80) 300,000
 이청란(81) 300,000
 이희숙(81) 300,000
 변은경(83) 300,000
 유미경(01) 500,000
 송사라(20) 500,000

약학대학

약학과

문은선(49) 300,000
 이항구(50) 300,000
 김정분(51) 500,000
 배복환(55) 300,000
 백란빈(57) 300,000
 이정란(57) 300,000
 문예자(58) 300,000
 배숙재(58) 300,000
 임정숙(58) 300,000
 정현숙(58) 300,000
 홍은숙(58) 300,000
 문희정(59) 300,000
 오세영(59) 300,000
 윤혜숙(59) 300,000
 정재옥(59) 300,000
 김영길(60) 300,000
 김정원(60) 300,000
 윤성옥(60) 500,000
 이도선(60) 300,000
 이주화(60) 300,000
 이필숙(60) 300,000
 조옥향(60) 300,000

허경순(60) 300,000
 황영숙(60) 500,000
 김동선(61) 600,000
 김정화(61) 300,000
 김춘숙(61) 300,000
 안혜성(61) 300,000
 전성희(61) 300,000
 최옥금(61) 300,000
 김순영(62) 300,000
 김정훈(62) 300,000
 김춘자(63) 300,000
 김현혜(63) 300,000
 이순자(63) 300,000
 최창환(63) 300,000
 구신자(64) 300,000
 백정자(64) 300,000
 신정자(64) 300,000
 안선자(64) 300,000
 안화자(64) 300,000
 이신애(64) 300,000
 이지영(64) 300,000
 이학자(64) 300,000
 이혜자(64) 300,000
 정애영(64) 300,000
 주금란(64) 300,000
 홍정자(64) 300,000
 황대성(64) 300,000
 황민자(64) 300,000
 김옥진(65) 300,000
 김화자(65) 300,000
 박진희(65) 300,000
 서인도(65) 300,000
 송연자(65) 300,000
 안부자(65) 300,000
 유희열(65) 300,000
 조수연(65) 300,000
 황영자(65) 300,000
 이경자(66) 300,000
 한문길(66) 300,000
 김보혜(67) 300,000
 박성자(67) 300,000
 안규형(67) 300,000
 이종자(67) 300,000
 장순자(67) 300,000
 한순희(67) 300,000
 박 순(68) 300,000
 원문자(68) 300,000
 한혜영(68) 300,000
 강영심(69) 300,000
 김덕길(69) 300,000
 김옥수(69) 300,000
 박성숙(69) 300,000
 오인덕(69) 300,000
 이병림(69) 300,000
 정인숙(69) 300,000
 하영숙(69) 300,000
 문경계(70) 300,000
 변진희(70) 300,000
 정순자(70) 300,000
 박경희(71) 300,000
 박영자(71) 300,000
 박현숙(71) 300,000
 이주재(71) 300,000
 조성계(71) 300,000

고명순(72) 300,000
 박정아(72) 300,000
 백창화(72) 300,000
 조선복(72) 300,000
 홍양순(72) 300,000
 고경혜(73) 300,000
 임형순(73) 300,000
 김유현(75) 300,000
 유남희(75) 300,000
 이복희(75) 300,000
 정용희(75) 300,000
 광양근(76) 300,000
 조갑상(76) 300,000
 최성림(76) 300,000
 한정순(76) 300,000
 김수로(77) 300,000
 박영혜(77) 300,000
 박용숙(77) 300,000
 이인애(77) 300,000
 정춘화(77) 300,000
 황옥순(77) 300,000
 박명순(78) 300,000
 박순희(78) 300,000
 김현숙(79) 300,000
 김형진(79) 300,000
 민명주(79) 500,000
 서현숙(79) 300,000
 이미애(79) 300,000
 이혜정(79) 300,000
 박영란(80) 300,000
 이정자(81) 300,000
 김화연(82) 300,000
 김희민(82) 300,000
 여성애(82) 300,000
 이선희(82) 300,000
 장미숙(82) 300,000
 조혜숙(82) 300,000
 함임주(82) 300,000
 강인숙(83) 300,000
 김상리(83) 300,000
 문성미(83) 300,000
 안소영(83) 500,000
 이영희(83) 300,000
 지선옥(83) 300,000
 강찬향(84) 300,000
 김부순(84) 300,000
 박 경(84) 300,000
 박병희(84) 300,000
 박수영(84) 300,000
 오윤숙(84) 300,000
 김영은(85) 300,000
 박정환(85) 300,000
 김성은(86) 500,000
 김영숙(86) 300,000
 김은미(86) 500,000
 김현주(86) 500,000
 백남주(86) 300,000
 이승아(86) 300,000
 이향란(86) 300,000
 최혜숙(86) 300,000
 황미경(86) 300,000
 김승희(88) 500,000
 최영옥(88) 500,000
 이윤정(92) 500,000

서성연(95) 500,000
 김희진(02) 500,000
 유별내(02) 500,000
 허윤정(11) 500,000
 권한비(21) 500,000
 우혜인(22) 500,000
제약학과
 김미자(74) 300,000
 서성애(75) 300,000
 윤영숙(75) 300,000
 이숙희(75) 300,000
 송찬호(76) 300,000
 이영숙(76) 300,000
 전영옥(76) 300,000
 이현정(78) 300,000
 공서형(79) 300,000
 김선주(79) 300,000
 서영순(80) 300,000
 김혜선(81) 300,000
 김승애(83) 300,000
 한병희(83) 300,000
 고선미희(84) 300,000
 김은경(85) 300,000
 배은숙(85) 300,000
 유선희(85) 500,000
 이현미(85) 300,000
 이장경(88) 500,000
 송경령(89) 500,000
 안은선(89) 500,000
 문미란(93) 500,000
 전수경(94) 500,000
 서은영(99) 500,000
 최지영(08) 500,000

생활환경대학

가정학과

경순옥(59) 300,000
 함태좌(60) 300,000
 박정희(62) 300,000
 박창순(62) 300,000
 박혜경(63) 300,000
 이종훈(64) 300,000
 정화자(64) 300,000
 김국자(66) 300,000
 이갑희(66) 500,000
 이숙현(67) 300,000
 최민자(67) 300,000
 김대순(68) 300,000
 김성림(68) 300,000
 문옥조(68) 300,000
 배계현(68) 300,000
 이삼희(68) 300,000
 최순자(68) 300,000
 김혜련(91) 500,000

가정관리학과

이장남(70) 300,000
 한혜숙(70) 300,000
 박인숙(71) 300,000
 이봉진(72) 300,000
 김현숙(73) 300,000
 한정희(74) 300,000
 김진원(75) 300,000
 지영서(80) 300,000
 박용임(86) 300,000

이향진(87) 300,000
임주희(93) 300,000
유우준(95) 500,000
이류직물학과
이명희(70) 300,000
정혜순(71) 300,000
윤덕희(76) 300,000
우미형(77) 300,000
변기혜(81) 300,000
차영란(82) 300,000
식품영양학과
정애영(64) 300,000
김영순(69) 300,000
이선옥(69) 300,000

편희숙(69) 300,000
김정연(70) 300,000
김태연(70) 300,000
우정애(70) 300,000
이호자(70) 300,000
박진자(71) 300,000
김남주(72) 300,000
김금희(73) 300,000
강중은(74) 300,000
김희설(74) 300,000
한희주(74) 300,000
김광옥(75) 300,000
이명복(75) 300,000
최경희(75) 300,000

황은주(75) 349,534
최진자(80) 300,000
전보신(81) 300,000
조미숙(81) 300,000
조미숙(83) 300,000
융합보건학과
장점숙(69) 300,000
이수인(70) 300,000
김옥례(71) 300,000
함추희(72) 300,000
김동희(74) 300,000
이선숙(74) 300,000
김숙자(82) 300,000
홍승희(86) 300,000

유형심(90) 500,000
국제학부
최수안(06) 500,000
대학원
이정자(74) 300,000
박선애(01) 500,000
교육대학원
양수화(74) 300,000
디자인대학원
조기련(85) 300,000

사회복지대학원
유지선(18) 500,000
정책과학대학원
전혜성(08) 500,000
김은주(13) 800,000
신학대학원
최영진(12) 300,000
천미영(14) 500,000
학과·연도 미상
김형국 300,000
박인숙 600,000

윤혜원 600,000
이경미 300,000
이수자 300,000
이영정 300,000
이혜재 300,000
이화원 300,000
장수진 500,000
최대연 500,000
최유미 300,000
불 명 500,000
불 명 300,000
불 명 300,000
불 명 300,000
불 명 300,000

연회비 납부자 명단 2025.01~2025.12(과·졸업 연도 순)

인문과학대학 국어국문학과

김은규(58)
김봉옥(59)
김은자(60)
김중자(60)
권은영(62)
전병숙(64)
정준선(66)
석옥남(68)
오원자(68)
이영로(73)
조성연(73)
한소미(75)
전영자(76)
전용숙(76)
이미숙(80)
한정임(92)
이재은(07)
최안나(13)
최애연(23)
중어중문학과
김영미(89)
민선빈(15)
김혜주(25)
영어영문학과
백형진(55)
김경숙(58)
고학신(59)
서정만(59)
김옥선(61)
남경자(62)
이기영(62)
고영자(63)
김정매(63)
박성희(63)
엄윤성(63)
유명자(63)
윤은자(63)
김춘미(65)
이영숙(68)
이유경(68)

한선규(69)
오경심(70)
이종희(70)
김수연(71)
불 명(72)
이명숙(74)
백혜련(75)
김미량(77)
우미화(79)
이승희(80)
고혜선(82)
박경애(83)
박은주(94)
김태연(09)
성주혜(23)
장예슬(23)
강다민(25)
이서현(25)
불어불문학과
이미형(61)
최병화(61)
김승자(63)
불 명(64)
윤용범(64)
조행자(64)
성명숙(66)
이초혜(66)
엄선경(67)
이한순(67)
박종희(68)
오진옥(70)
최경숙(70)
최미자(70)
정광자(73)
이화원(81)
최아람(07)
송하연(16)
최하은(22)
독어독문학과
최영민(71)
신정숙(74)
성경화(75)

정윤정(75)
김정미(92)
기독교학과
이순경(63)
김영화(65)
장수자(66)
한은실(72)
최수현(92)
철학과
이정혜(81)
강숙희(90)
허지선(16)
최소은(24)
사학과
정민자(61)
조성신(61)
남상훈(62)
김재향(67)
서정임(68)
김옥경(74)
최경숙(74)
정현주(76)
최유리(84)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윤혜자(61입)
김영숙(70)
김영희(70)
서영미(70)
서정희(70)
이양준(70)
이연표(70)
조백련(70)
조복선(70)
하정희(70)
신경희(71)
서미영(72)
손인숙(72)
양혜련(72)
문남희(73)
박현숙(73)

강계선(79)
구채숙(80)
함영이(87)
김희정(88)
정정의(92)
서석영(94)
송희문(13)
문헌정보학과
유애저(65)
안정선(74)
조혜진(91)
김영애(95)
커뮤니케이션대학부
최광순(64)
조정자(67)
김미령(69)
김인자(73)
김혜진(90)
안경화(94)
송지은(01)
송해수(04)
김지수(19)
사회학과
김형옥(61입)
최용소(65)
유혜숙(69)
최진선(70)
이현숙(71)
진양숙(72)
사회복지학과
오순희(60)
이영우(62)
최태순(62)
손경자(64)
이정민(72)
장성순(72)
김은혜(74)
조문영(25)
심리학과
김순옥(61)
정순자(61)
박미경(80)

이동길(89)
백정옥(08)
최시원(25)
경제학과
김성은(97)
최민경(17)
권수연(25)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윤연상(62)
박수임(71)
김원영(73)
이숙자(73)
박복자(76)
류정라(81)
이홍숙(88)
이수현(00)
통계학과
김수진(05)
박수빈(23)
이상은(25)
물리학과
정정옥(63)
김경자(68)
불 명(75)
한미경(88)
송지은(92)
신희원(92)
유혜승(25)
화학학과
김명숙(57)
김정남(60)
박영현(60)
양영자(65)
양하자(65)
김형경(70)
최희성(74)
박세주(75)
김지원(92)
박정우(08)
장희진(25)

생명과학과
최영희(60)
강래화(61)
최순자(67)
윤영명(74)
이영순(74)
박정희(87)
오시연(89)
공과대학
환경공학과
최고은(02)
이가영(25)
건축학부
정희진(10)
김혜주(25)
휴먼기계바이오공학부
이주예(24)
송수빈(25)
인공지능대학
컴퓨터공학과
이영옥(92)
이원진(01)
김예슬(16)
박지영(21)
사이버보안학과
김연희(21)
음악대학
피아노과
김태영(88)
김태연(00)
불 명(08)
박소영(23)
관현악과
이혜원(81)
나은주(95)
김지영(03)
성악과
합선호(61)
왕이자(67)

전명순(74)
석혜원(94)
작곡과
강순미(71)
김시애(75)
종교음악과
오혜자(74)
신인숙(87)
이슬기(09)
김세아(23)
조형예술대학
동양화과
이순남(71)
박인숙(78)
박은나(84)
이승은(89)
임 율(17)
서양화과
양정옥(63)
곽 연(67)
이서희(68)
조수정(79)
나인하(91)
안혜리(91)
강수연(94)
조소과
김정숙(71)
심인자(74)
서옥천(81)
이은주(94)
섬유예술과
오복환(66)
김삼선(68)
김연재(94)
이현조(23)
윤소현
생활미술과
노경혜(69)
김미자(70)
박혜신(71)
이소연(95)

김시나(99)
이민정
장식미술과
권지원(75)
정숙영(82)
신영선(88)
이경수(92)
도예과
안희정(85)
남연숙(86)
신정은(02)
체육대학
체육학과
김숙자(64)
김혜자(66)
전성자(67)
홍양자(67)
이정자(68)
김은희(72)
이미나(81)
김동연(84)
이명진(95)
김유련(97)
변유경(99)
강송이(00)
무용과
윤덕경(76)
윤종옥(92)
문소리(08)
사범대학
교육학과
김애자(56)
권유봉(58)
신순오(58)
정재숙(58)
김춘심(59)
권혜숙(61)
김애순(61)
문완희(61)
유수현(61)

백영자(63)	송현주(87)	최은진(88)	이경애(67)	이영예(63)	신우윤정	디트로이트	안세민(국문 15)
이정옥(63)	박미경(88)	양훈진(95)	이평숙(67)	김률자(64)	오경화	424,800원	최혜인(경영 16)
김병진(65)	박인숙(88)		정순혜(67)	예경혜(64)	유선경	멜버른	전보림(커미부 17)
윤순희(65)	안양희(89)	간호대학	정영주(67)	조정자(64)	윤순자	272,805원	박경민(경영 20)
박경희(68)	박균하(94)	간호학과	지화자(67)	나순구(65)	이경숙	몬트리올	박인혜(사회 21)
우소화(68)	김윤아	남상옥(62)	최순자(67)	박부자(65)	이재숙	420,000원	정소연(국제학부 22)
김임순(70)	수학교육과	오나미혜(64)	한인자(67)	박정자(65)	이종민	평생회비(30만 원) :	오티와
이지수(71)	문봉선(76)	권명자(71)	조의희(68)	오매성(66)	이현정	이체화(무용 76)	300,000원
이지연(71)	이원순(87)	김기숙(71)	최원자(68)	조규화(66)	전용숙	25년 동창회비(3만 원 4인) :	워싱턴 D.C.
서성필(75)	김미래(14)	김택숙(71)	한윤자(68)	김혜영(68)	정순임	박정자(화학 62)	1,416,000원
김태미(84)	김은유(25)	이광자(71)	한혜란(68)	임혜숙(68)	정재은	전숙자(사교 65)	이탈리아
최문형(86)		손순성(73)	백숙희(69)	가정관리학과	한승희	임병애(국문 73)	255,000원
유아교육과	법대·법전문	조문옥(73)	신정희(69)	권광자(71)		김명원(수학 92)	일리노이
유근희(61)	법학과	강미선(25)	오정순(69)	노계열(74)	기타 이름 미상	베이징	708,000원
김영희(68)	이홍배(61)		주경애(69)	윤소영(89)	(13명)	1,000,000원	일본
전희정(68)	황의재(61)	약학대학	최혜영(69)	이종은(94)		보스턴	570,000원
김영재(74)	유희숙(65)	약학과	정점선(70)	의류직물학과	국내 지회	708,000원	곽소춘(사학 65)
신화식(74)	홍경자(65)	문형자(54)	정현숙(70)	김혜자(60)	전주	북가주	정정자(커미부 65)
성수진(25)	양정자(66)	김정순(57)	박숙현(71)	김유경(70)	1,170,000원	708,000원	정태영(생미 69)
초등교육과	유미선(69)	이정경(57)	이태윤(74)	이미자(74)	김영원(기악 61)	세인트루이스	구덕자(의학 69)
김광자(65)	윤혜숙(70)	홍정옥(57)	이희원(74)	이희원(74)	국혜원(사학 62)	360,203원	고정희(장미 74)
이인숙(70)	이중분(72)	유문자(58)	유혜자(77)	이나영(98)	조덕이(생명 64)	이수자(가정 63)	신주리(장미 84)
조운순(75)	조근배(77)	강경례(59)	신영숙(73)	식품영양학과	이주자(사교 67)	최길자(화학 65)	송미연(커미부 86)
교육공학과	남윤희(87)	문 희(59)	신희진(73)	장선재(69)	장 숙(교공 69)	정선주(성악 68)	김덕희(도예 92)
이숙애(72)	임태레스(94)	박정애(59)	우진행(75)	이영숙(70)	박숙희(교공 70)	이애희(간호 69)	나정윤(동양 92)
하진경(75)		이영숙(59)	지춘근(75)	전정숙(71)	안명옥(심리 70)	선재숙(의학 72)	정효은(커미부 92)
이정옥(81)	경영대학	전경순(59)	이영란(76)	정은경(90)	이전숙(의직 70)	양혜자(교육 74)	배호주(동양 93)
이소영(91)	경영학과	최안자(59)	김성희(77)	최수미(94)	박경혜(영교 71)	최혜영(생미 86)	이목미(유교 93)
권연정(98)	김옥순(69)	고순환(60)	박민희(77)	한지희(16)	기영석(국제사무 73)	이명아(피아노 91)	최미라(관현 94)
특수교육과	장석희(77)	김보근(60)	조금희(77)	전강옥	손숙희(작곡 73)	이경희(영교 92)	성민영(수학 95)
이경순(88)	정혜선(89)	민정남(60)	김민희(78)	융합보건학과	이현실(심리 73)	시애틀	김운천(평교원 96)
최은주(89)	이연주(90)	윤계임(60)	김민영(79)	신정례(67)	심창교(물리 75)	424,800원	김 일(한음 02)
성미영(94)	박숙영(00)	윤정섭(60)	김용재(82)	이주순(73)	오경안(법학 75)	싱가포르	고나리(커미부 05)
한영은(25)	이수현(11)	장현숙(60)	김은숙(83)	한도숙(75)	유수옥(특교 77)	1,495,000원	문춘자(알프스 09)
영어교육과	신지영(24)	전한옥(60)	유현숙(83)	오명선(78)	유순금(법학 77)	애들랜트	최영숙(알프스 09)
김경숙(69)	유정민(25)	최정희(60)	임현주(83)	임찬희(78)	정혜숙(영문 77)	1,416,000원	클리블랜드
김영숙(69)	최현수(25)	최혜경(60)	강미정(84)	국제학부	오경진(영문 78)	영국	400,000원
최종숙(72)	국제사무학과	강금희(61)	정현복(85)	김경민(20)	이은정(화학 79)	960,000원	토론토
강월석(76)	임은식(81)	고경희(61)	박정민(86)	김정현(20)	이정숙(유교 81)	손선혜(영문 66)	600,000원
윤영진(76)	김 영(11)	김옥녀(61)	김영순(92)	홍다은(24)	문아경(약학 82)	정미령(교육 66)	포틀랜드
박영란(80)	의과대학	배정향(61)	김혜정	박민제(25)	성현수(영문 82)	강순열(기관 77)	424,800원
박현숙(83)	의학과	배형진(61)	제약학과		이옥현(피아노 82)	김인성(영문 80)	홍콩
채은미(85)	의학과	은영기(61)	고순현(71)	대학원	조혜정(영문 84)	옴은경(조소 82)	2,190,271원
최수영(87)	김순희(59)	이광구(61)	노명희(72)	강소진(01)	김영란(서양 85)	김명희(특교 90)	
이정원(88)	우복희(63)	이종희(61)	최성자(72)	김호정(13)	박영자(국문 85)	표정아(정외 91)	
김나현(92)	배민자(66)	반묘령(62)	백영희(75)	교육대학원	정순임(식영 85)	정자은(한음 94)	
사회과교육과	이규현(68)	조수남(62)	김미숙(77)	이승재(03)	최화윤(불문 85)	박은경(유교 95)	
김경옥(57)	지현숙(70)	김국자(63)	김허경(78)		유희연(영교 86)	남경화(국문 98)	
박정복(57)	김혜진(71)	송정구(63)	전경희(78)	정책과학대학원	정향숙(사복 86)	이석경(기관 99)	
양인숙(66)	유경화(74)	오성지(63)	김영미(79)	김은주(16)	진용희(사교 87)	양지경(사교 00)	
성봉기(68)	최금자(74)	정창섭(63)	김혜연(80)	신학대학원	김경주(행정 88)	정혜숙(경제 02)	
윤여숙(69)	최형혜(74)	차영화(63)	박옥희(85)	장계영(20)	천선미(사복 88)	홍시내(커미부 02)	
김숙자(70)	이경자(75)	한용봉(63)	조은진(94)	공연예술대학원	김희진(특교 89)	김보혜(경제 03)	
박영주(70)	이선자(75)	하옥자(63)		오진화(24)	김수진(법학 94)	김리리(중문 04)	
박지선(74)	이은열(75)	김송윤(64)	생활환경대학		강진아(중문 95)	김수주(심예 05)	
박금옥(83)	권태정(76)	나진미(64)	가정학과		권주연(피아노 98)	남슬기(사학 05)	
임세아(24)	이경림(76)	이정혜(64)	김영채(50)		이윤정(피아노 99)	정근아(사학 06)	
과학교육과	장애숙(76)	정태연(64)	윤영자(56입)	공예예술대학원	한소연(의직 02)	홍한나(경영 07)	
이순자(67)	신혜원(78)	황문희(64)	손경희(58)			안민영(소비자 09)	
한옥희(67)	최금숙(79)	정진숙(65)	마복자(80)	학과·연도 미상	해외 지회	이재영(환경공학 09)	
한태화(68)	김문자(80)	김명자(66)	정은희(60)	김애란	남가주	김도형(국문 10)	
안순란(74)	윤혜원(80)	김수옥(67)	한영숙(60)	김정자	1,416,000원	최정임(화학 11)	
김인원(75)	최신영(80)	김진희(67)	양여순(61)	문세령	뉴욕	권채린(심리 14)	
송영희(77)	홍기숙(80)				1,468,120원	최지원(서양 14)	

국내 최초 VIP 상류층 결혼정보회사



에 스 노 블

아무나 진행하지 않고,
함부로 만남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전직 두 대통령 집안의 성혼을 이루어 낸
26년 전통의 자부심으로
집안까지 생각하는 당신의 성혼을 책임지겠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상류층 결혼정보회사

S Noble

이화여대 동창 및 자녀 분들을 특별히 모시겠습니다. 02-3445-4777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81길 50, 2층 www.snoble.com

신한은행 IRP

전문가의 관리가 수익률의 차이니까

퇴직연금전문 신한은행

- 분기별 연금 정기관리
- 자산규모별 맞춤 관리
- 종장기 수익률 관리
- 생애주기에 따른 투트랙 관리

*이 퇴직연금은 예금저축보험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1억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개별퇴직연금의 수수료는 후취 연 0%~0.45%입니다. (수수료에 대한 상세 내용은 운용/자산관리 계약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종도해지 수수료는 없습니다. 단, 계약기간 만료 전 종도해지 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시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연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종도 인출은 근로자 퇴직급여법상 퇴직급여 특별종도 인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당사는 해당 퇴직연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①항에 따라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계약서를 참조하시거나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광고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준법감시인 사전심사필 제2025-14845-1호 (2025.10.29~2026.10.28)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5-04624호(2025.10.29~2026.10.28)